

# 더 <sup>THE</sup> 개념 블랙라벨

정답과 해설

B L A C K L A B E L



# I 개념 OX

## 1장 음운

### 1강-A 음운



본문 13쪽

- 01 ㄷ : ㅁ
- 02 ㄹ : ㄹ
- 03 소리의 길이
- 04 ㅅ : ㅅ
- 05 ㅈ : ㅈ
- 06 ㅁ : ㄹ
- 07 ㅈ : ㅈ
- 08 ㄱ : ㄱ

### 03

‘말’과 ‘말:’의 분절 음운(자음, 모음)은 동일하지만, 소리의 길이가 달라 의미에 차이가 있다.

#### 바로 확인

본문 14쪽

- 1 ④
- 2 ②
- 3 ②

1 ‘전화-만화’는 하나의 음운만으로 의미가 구분되는 최소 대립쌍이 아니다. ‘ㅅ : ㅁ’, ‘ㄱ : ㅈ’ 소리에 의해 의미가 구분되고 있다.

① ‘ㅁ : ㅈ’ 소리만 대립하고 있는 최소 대립쌍이다. ② ‘ㅈ : ㅈ’ 소리만 대립하고 있는 최소 대립쌍이다. ③ ‘소리의 길이’만 대립하고 있는 최소 대립쌍이다. ⑤ ‘ㅎ : ㅁ’ 소리만 대립하고 있는 최소 대립쌍이다.

2 국어에서는 자음과 모음 외에 소리의 길이, 억양과 같은 비분절 음운도 음운에 포함된다.

3 단어의 첫음절에서 긴소리를 가진 경우 ‘눈[눈:](雪), 말[말:](言), 밤[밤:](栗)’은 물론이며 복합어 ‘눈보라, 눈사람’에서의 ‘눈’도 긴소리로 발음하고, ‘말소리, 말싸움’ 등의 ‘말’도 모두 긴소리로 발음하며, ‘밤꽃, 밤나무’ 등의 ‘밤’도 모두 긴소리로 발음한다. 그러나 둘째 음절 이하에서 쓰인 긴소리는 모두 짧게 발음한다. ‘첫눈, 인사말, 군밤’ 등의

‘눈, 말, 밤’은 모두 짧게 발음한다.

### 1강-B 자음

1. 조음 위치



본문 16쪽

- 01 입술소리, 잇몸소리
- 02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
- 03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 04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 05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 06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 07 잇몸소리, 여린입천장소리
- 08 잇몸소리, 여린입천장소리

### 03

초성에 오는 ‘ㅇ’은 음가가 없다.

### 05

‘꽃이’는 [꼬치]로 소리 나므로, 센입천장소리(ㄷ)와 여린입천장소리(ㅈ)가 포함되어 있다.

#### 바로 확인

본문 17쪽

- 1 ④
- 2 ③
- 3 ④

1 ‘가수’의 자음은 순서대로 ‘ㄱ-ㅅ’인데, ‘ㄱ’의 조음 위치는 여린입천장이고 ‘ㅅ’의 조음 위치는 윗잇몸이므로, <보기>에서 ‘가수’를 발음하면 자음은 ‘9-7’ 위치에서 소리가 날 것이다.

2 자음 ‘ㄴ’과 ‘ㄷ’은 혀끝과 윗잇몸이 닿아서 나는 잇몸 소리이므로 ‘눈’과 ‘돈’의 첫소리는 모두 혀끝을 윗잇몸에 닿게 해서 발음해야 한다.

① ‘국’의 ‘ㄱ’은 여린입천장소리이므로 두 입술이 맞닿아 나는 소리가 아니다. ② ‘불’의 ‘ㅂ’ ‘물’의 ‘ㅁ’은 모두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입술소리이다. 코로 공기를 내보내며 내는 소리는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 중 ‘비음’을 설명한 것

로, ‘ㄹ’에만 해당한다. ④ ‘달’과 ‘돌’의 자음 ‘ㄷ’은 잇몸소리이므로 여린입천장소리와는 관련이 없다. ⑤ ‘줄’의 ‘ㅈ’은 센입천장소리이고 ‘술’의 ‘ㅅ’은 잇몸소리이므로, 목구멍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소리인 목청소리와는 관련이 없다.

**3** ‘ㄹ’과 ‘ㅃ’은 모두 ‘입술소리’로(ㄹ), 폐에서 올라온 공기의 흐름이 입술에서 방해를 받아 나는 소리이다.(ㄷ)  
 ㉠ ‘엄마-아빠’의 첫소리 ‘ㅇ’은 소리가 없는 빈자리로 음가가 없다. 우리말에서 ‘ㅇ’은 받침에 있을 때에만 소리가 난다. ㉡ ‘ㄹ’과 ‘ㅃ’은 모두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다.

**1강-B 자음** 2. 조음 방법 / 소리의 세기 / 목청의 떨림

**채움** 본문 19쪽

01 파열음, 비음, 유음	02 파열음, 마찰음, 비음
03 파열음, 파찰음, 비음	04 파찰음, 비음
05 파열음, 유음	

**05**  
 ‘겨울’에서 ‘ㄱ’은 파열음이고, ‘ㅇ’은 초성에 오므로 음가가 없으며, ‘ㄹ’은 유음이다.

**바로 확인** 본문 20쪽

- 1 ②    2 ④    3 ①

**1** 자음 중에서 비음(ㅁ, ㄴ, ㅇ) 외에 유음(ㄹ)도 울림소리에 해당된다.

① 마찰음(ㅅ, ㅆ, ㅎ)에는 예사소리와 된소리가 있지만, 거센소리는 없다. ⑤ 파찰음(ㅈ, ㅉ, ㅊ)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파열음과 유사), 좁은 틈으로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마찰음과 유사) 소리이다.

**2**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는 파열음이다. 파열음에는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이 있으므로, ‘나라’에는 파열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식물’[식물]로 발음되는 것은 앞 자음의 ‘ㄱ’이 ‘ㅇ’으로 바뀐 것이다. 이를 <보기>의 자음 분류표에서 확인하

면 앞 자음 ‘ㄱ’(파열음)이 ‘ㅇ’(비음)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앞 자음의 조음 방법이 달라진 것이다. 조음 위치는 연구개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입는[입는]’ 역시 발음할 때 앞 자음 ‘ㅂ’(파열음)이 ‘ㄹ’(비음)으로 바뀌고, ‘뜯는[뜯는]’도 앞 자음 ‘ㄷ’(파열음)이 ‘ㄴ’(비음)으로 바뀌었다.

**1강-C 모음** 1. 단모음

**채움** 본문 23쪽

01 >, <	02 =, =
03 <, =	04 >, >
05 <u>당근</u> , <u>브로콜리</u> , <u>오이</u> , <u>가지</u>	
06 <u>키위</u> , <u>체리</u> , <u>오렌지</u> , <u>포도</u>	
07 <u>원숭이</u> , <u>오랑우탄</u> , <u>침팬지</u> , <u>고릴라</u>	
08 <u>아이언맨</u> , <u>엔트맨</u> , <u>그루트</u> , <u>로켓</u>	

**02**  
 ‘에’와 ‘이’는 모두 전설 모음으로 혀의 위치가 동일하고, 중모음으로 혀의 높낮이도 동일하다.

**바로 확인** 본문 24쪽

- 1 ④    2 ②    3 ③

**1** ‘ㅐ’는 혀의 위치가 낮은 저모음이고, 입은 크게 열린 상태에서 소리가 난다.

① ‘나는’에서 모음 ‘ㅏ’와 ‘ㅑ’는 모두 후설 모음에 속한다. ② ‘아기’에서 ‘ㅏ’는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놓이는 후설 모음이고, ‘ㅣ’는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놓이는 전설 모음이므로 ‘아기’를 발음하면 혀가 뒤에서 앞으로 나올 것이다. ③ ‘얼굴’에서 ‘ㅓ’는 원순 모음에 속한다. ⑤ ‘미소’에서 ‘ㅣ’는 혀의 위치가 높은 고모음이다.

**2** 모음 ‘ㅏ’는 혀의 위치가 낮은 곳에서 소리가 나는 저모음이며(ㅏ),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놓이는 후설 모음이고(ㄴ), 발음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단모음이다(ㄹ).

ㄷ. ‘ㄴ’은 평평한 입술 모양으로 발음되는 평순 모음이다.  
 ㄹ. 자음과 달리 모음은 공기의 흐름에 장애를 받지 않는다.

**3** ‘애’, ‘내’, ‘늪’, ‘늪’은 단모음이므로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늪’과 ‘늪’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1강-C** **모음** 2. 이중 모음

**채움** 본문 26쪽

01 ㅏ, ㅑ	02 ㅓ/ㅕ, ㅗ
03 ㅓ, ㅕ	04 ㅓ/ㅕ, ㅑ
05 ㅓ/ㅕ, ㅗ	06 ㅓ, ㅓ
07 ㅓ, ㅗ	08 ㅓ/ㅕ, ㅑ
09 ㅓ, ㅗ	10 ㅓ, ㅑ

**06**  
 ‘니’는 하향 이중 모음으로, 단모음 ‘ㅡ’에 반모음 ‘ㅣ [j]’가 결합한 것이다.

**바로 확인** 본문 27쪽

**1** ①    **2** ④    **3** ⑤

**1** ‘예의’는 이중 모음 ‘예’와 ‘의’로만 구성되었다.  
 ② ‘야구’는 이중 모음 ‘야’와 단모음 ‘구’로, ③ ‘위성’은 단모음 ‘늪’(이중 모음으로 발음 허용함.)와 ‘늪’로, ④ ‘책상’은 단모음 ‘내’와 ‘상’로, ⑤ ‘공개’는 단모음 ‘공’과 ‘개’로 구성되었다.

**2** 이중 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이 합쳐져서 나는 소리로,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지 않고 달라지는 모음이다.

**3** ‘다만 3’에 따르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i]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띄어쓰기’는 [떠어쓰기]로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이다.

**4** 더 개념 블랙라벨 국어 문법

**2강-A** **음운의 교체** 1. 음절 끝소리 규칙 / 비음화

**채움** 본문 30쪽

01 ㄱ	02 ㅂ
03 ㄷ	04 ㄷ
05 ㄷ	06 ㅅ
07 ㄷ	08 ㄹ
09 ㄱ	10 ㄷ
11 [면], (ㅅ → ㄷ)	12 [끈망울], (ㅅ → ㄷ → ㄴ)
13 [동녘], (ㄱ → ㄱ)	14 [김는], (ㅂ → ㅁ)
15 [덤네], (ㅍ → ㅂ → ㅁ)	16 [인니], (ㅅ → ㄷ → ㄴ)
17 [인니], (ㅅ → ㄷ → ㄴ)	18 [닥따], (ㄱ → ㄱ)
19 [망니], (ㄱ → ㅅ)	20 [간네], (ㅌ → ㄷ → ㄴ)

**12**  
 ‘꽃망울’에서 ‘ㅅ’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교체되고, ‘ㄷ’은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교체된다.

**18**  
 ‘닭다’에서 ‘닭’의 받침 ‘ㄱ’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 대표음 [ㄱ]으로 바뀌어 [닥다]로 소리 난다. 그리고 받침 ‘ㄱ’의 영향으로 뒷말 ‘니’ 뒷소리 ‘ㄷ’으로 바뀌어 [닥따]로 소리 난다. 이때 쌍받침 ‘ㄱ’은 하나의 음운이므로, ‘ㄱ’이 ‘ㄱ’으로 바뀌는 것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 ‘교체’가 일어난 것이다.

**20**  
 ‘갈네’에서 ‘갈’의 받침 ‘ㄷ’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간네]로 소리 난다. 그리고 뒷말 ‘니’의 영향으로 ‘ㄷ’이 비음 ‘ㄴ’으로 바뀌어 [간네]로 소리 난다.

**바로 확인** 본문 31쪽

**1** ③    **2** ④    **3** ④

**1** ‘깡늪’은 [깡늪]에서 [깡늪]으로 음운 변동(음절 끝소리 규칙, 비음화)이 일어나지만 음운의 개수는 변화가 없다.

**2** 제13항에 따라 ‘부엌을’은 ‘부엌’이 조사 ‘을’과 결합되고 있으므로 제 음가대로 ‘ㄱ’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부어쿨]로 발음해야 한다.

① 받침이 ㄴ, ㄹ, ㅇ이므로 제8항에 따라 표기와 동일하게 [연], [열], [영]으로 발음한다. ② 제9항에 따라 받침 ‘ㅅ, ㅆ, ㅌ’은 대표음 [ㄷ]으로 발음한다. ③ 겹받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게 되며, 탈락 후 남은 자음도 대표음에 속하지 않으면 그중 하나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옯는’은 ‘옯’의 겹받침 ‘ㅉ’에서 ‘ㄹ’이 탈락한 후([옯]), 제9항에 따라 [옷]으로 바뀌고, 뒤의 비음 ‘ㄴ’의 영향으로 [옷는]으로 발음한다. ⑤ ‘밖’에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으로’가 결합되었으므로, 받침 ‘ㅍ’은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바끄로]로 발음한다.

**3** ‘까닭’은 [까닥]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둘째 음절 ‘닭’의 겹받침 ‘ㄹ’에서 ‘ㄹ’이 탈락한 것이지 음운이 교체된 것은 아니다.

① ‘버섯[버섧]’은 음절 끝소리 ‘ㅅ’이 ‘ㄷ’으로, ② ‘민낫[민낫]’은 음절 끝소리 ‘ㅌ’이 ‘ㄷ’으로, ③ ‘동넉[동넉]’은 음절 끝소리 ‘ㄱ’이 ‘ㄱ’으로 교체된 것이다. ⑤ ‘값웃[가붙]’은 음절 끝소리 ‘ㅅ’이 ‘ㄷ’으로 교체된 것이다.

**1** ‘협력’은 우선 유음화 조건인 ‘ㄹ’의 영향을 받아 변동할 음운 ‘ㄴ’이 없다. 표준 발음법 제19항 [붙임] ‘받침 ‘ㄱ, ㅂ’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에 따르면 ‘협력’은 받침 ‘ㅂ’ 뒤에 연결되는 ‘ㄹ’을 ‘ㄴ’으로 발음하며, 이 ‘ㄴ’에 의해 ‘ㅂ’이 비음화되어 최종적으로 [협넉]으로 발음한다.

①은 천리[철리], ②는 달님[달림], ③은 산림[살림], ⑤는 대관령[대괄령]으로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사례를 찾는 문제이다. ‘상견례’는 2음절 한자어 받침 ‘ㄴ’ 뒤에 ‘ㄹ’이 연결되는 경우로, ‘ㄹ’을 [ㄴ]으로 발음하여 [상견례]가 된다.

①은 닳는[달른], ②는 물난리[물랄리], ③은 할는지[할른지], ④는 광한루[광:할루]로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3** ‘밭이랑’은 받침 ‘ㄷ’(←‘ㅌ’) 뒤에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 형태소 ‘이랑’이 이어지고 있어 제17항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밭이랑] → [받니랑]으로 음운이 변동되어 최종적으로 [받니랑]으로 발음한다.

**2강-A 음운의 교체** 2. 유음화 / 구개음화

**채움** 본문 33쪽

01 찰라	02 달른
03 절라도	04 고지듣따
05 땀바지	06 벼홀치
07 마지	08 부치다

**06** ‘벼홀이’는 벼의 알을 훑는 농기구이다. 겹받침 ‘ㅉ’의 ‘ㅌ’이 뒤의 접사에 연음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 [벼홀치]로 발음한다.

**바로 확인** 본문 34쪽

**1** ④    **2** ⑤    **3** ②

**2강-A 음운의 교체** 3. 받소리되기

**채움** 본문 36쪽

01 신꼬	02 갈똥
03 머글걷	04 낱설다
05 갑찌다	06 언꼬
07 입빠를	08 날께
09 갈꼰	10 갈쫘

**04** ‘낱설다’에서 ‘ㅌ’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교체되고, 뒤에 오는 ‘ㅅ’이 교체된 ‘ㄷ’의 영향을 받아 ‘ㅆ’으로 교체되었다.

**05** ‘값지다’의 ‘ㅃ’은 두 자음으로 이루어진 자음군인데, 음절 끝에서 소리 날 수 있는 자음은 하나이므로, ‘ㅅ’이 탈락하고 ‘ㅂ’이 남게 되었다. 뒤 자음 ‘ㅌ’은 ‘ㅂ’의 영향을 받아 ‘ㅆ’으로 교체되었다.

‘넙게’의 ‘ㄷ’ 중 ‘ㅂ’이 탈락하고 ‘ㄹ’이 남고, ‘ㄱ’은 앞의 어간 받침 ‘ㄹ’의 영향을 받아 된소리 ‘ㄱ’으로 교체되었다.

**바로 확인** 본문 37쪽

- 1 ⑤      2 ⑤      3 ②

**1** ‘꽃다발’은 받침 ‘ㄷ’(← ‘ㅌ’) 뒤에 연결되는 예사소리 ‘ㄷ’이 된소리 ‘ㄸ’으로 교체되어 [꼐따발]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므로 적절한 사례이다.

① ‘바깥[바깁]’은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었고, ② ‘밤물[밤뿔]’은 비음화, ③ ‘천리[철리]’는 유음화 현상이 적용되었다. ④ ‘할다’도 [할따]로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지만 <보기>의 사례로는 적절하지 않고, ‘어간 받침 ‘ㄷ, 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ㅊ’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라는 조항의 사례로 적절하다.

**2** ‘줍히다[조피다]’는 ‘ㅎ’과 다른 음운이 결합하여 제3의 음운으로 축약되는 음운 축약 현상으로, 거센소리되기이다.

①은 무릎[무릅], ②는 국밥[국빡], ③은 부엌문[부영문], ④는 묻히다[무치다]로 발음된다. 여기서 ‘묻히다’는 받침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가 된 후 다시 구개음화가 일어나 [치]로 발음된다.

**3** ‘신고[신:꼬]’는 ‘신다’의 용언 어간 ‘신-’에 어미 ‘-고’가 결합한 것으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① ‘엮집’은 받침 ‘ㅂ’(← ‘ㅍ’) 뒤에 연결되는 ‘ㅌ’이 된소리 ‘ㄸ’으로 발음되어 [엮집]으로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③과 ⑤의 용언은 모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한 것이다. ④ ‘감자’는 소리대로 적은 것으로, 음운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채움** 본문 39쪽

01 안따	02 여털
03 널따	04 갑
05 엽따	06 외골
07 목	08 할따
09 밥따	10 밥찌
11 담따	12 흑까지
13 물거	14 암
15 얼꺼나	16 익따
17 글깨	18 음기도

**03**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따르면 ‘넙다’의 ‘ㄷ’은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하고, 그 ‘ㄹ’은 뒤 자음 ‘ㄷ’을 된소리화하여 최종적으로 [넙따]로 발음한다.

**09**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따르면 ‘뺨-’은 예외적으로 ‘뺨-’으로 발음하므로, [뺨따]로 발음한다.

**15** 표준 발음법 제11항 ‘다만’을 보면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리]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얼꺼나’는 [얼꺼나]로 발음한다.

**바로 확인** 본문 40쪽

- 1 ②      2 ③      3 ①

**1** ‘넙’은 겹받침 ‘ㄱ’에서 ‘ㅌ’이 탈락하여 [넙]으로 발음한다.

① ‘뺨’은 [뺨]으로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ㅌ’이 ‘ㄱ’으로 교체된 것이다. ③ ‘감’과 ④ ‘하늘’은 소리대로 적은 것이기에 음운 변동이 없다. ⑤ ‘굳이’는 [구지]로 앞 자음 ‘ㄷ’이 뒤에 오는 모음 ‘ㅣ’의 영향을 받아 구개음 ‘ㅌ’으로 교체된 것이다.

1 ②    2 ③    3 ⑤

2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받음한다.

‘닭을’에서 ‘닭’의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을’이 이어지므로 겹받침 중 앞 자음은 첫음절의 종성에서 발음하고 뒤 자음은 연음하여 둘째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하므로 [달글]로 발음한다. 따라서 ‘닭을’은 자음군 단순화(겹받침 중 음운 하나가 탈락함)가 일어나지 않은 사례에 해당한다.

- ① ‘말다[막따]’는 겹받침 중 ‘ㄹ’ 탈락, ② ‘옳다[음따]’는 겹받침 중 ‘ㄹ’ 탈락, ④ ‘젊다[짐따]’는 겹받침 중 ‘ㄹ’ 탈락, ⑤ ‘값어치[가버치]’는 겹받침 중 ‘ㅅ’ 탈락으로 모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사례에 해당한다.

3 겹받침 ‘ㅃ’ 뒤에 자음 ‘ㄷ’이 오므로, 겹받침 중 ‘ㅃ’은 연음될 수 없다. 다만, ‘짹지’는 앞말의 영향으로 먼저 [짹찌]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후, 앞말의 겹받침 ‘ㅃ’이 탈락하여 [짹찌]로 소리 난다.

- ② ‘뺨’에서 겹받침 ‘ㅃ’은 자음 앞에서 ‘ㄹ’이 탈락하고 [ㅃ]이 남는다. ③ 겹받침 ‘ㄸ’의 ‘ㅎ’은 뒷말의 ‘ㄷ’과 만나 ‘ㄸ’으로 축약되었다. ④ ‘읽는’의 겹받침 ‘ㄹ’에서 ‘ㄹ’이 탈락하여 [익는]이 된 후, 비음화가 일어나 [잉는]으로 소리 난다. ⑤ ‘맛없는’은 겹받침 ‘ㅃ’에서 ‘ㅅ’이 탈락하여 ‘만없는’→마듭는’이 된 후, 비음화가 일어나 [마듭는]으로 소리 난다.

1 한글 맞춤법 제29항에서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틀+날’을 ‘이튿날’로 적는 것처럼 ‘술+가락’은 ‘술+가락’의 결합인데, 이는 통시적으로 ‘ㄹ’이 ‘ㄷ’으로 변화한 것이지 ‘ㄹ’이 탈락한 것이 아니다.

- ① 싸전(쌀+전), ③ 우짚다(을+짚다), ④ 나날이(날+날+이), ⑤ 버드나무(버들+나무)

2 ㉠와 마찬가지로 ‘나는’은 ‘날다’의 어간인 ‘날-’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는’이 붙어서 ‘ㄹ’이 탈락하였으므로, ㉠의 예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달님’은 두 형태소가 결합할 때 ‘ㄹ’과 ‘ㄴ’이 만나 뒤의 ‘ㄴ’이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는 예로, ㉡의 사례이지 ㉠의 예로 추가할 수 없다.

⑤ ‘뺨는다’의 겹받침 중에서 ‘ㅃ’이 탈락하면 ‘ㄹ’과 뒤의 ‘ㄴ’이 만나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겹받침에서 ‘ㄹ’이 탈락하기 때문에 유음화가 아닌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 [뺨:는다]로 발음된다. ‘읽는다’도 마찬가지로 겹받침 중 ‘ㄹ’이 탈락하고 ‘ㄱ’이 남았기 때문에 비음화가 일어나 [잉는다]로 발음된다.

3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가 오는 것은 ‘싫어도’뿐이다. ‘싫어도’는 ‘ㅎ’을 발음하지 않고 [시러도]로 발음한다.

- ① ‘쌍지’는 ‘ㅎ’이 ‘ㄷ’을 만나 축약되어 [쌍찌]로 발음된다. ② ‘논논’은 ‘ㅎ’이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교체된 후 다시 비음화되어 ‘ㄴ’으로 교체되어 [논논]으로 발음된다. ③ ‘좁히지’는 용언 어간 ‘좁-’에 접미사 ‘-히-’가 결합한 것으로, <보기>의 음운 환경과 다르다. 덧붙여, ‘좁히지’는 ‘ㅎ’이 발음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의 ‘ㅃ’과 결합하여 제3의 음운인 거센소리 ‘ㅍ’으로 축약되어 [조피찌]로 발음된다. ④의 ‘않는’은 ‘ㅎ’이 탈락하여 [안는]으로 발음하지만, 이는 <보기>의 음운 환경과 다르다.

**2강 B 음운의 탈락**      2. ‘ㄹ’ 탈락 / ‘ㅎ’ 탈락

**채우기**      본문 42쪽

01 (바느질) [바느질]	02 (미담이) [미다지]
03 (화살) [화살]	04 (만드니) [만드니]
05 (가니) [가니]	06 (동그오) [동그오]
07 아느니	08 두러서
09 마나	10 나아

08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서’가 결합하여, ‘ㅎ’이 탈락하고 남은 ‘ㄹ’이 연음되어 [두러서]로 발음된다.



본문 45쪽

- |                  |                 |
|------------------|-----------------|
| 01 서서 (‘ㅜ’ 탈락)   | 02 잠가 (‘ㅡ’ 탈락)  |
| 03 슬퍼 (‘ㅡ’ 탈락)   | 04 가서 (‘ㅏ’ 탈락)  |
| 05 배고파서 (‘ㅡ’ 탈락) | 06 바빠서 (‘ㅡ’ 탈락) |
| 07 퍼서 (‘ㅜ’ 탈락)   | 08 따라서 (‘ㅡ’ 탈락) |
| 09 떠서 (‘ㅡ’ 탈락)   | 10 기빠서 (‘ㅡ’ 탈락) |
| 11 껏다 (‘ㅡ’ 탈락)   | 12 예뻏다 (‘ㅡ’ 탈락) |
| 13 치뤘다 → 치뤘다     | 14 담궘다 → 담궘다    |

## 02

‘ㅡ’가 탈락하여 ‘잠가’가 되며, 표기에도 반영된다. ‘잠귀’ 등으로 잘못 표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13

‘주어야 할 돈을 내준다.’의 의미인 ‘치르다’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한 ‘치르-+ -었-+다’에서 어간의 모음 ‘ㅡ’가 탈락한 ‘치뤘다’로 표기해야 한다.

## 14

‘김치 따위가 익거나 삭도록 그릇에 넣어 두다.’의 의미인 ‘담그다’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이 결합한 ‘담그-+ -았-+다’에서 어간의 모음 ‘ㅡ’가 탈락한 ‘담궘다’로 표기해야 한다.

## 바로 확인

본문 46쪽

- 1 ④    2 ②

1 ㉠ 용언의 어간 ‘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라’가 결합하면 ‘ㅡ’가 탈락하여 ‘터라’가 된다. ㉡ ‘나서-’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오면 ‘ㅏ’가 탈락하여 ‘나서’가 된다. ㉢ 어간 ‘쓰-’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 ‘ㅡ’가 탈락하여 ‘써’가 된다.

한편 ㉣은 단모음 ‘ㅜ’와 ‘ㅏ’가 만나 이중 모음 ‘ㄹㅜ’가 되었다. ㉤은 용언 어간의 모음 ‘ㅣ’와 어미의 ‘ㅏ’ 사이에 반모음 ‘[j]’가 첨가되었다.

2 ㉠은 ‘ㄹ’ 탈락, ㉡과 ㉢은 ‘ㅎ’ 탈락, ㉣은 모음 ‘ㅏ’ 탈락으로, ㉠~㉣은 모두 음운 탈락 현상이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다. 따라서 음운 축약을 설명하는 ㉡는 적절하지 않다.



본문 49쪽

- |          |        |
|----------|--------|
| 01 콩년    | 02 숨니불 |
| 03 한녀름   | 04 끈닙  |
| 05 내봉낙   | 06 신녀성 |
| 07 영엄농   | 08 능망넙 |
| 09 담뇨    | 10 백뽀놀 |
| 11 지반닐   | 12 눈뇨기 |
| 13 기뽀/깁뽀 | 14 뽀머리 |
| 15 배쑹/뽀쑹 | 16 베갸넙 |

## 04

‘꽃잎’은 받침이 대표음으로 교체되고, ‘ㄴ’ 음이 첨가되어 [꼰닙]이 된다. 그리고 첨가된 ‘ㄴ’의 영향으로 앞의 받침 ‘ㄷ’이 비음화되어 [꼰닙]으로 발음된다.

## 08

‘늑막얌’은 ‘ㄴ’ 음이 첨가되어 [늑막넙]이 되고, ‘ㄹ’과 ‘ㄴ’의 영향으로 앞의 받침 ‘ㄱ’이 각각 비음화되어 [능망넙]으로 발음된다.

## 16

‘베갸잇’은 [베갸넙]으로 소리 난다. 이는 받침이 대표음으로 교체되고, ‘ㄴ’ 음이 첨가되어 [베갸넙]이 되고, 받침 ‘ㄷ’이 첨가된 ‘ㄴ’의 영향으로 비음화되어 [베갸넙]으로 발음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 바로 확인

본문 50~51쪽

- 1 ④    2 ④    3 ③



**1**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은 모두,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각각 늦여름[느너름], 샷일[상닐], 남존여비[남존녀비], 급행열차[그행녘차]로 발음된다.

**2** ㉠은 어간 ‘아니-’에 어미 ‘-오’가 결합할 때 반모음이 첨가되어 이중 모음 ‘요’로 소리 나고 있고, ㉡은 어간 ‘피-’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반모음이 첨가되어 이중 모음 ‘여’로 소리 나고 있다. 따라서 반모음 첨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 ㉡이다.

㉢은 어간의 ‘-’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고, ㉣은 어간 ‘가-’가 어미 ‘-아서’와 결합하여 ‘ㅏ’가 탈락하는 현상이다.

**3** ‘막일’은 합성어(막+일)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로 시작하여 ‘ㄴ’이 첨가된 [막닐]로 발음된 뒤, 비음화로 ‘기’ ‘으’로 교체되어 [망닐]로 발음된다. 따라서 ‘막일’은 ‘ㄴ’ 첨가 현상과 비음화 현상이 모두 일어난다.

발음되는데, 이 과정에서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어든다.

① ‘넘지’는 된소리되기로 ‘ㅈ’이 ‘ㅉ’으로 교체되어 [넘찌]로 발음되는데, 음운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여덟[여덜]’은 자음군 단순화로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어든다. ② ‘담요[담:뇨]’는 ‘ㄴ’ 첨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나고, ‘미달이[미:다지]’는 구개음화로 음운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③ ‘좋다[조:타]’는 거센소리되기로 음운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어들고, ‘달는[달린]’은 자음군 단순화와 유음화로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어든다. ④ ‘놓은[노은]’은 ‘ㅎ’ 탈락으로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어들고, ‘밭이랑[반니랑]’은 ‘ㄴ’ 첨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난다.

**2** ‘가졌다’의 기본형은 ‘가지다’이고, 용언의 어간 ‘가지-’에 어미 ‘-었-’이 결합한 형태이다. 이때 음절은 축약되었고, 단모음 ‘ㅣ’는 반모음 ‘ㅣ’로 교체된 후 모음 ‘ㅣ’와 결합하여 이중 모음 ‘ㅟ’가 된 것이다.

②는 ‘ㅏ’ 탈락, ③~⑤는 ‘-’ 탈락으로, 모두 모음 탈락 현상이 일어났다.

**2강-D 음운의 축약**

**채움**  **본문 53쪽**

01 조코	02 노타
03 만치	04 알타
05 따카다	06 마텡
07 이피다	08 발피다
09 발키다	10 꼬치다

**10** ‘꽃히다’는 받침 ‘ㅈ’이 뒤에 오는 ‘ㅎ’과 결합하여 [치]으로 축약되어 [꼬치다]로 발음된다.

**바로 확인** **본문 54쪽**

**1 ⑤    2 ①**

**1** ‘집안일’은 ‘집안’과 ‘일’이 결합되면서 ‘ㄴ’이 첨가되어 [지반닐]로 발음되는데, 이 과정에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난다. ‘앉다’는 자음군 단순화로 ‘ㅈ’이 탈락하여 [안다], 다시 된소리되기로 ‘ㄷ’이 ‘ㄸ’으로 교체되어 [안따]로

**집중 훈련 OX** **본문 56-61쪽**

- 01 (1)○ (2)○ (3)× (4)○ (5)○ (6)× (7)○
- 02 (1)○ (2)× (3)× (4)○ (5)○ (6)○ (7)○ (8)○
- 03 (1)× (2)○ (3)○ (4)○ (5)○ (6)× (7)○ (8)×
- 04 (1)○ (2)× (3)○ (4)○ (5)○ (6)○ (7)× (8)○
- 05 (1)× (2)○ (3)○ (4)○ (5)○ (6)○ (7)○ (8)×
- 06 (1)× (2)× (3)× (4)× (5)○ (6)○ (7)○ (8)○
- 07 (1)○ (2)× (3)○ (4)○ (5)× (6)○ (7)○ (8)○
- 08 (1)○ (2)× (3)○ (4)○ (5)○ (6)× (7)○ (8)○
- 09 (1)○ (2)○ (3)○ (4)× (5)○ (6)× (7)× (8)×
- 10 (1)○ (2)× (3)○ (4)○ (5)○ (6)○ (7)× (8)×
- 11 (1)× (2)○ (3)○ (4)○ (5)○ (6)× (7)○ (8)×
- 12 (1)× (2)○ (3)× (4)○ (5)× (6)○ (7)○ (8)○

**01** [A]에서 최소 대립쌍을 찾아 음운을 추출하면, ‘쉬리-소리’에서 ‘ㄱ’과 ‘ㄴ’을, ‘마루-머루’에서 ‘ㅏ’와 ‘ㅑ’를, ‘구실-구슬’에서 ‘ㅣ’와 ‘ㅡ’를 추출할 수 있다. ‘모래’는 최소 대립쌍이 없으므로, ‘모래’에서는 음운을 추출하지 못한다. 추출

한 모음들을 [B]에서 찾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고모음(혀의 위치가 위) 3개(ㅣ, ㅟ, ㅡ)
- 중모음(혀의 위치가 중간) 2개(ㅓ, ㅛ)
- 저모음(혀의 위치가 아래) 1개(ㅏ)
- 전설 모음(혀의 최고점이 앞쪽) 2개(ㅣ, ㅟ)
- 후설 모음(혀의 최고점이 뒤쪽) 4개(ㅡ, ㅓ, ㅛ, ㅏ)
- 평순 모음(입술을 움직이지 않음) 4개(ㅣ, ㅡ, ㅓ, ㅏ)
- 원순 모음(입술을 동그랗게 만듦) 2개(ㅟ, ㅛ)

- (3) [A]에서 찾을 수 있는 최소 대립쌍은 ‘쉬리-소리(ㅟ, ㅓ), 마루-머루(ㅓ, ㅓ), 구실-구슬(ㅣ, ㅡ) 세 쌍이다. 이 중 평순 모음은 ‘ㅓ, ㅓ, ㅡ, ㅣ’로 4개이다.
- (6) 추출된 음운들 중 저모음은 ‘ㅏ’ 1개이다.

## ②

- (1) ‘ㅑ, ㅕ, ㅛ, ㅠ’는 각각 반모음 ‘ㅣ’와 단모음 ‘ㅓ, ㅓ, ㅓ, ㅓ’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이중 모음이다. 따라서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진다.
- (2) ‘마찰음’이 아니라 ‘파열음’이다. 마찰음은 입안이나 목청 따위가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비집고 나오면서 내는 소리이다.
- (3) ‘음성’이 아니라 ‘음운’이다. 음성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내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이다.
- (4) 음운은 소리마디의 경계가 분명히 그어지느냐에 따라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눌 수 있다. 분절 음운에는 ‘자음, 모음’, 비분절 음운에는 ‘소리의 길이’ 등이 있다.
- (5) 우리말의 반모음에는 ‘ㅣ’와 ‘ㅓ/ㅓ’가 있다. 반모음은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을 이룬다.
- (6)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이다. 소리가 방해를 받는 위치, 곧 장애가 일어나는 위치를 ‘조음 위치’라고 한다. 조음 위치에 따라 자음을 입술소리, 잇몸소리, 션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로 구분할 수 있다.
- (7) 자음이 만들어지면서 공기의 흐름에 장애가 일어나는 방법을 조음 방법이라고 한다. 이 중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가 콧소리, 곧 ‘비음’이다.
- (8) 자음 중 울림소리로는 비음 ‘ㄴ, ㅁ, ㅇ’과 유음 ‘ㄹ’이 있다.

## ③

- (1) 현대 국어에서는 초성에 하나의 자음만 올 수 있다. ㄴ의 ‘끼’, ㄹ의 ‘딸’의 초성에 쓰인 된소리 ‘ㄱ, ㄷ’ 등은

하나의 자음이다.

- (2) ㄱ에서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로 ‘아, 야, 와, 의’를 들었고, ㄴ~ㄹ에서 ‘중성’의 위치에는 모두 모음이 있다.
- (3) ㄷ과 ㄹ에서 ‘중성’의 위치에는 자음이 있다. ㄷ에서는 ‘ㄹ, ㄱ, ㅇ, ㄴ’이, ㄹ에서는 ‘ㄱ, ㄹ, ㅇ’이 제시되어 있다.
- (4) ㄱ을 통해 초성이 없는 음절도 있음을 알 수 있고, ㄱ과 ㄴ을 통해 중성이 없는 음절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5) ㄱ~ㄹ 모두 중성이 있다. 우리말에서 모음은 성절음(음절을 이루는 데 중심이 되는 소리)으로, 모음이 없으면 음절을 이룰 수 없다.
- (6) 초성에 나오는 ‘ㅇ’은 음가가 없지만, 중성에 나오는 ‘ㅇ’은 음가가 있다.
- (7) ㄱ에서 ‘중성’ 하나의 음운으로 음절을 이루고 있다.
- (8) 음절은 소리의 단위이다. 따라서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 중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이다. 음절 말에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자음으로 된 겹받침이 오면 자음군 단순화로 인해 1개가 탈락한다.

## ④

- (1) ‘밭이랑’은 [반니랑] → [반니랑]으로 발음된다. 즉 ‘ㄴ’이 첨가되어 앞의 자음 ‘ㄷ’이 비음 ‘ㄴ’으로 교체되었다.
- (2) ‘늦여름’은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ㅓ’이 ‘ㄷ’으로 교체되어 [느녀름]이 되었고, 자음으로 끝난 형태소 뒤에 ‘여’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왔으므로 ‘ㄴ’이 첨가되어 [느녀름], 다시 비음화로 ‘ㄷ’이 ‘ㄴ’으로 교체되어 [느녀름]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ㅓ’이 탈락하지 않고 ‘ㄷ’으로 교체되었고, ‘ㄴㄴ’이 아닌 ‘ㄴ’이 첨가되었다.
- (3) ‘술하다’는 [순하다] → [수타다]로 발음된다. 즉 ‘ㅓ’이 ‘ㄷ’으로 교체된 후(음절 끝소리 규칙), 이어지는 음운 ‘ㅎ’과 만나 ‘ㅓ’으로 축약되었다.
- (4) ‘국물’은 [궁물]로 발음된다. 앞의 자음 ‘ㄱ’이 뒤의 자음 ‘ㅁ’의 영향으로 비음 ‘ㅇ’으로 교체되었다.
- (5) ‘좋으면’은 [조으면]으로 발음된다. 받침 ‘ㅎ’이 뒤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으면’을 만나 탈락되었다.
- (6) ‘협력’은 [협녁] → [협녁]으로 발음된다. 유음의 비음화로 ‘ㄹ’이 ‘ㄴ’으로 교체된 후, 앞의 자음 ‘ㅂ’이 ‘ㄴ’의 영향으로 비음 ‘ㅁ’으로 교체되었다.
- (7) ‘닭고’는 자음군 단순화로 ‘ㄹ’이 탈락하여 [담고], 다시 용언 된소리되기로 ‘ㄱ’이 ‘ㄱ’으로 교체되어 [담:꼬]로 발음된다.

(8) ‘이렇다’는 [이러타]로 발음된다. 자음 ‘ㅎ’이 뒤에 오는 ‘ㄷ’과 만나 ‘ㅌ’으로 축약되었다.

**05**

- (1) ‘밭은소리’에서 ‘밭’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은(어미)’이 결합했기 때문에 앞 음절의 종성 ‘ㅌ’이 연음되어 [바튼소리]로 발음된다.
- (2) ‘날’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으로’(조사)가 붙으면 종성에 있던 자음이 연음되어 [나트로]라고 발음하고, 실질 형태소인 ‘알’(어근)이 붙으면 음절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어 [날알]이 된 후, 연음되어 [나달]로 발음한다.
- (3) ‘앞’과 ‘어금니’가 결합할 때, ‘어금니’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앞’에 음절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어 [앞어금니]가 된 후, 연음되어 [아버금니]로 발음한다.
- (4) ‘겉’과 ‘웃음’이 결합할 때, ‘웃-’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이고, ‘-음’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접사)이므로, ‘겉’은 음절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된 후 연음되고, ‘웃’은 바로 연음된다. 따라서 [겉우슴] → [거두슴]으로 발음한다.
- (5) ‘밭’ 뒤에 조사 ‘을’이 붙으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붙은 것이므로 연음되어 [바틀]로 발음한다.
- (6) ‘부엌’ 뒤에 조사 ‘에’가 붙으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붙은 것이므로 연음되어 [부어께]로 발음한다. 그러나 어근 ‘안’이 붙으면 음절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어 [부억안] → [부어간]으로 발음한다.
- (7) ‘꽃’에 조사 ‘을’이 붙으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붙은 것이므로 연음되어 [꼬출]로 발음한다. 그러나 어근 ‘위’가 붙으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붙은 것이므로 연음되어 [꼬뒤]로 발음한다.
- (8) ‘늪’에 실질 형태소 ‘앞’이 붙으면 늪의 ‘ㅍ’이 대표음 ‘ㅂ’으로 바뀐 후 연음되어 [느뱍]으로 발음된다.

**06**

<보기>는 음절 끝소리 규칙과 관련하여, 음절 끝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소리만 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7개 자음 이외의 자음이 올 경우에는 (가)와 같이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 자음이 여러 개 올 경우에는 (나)와 같이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거나 뒤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된다.

(1) ‘꽃힌’은 ‘ㄷ’과 ‘ㅎ’이 축약하여 거센소리 ‘ㅌ’이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꼬친]이 된 것으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2) ‘뭇이’는 연음으로 인해 [목시]가 된 후, 다시 된소리되기에 의해 [목씨]가 된 것으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3) ‘비웃’은 음절 끝소리가 ‘ㅌ’에서 ‘ㄷ’으로 바뀌는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 [비온]이 된 것으로,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은 나타나지만,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4) ‘않고’는 ‘ㅎ’과 ‘ㄱ’이 축약하여 거센소리 ‘ㅋ’이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안코]가 된 것으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5) ‘얹고’는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왔으므로, ‘ㅃ’ 중 ‘ㄱ’이 탈락하여 [얹고]가 된 후, 끝소리 ‘ㅇ’이 파열음의 예사소리인 ‘ㅂ’으로 교체되어 [읍고]가 된다. 그리고 뒤의 ‘ㄱ’은 된소리로 바뀌어 [읍꼬]가 된다. 따라서 (가),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나타났다.

(6) ‘달히다’는 ‘ㄷ’이 뒤에 오는 ‘ㅎ’과 만나 ‘ㅌ’으로 축약되어 [다티다]가 된 후, ‘ㅌ’이 모음 ‘ㅣ’와 만나 구개음 ‘ㅊ’으로 교체되어 [다치다]가 된다. 따라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7) ‘뚫지’는 종성의 ‘ㅃ’ 중 ‘ㅎ’이 뒤에 오는 ‘ㄷ’과 만나 ‘ㅌ’으로 축약되어 [뚫치]가 된다. ‘ㅎ’이 탈락한 것이 아니므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8) ‘바깥’은 종성에 온 ‘ㅌ’이 파열음의 예사소리 ‘ㄷ’으로 교체되어 [바깁]이 된다. 따라서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07**

(1) ㉠의 ‘밭-’은 형식 형태소인 접미사 ‘-이-’와 만나므로 받침 ‘ㅌ’이 구개음 [치]이 된다. 따라서 [부친]으로 발음한다.

(2) ㉡의 ‘날날이’에서 ‘-이’는 부사 파생 접미사로,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이다. 따라서 ‘날날이’는 [난나치]로 발음된다.

(3) ㉢의 ‘이랑’은 모음 ‘ㅣ’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보기 1>의 구개음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 ‘밭이랑’은 ‘밭’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이 [ㄷ]으로 소리 나고, ‘밭’과 ‘이랑’이 결합할 때 ‘ㄴ’이 첨가되어 [만니랑]으로 발음한다.

(4) ㉣의 ‘묻-’은 형식 형태소인 접미사 ‘-히-’와 만나므로, ‘ㄷ’이 ‘ㅎ’과 결합하여 [티]이 된 후, 구개음 [치]이 된다.

(5) ㉤의 ‘홀이불’에서 ‘이불’은 모음 ‘ㅣ’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홀이불’은 [훈니불]로 발음된다.

- (6) ㉠의 ‘밭이’에서 ‘이’는 체언 ‘밭’에 결합한 조사이므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밭’의 ‘ㅌ’은 [ㄷ]으로 발음한다.
- (7) ㉡의 ‘갈-’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인 접미사 ‘이’와 만났으므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 [가치]로 발음한다.
- (8) ㉢의 ‘느티나무’의 ‘ㅌ’은 이미 초성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보기 1>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08**

㉠의 ‘흙일’은 자음군 단순화로 ‘ㄱ’이 탈락하여 [흑일], ‘ㄴ’ 첨가가 발생하여 [흑닐], 다시 비음화로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흑닐]로 발음된다. ㉡의 ‘달논’은 자음군 단순화로 ‘ㅎ’이 탈락하여 [달논], 유음화로 ‘ㄴ’이 ‘ㄹ’로 교체되어 [달르]로 발음된다. ㉢의 ‘밭야구’는 ‘ㄴ’ 첨가로 [밭냐구], 다시 유음화로 ‘ㄴ’이 ‘ㄹ’로 교체되어 [밭랴구]로 발음된다.

- (1) ㉠은 탈락, 첨가, 교체가 일어나고, ㉡은 탈락, 교체가 일어난다. 그리고 ㉢은 첨가, 교체가 일어나므로 각각 2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2) ㉠~㉢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음운 ‘첨가’가 아니라 음운 ‘교체’이다.
- (3) ㉠에서는 비음화에 따라 ‘ㄱ’이 ‘ㅇ’으로 교체되고, ㉡에서는 유음화에 따라 ‘ㄴ’이 ‘ㄹ’로 교체된다.
- (4) ㉠에서는 3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에서는 2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5) ㉡에서는 2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에서도 2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6) 음운 변동의 결과 ㉡은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어들지만, ㉢은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난다.
- (7) ㉠은 탈락과 첨가, 교체가 일어났으므로,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흙일’에는 ‘ㅎ, ㅍ, ㄹ, ㄱ, ㄴ, ㄷ, ㄹ’의 모두 6개의 음운이 쓰였고, [흑닐]도 ‘ㅎ, ㅍ, ㅇ, ㄴ, ㄴ, ㄷ’의 모두 6개의 음운이 쓰였다.
- (8) ㉡에서는 ‘ㄴ’이 첨가되었고, ㉠에서도 ‘ㄴ’이 첨가되었다.

**09**

- (1) ‘콩잎’은 ‘ㄴ’이 첨가되어 [콩닐], 받침 ‘ㅍ’이 ‘ㅂ’으로 교체되어 [콩닙]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었다.
- (2) ‘굽논’은 자음군 단순화로 ‘ㄹ’이 탈락하여 [극논]이 된 후, 비음화로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궁논]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었다.
- (3) ‘흙하고’는 자음군 단순화로 ‘ㄱ’이 탈락하여 [흑하고]

가 된 후, ‘ㄱ’과 ‘ㅎ’이 축약되어 [흐카고]로 발음한다. 따라서 음운의 개수가 2개 줄었다.

- (4) ‘저녁연기’는 ‘저녁’과 ‘연기’가 결합되면서 ‘ㄴ’이 첨가되어 [저녁년기], 다시 비음화로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저녕년기]로 발음되는데, 이 과정에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난다.
- (5) ‘따뜻하다’는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ㅌ’이 ‘ㄷ’으로 교체되어 [따뜨하다]가 된 후, ‘ㄷ’과 ‘ㅎ’이 축약되어 [따뜨타다]로 발음한다. 따라서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었다.
- (6) ‘부엌문’은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ㄴ’이 ‘ㄱ’으로 교체되어 [부억문], 다시 비음화로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부영문]으로 발음되는데, 이 과정에서 음운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볶는’도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ㅍ’이 ‘ㄱ’으로 교체되어 [복논], 다시 비음화로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봉논]으로 발음되는데, 이 과정에서 음운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두 단어 모두 발음되면서 교체가 두 번 일어나기 때문에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7) ‘넙네’는 자음군 단순화로 ‘ㅂ’이 탈락하여 [넙네], 다시 유음화로 ‘ㄴ’이 ‘ㄹ’로 교체되어 [넙레]로 발음되는데, 이 과정에서 음운의 개수는 1개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밖논’도 자음군 단순화로 ‘ㄹ’이 탈락하여 [박논], 다시 비음화로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방논]으로 발음되는데, 이 과정에서 음운의 개수는 1개 줄어든다.
- (8) ‘엷지’는 자음군 단순화로 ‘ㅌ’이 탈락하여 [언찌], 다시 된소리되기로 ‘ㅌ’이 ‘ㅊ’으로 교체되어 [언찌]로 발음되므로 음운의 개수는 1개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뭉고’도 자음군 단순화로 ‘ㄱ’이 탈락하여 [물고], 다시 된소리되기로 ‘ㄱ’이 ‘ㄱ’으로 교체되어 [물꼬]로 발음되므로 음운의 개수는 1개 줄어든다. 따라서 ‘교체’ 및 ‘축약’이 아니라 ‘탈락’ 및 ‘교체’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다.

**10**

- (1)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 ‘맘네’의 ‘ㄹ’ 중 ‘ㄹ’이 탈락하고, ‘값도’에서도 ‘ㅃ’ 중 ‘ㅌ’이 탈락한다.
- (2) ‘뉘다’가 [닥따]로 바뀌는 데에는, ‘ㄱ’이 ‘ㄱ’으로 교체되는 음절 끝소리 규칙과 ‘ㄷ’이 ‘ㄱ’ 뒤에서 ‘ㄷ’이 되는 된소리되기 현상이 작용했다.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자음군 단순화로, ‘뉘다’의 음운 변동과 관련이 없다.
- (3) ㉠ ‘맘네’는 [막네] → [망네]로 발음하는데, 이때 뒤의

‘ㄴ’의 영향으로 앞의 ‘ㄱ’이 비음 ‘ㅇ’으로 교체된 것이다. ㉠ ‘꽃말’도 [꼐말] → [꼐말]로 발음하는데, 뒤의 ‘ㄹ’의 영향으로 앞의 ‘ㄷ’이 비음 ‘ㄴ’으로 교체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입니’도 [입니]로 발음하는데, 뒤의 ‘ㄴ’의 영향으로 앞의 ‘ㅂ’이 비음 ‘ㅁ’으로 교체된 것이다.

- (4) ㉡ ‘낫일’은 [낫일] → [낫닐] → [난닐]로 발음하는데, 이때 받침 ‘ㄷ’이 뒤의 ‘ㄴ’의 영향으로 ‘ㄴ’으로 교체된 것이다. ‘물약’도 ‘ㄴ’이 첨가되어 [물낙]이 된 후, 앞의 ‘ㄹ’의 영향으로 뒤의 ‘ㄴ’이 ‘ㄹ’로 교체되어 [물략]으로 발음한다. 두 경우 모두 자음의 교체가 일어났다.
- (5) ㉢ ‘낫일’은 [낫일] → [낫닐] → [난닐]로 발음하는데, ‘낫’과 ‘일’이 결합할 때 ‘ㄴ’이 첨가되었다. ‘꽃잎’도 ‘ㄴ’이 첨가되어 [꼐닙]이 된 후, 뒤의 ‘ㄴ’의 영향으로 ‘ㄷ’이 비음화되어 [꼐닙]으로 발음한다.
- (6) ㉣ ‘낫일’은 음절 끝에 ‘ㄱ’이 올 수 없으므로 먼저 [낫일]로 바뀌고, ㉠ ‘꽃말’은 음절 끝에 ‘ㄱ’이 올 수 없으므로 먼저 [꼐말]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팔죽’ 역시 음절 끝에 ‘ㄷ’이 올 수 없으므로 먼저 [팍죽]으로 바뀐다.
- (7) ‘앉고’는 자음군 단순화로 ‘ㄱ’이 탈락하여 [안고], 다시 된소리되기로 ‘ㄱ’이 ‘ㄱ’으로 교체되어 [안꼬]로 발음되기 때문에 첨가가 일어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8) ‘읽지’는 ‘ㅎ’과 ‘ㄱ’이 ‘ㄷ’으로 축약되어 [일치]로 발음되지만, ‘글고’는 자음군 단순화로 인해 받침 ‘ㄹ’의 ‘ㄱ’이 탈락하여 [글고]로 소리 나고, 뒤의 ‘ㄱ’이 된소리되기로 인해 ‘ㄱ’으로 교체되어 [글꼬]로 소리 난다. 따라서 ‘글고’에서 자음이 축약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1

- ㉠의 ‘옳지’에서는 ‘ㅎ’과 ‘ㄱ’이 축약되어 ‘ㄷ’, ‘좁히다’에서는 ‘ㅂ’과 ‘ㅎ’이 축약되어 ‘ㄷ’이 되었다.
- ㉡의 ‘끓어’에서는 받침 ‘ㅎ’, ‘쌓이다’에서도 ‘ㅎ’이 탈락하였다.
- ㉢의 ‘숯도’에서는 받침 ‘ㄷ’이 ‘ㄷ’으로 교체된 후, 뒤의 초성 ‘ㄷ’이 ‘ㄷ’으로, ‘웃고름’에서는 받침 ‘ㅅ’이 ‘ㄷ’으로 교체된 후, 뒤의 초성 ‘ㄱ’이 ‘ㄱ’으로 교체되었다.
- ㉣의 ‘닭’에서는 받침 ‘ㄱ’이 ‘ㄱ’으로 교체된 후, 비음 ‘ㅇ’으로 교체되었고, ‘부엌문’에서는 받침 ‘ㄱ’이 ‘ㄱ’으로 교체된 후, 비음 ‘ㅇ’으로 교체되었다.
- ㉤의 ‘읽지’에서는 받침 ‘ㄹ’의 ‘ㄹ’이 탈락하고, ‘ㄱ’이 된소리 ‘ㅅ’으로 교체되었고, ‘훑거나’에서는 받침 ‘ㅅ’의 ‘ㄷ’이 탈락하고, ‘ㄱ’이 된소리 ‘ㄱ’으로 교체되었다.
- ㉥의 ‘낱고’에서는 ‘ㅎ’과 ‘ㄱ’이 축약되어 ‘ㄷ’, ‘종지’에서는 ‘ㅎ’과 ‘ㄱ’이 축약되어 ‘ㄷ’이 되었다.

㉦의 ‘담요’와 ‘집안일’에는 ‘ㄴ’이 첨가되었다.

- (1) ㉠의 ‘옳지[올치]’는 ‘ㅎ’과 ‘ㄱ’이 ‘ㄷ’으로 축약되고, ‘좁히다[조피다]’는 ‘ㅂ’과 ‘ㅎ’이 ‘ㅍ’으로 축약되지만, ㉡의 ‘끓어[끄너]’와 ‘쌓이다[싸이다]’는 ‘ㅎ’이 탈락하였을 뿐, 축약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2) ㉠의 ‘옳지’에서는 ‘ㅎ’과 ‘ㄱ’이 축약되어 제3의 음운인 ‘ㄷ’이, ‘좁히다’에서는 ‘ㅂ’과 ‘ㅎ’이 축약되어 제3의 음운인 ‘ㅍ’이 되었다. ㉢에서는 ‘ㅎ’과 ‘ㄱ’이 축약되어 제3의 음운인 ‘ㄷ’이, ‘ㅎ’과 ‘ㄱ’이 축약되어 제3의 음운인 ‘ㄷ’이 되었다.
- (3) ㉣의 ‘끓어’는 ‘ㅎ’이 탈락하고 ‘ㄴ’이 뒤의 초성으로 연음되어 [끄너]로 발음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어들었고, ‘쌓이다’도 ‘ㅎ’이 탈락하여 [싸이다]로 발음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어들었다. ㉤의 ‘낱고’는 ‘ㅎ’과 ‘ㄱ’이 ‘ㄷ’으로 축약되면서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어들었고, ‘종지’는 ‘ㅎ’과 ‘ㄱ’이 ‘ㄷ’으로 축약되면서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어들었다.
- (4) ㉥에서 ‘ㄷ’과 ‘ㄱ’이 음절 끝에서 ‘ㄷ’으로 바뀌었고, ㉦에서 ‘ㄱ’과 ‘ㄷ’은 음절 끝에서 ‘ㄱ’으로 바뀌었다. ‘깊다’ 역시 ‘ㅍ’이 음절 끝에서 ‘ㅂ’으로 바뀌었다.
- (5) ㉧의 ‘숯도’에서 ‘ㄷ’이 ‘ㄷ’으로, ‘웃고름’에서 ‘ㄱ’이 ‘ㄱ’으로 바뀌었고, ㉨의 ‘읽지’에서 ‘ㄱ’이 ‘ㅅ’으로, ‘훑거나’에서 ‘ㄱ’이 ‘ㄱ’으로 바뀌었다.
- (6) ㉩와 ‘겉모양[건모양]’ 모두, 앞 음절 종성이 뒤 음절 초성(비음)을 닮아 가는 비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비음화는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아니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현상이다.
- (7) ㉪의 ‘읽지’에서 받침 ‘ㄹ’ 중 ‘ㄹ’이 탈락하였고, ‘훑거나’에서 받침 ‘ㅅ’의 ‘ㄷ’이 탈락하였다. ‘앉고’ 역시 받침 ‘ㄷ’ 중 ‘ㄱ’이 탈락하였다.
- (8) ㉫은 ‘ㄴ’ 첨가로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 12

- ㉠ ‘날날이’는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이 ‘ㄷ’으로 교체되어 [날날이], 받침 ‘ㄷ’이 접사 ‘-이’와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나 [날나치]가 된다. 그리고 뒤의 ‘ㄴ’의 영향으로 받침 ‘ㄷ’이 비음 ‘ㄴ’으로 교체되어 [날나치]로 발음한다.
- ㉡ ‘넋두리’는 자음군 단순화로 받침 ‘ㄷ’의 ‘ㄱ’이 탈락하여 [넋두리], 뒤의 초성 ‘ㄷ’이 된소리 ‘ㄷ’으로 교체되어 [넋두리]로 발음한다.
- ㉢ ‘입학식’은 ‘ㅂ’이 뒤의 ‘ㅎ’과 만나 ‘ㅍ’으로 축약되어 [이팍식], ‘ㄱ’이 된소리 ‘ㅅ’으로 교체되어 [이팍씩]으로 발음한다.
- ㉣ ‘첫여름’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ㄱ’이 ‘ㄷ’으로

교체되고, ‘ㄴ’이 첨가되어 [천녀름], 뒤의 ‘ㄴ’의 영향으로 ‘ㄷ’이 비음 ‘ㄴ’으로 교체되어 [천녀름]으로 발음한다.

㉔ ‘앞마당’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ㅍ’이 ‘ㅂ’으로 교체되고, ‘ㄹ’의 영향으로 ‘ㅂ’이 비음 ‘ㄹ’로 바뀌어 [암마당]으로 발음한다.

- (1) ㉑ ‘첫여름[천녀름]’에서는 ‘ㄴ’ 첨가 현상이 나타나지만, ㉒ ‘날날이[난나치]’에서는 음절 끝소리 규칙과 구개음화, 비음화가 일어날 뿐 음운이 첨가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 (2) ㉓에서 뒤의 초성 ‘ㄷ’이 된소리 ‘ㄸ’으로 교체되어 [넉뚜리]로, ㉔에서 ‘ㅅ’이 된소리 ‘ㅆ’으로 교체되어 [이팍씩]으로 발음한다.
- (3) ㉕ ‘넉뚜리[넉뚜리]’에서는 음운의 탈락, 교체가 일어나지만, ㉑ ‘첫여름[천녀름]’에서는 첨가, 교체가 일어난다.
- (4) ㉑ ‘첫여름’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ㅅ’이 ‘ㄷ’으로, ‘ㄴ’의 영향으로 ‘ㄷ’이 비음 ‘ㄴ’으로 교체되어 [천녀름]으로 발음하고, ㉔ ‘앞마당’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ㅍ’이 ‘ㅂ’으로 교체되고, ‘ㄹ’의 영향으로 ‘ㅂ’이 비음 ‘ㄹ’로 교체되어 [암마당]으로 발음한다.
- (5) ㉑ ‘입학식[이팍씩]’에서 발음된 ‘ㅍ’은 ‘ㅂ’과 ‘ㅎ’이 축약된 소리이지만, ㉒ ‘날날이[난나치]’에서 발음된 ‘ㄷ’은 ‘ㅌ’이 모음 ‘ㅣ’ 앞에서 ‘ㄷ’으로 교체된 것이다.
- (6) ㉑에서 ‘ㅌ’이 ‘ㄴ’으로 교체될 때,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른 교체와 비음화에 따른 교체가 일어난다. ㉔에서 ‘ㅅ’이 ‘ㄴ’으로 교체될 때에도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른 교체와 비음화에 따른 교체가 일어난다. 따라서 음운 교체의 횟수는 2번이다.
- (7) ㉓에서 ‘ㄱ’이 ‘ㄴ’이 될 때에는 ‘ㅅ’이 탈락하고, ㉔에서 ‘ㅅ’이 ‘ㅆ’이 될 때에는 된소리로 교체가 일어나므로, 둘 다 음운 변동 횟수는 1번이다.
- (8) ㉑에서 ‘ㅍ’은 ‘ㅂ’으로 교체된 후 ‘ㄹ’의 영향으로 ‘ㅂ’이 비음 ‘ㄹ’로 바뀌므로, 두 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2장 단어

### 1강-A

### 단어와 형태소



본문 65쪽

- 01 여름/사과
- 02 여름/에/먹는/사과
- 03 여름/사과/보다/맛있는/겨울/사과
- 04 여름/사과/는/새콤하고/, 겨울/사과/는/달콤하다.
- 05 아이/가/잔다.
- 06 저/아이/가/잘/잔다.
- 07 엄마/와/아이/가/함께/잔다.
- 08 아이/는/일찍/자고/, 엄마/는/늦게/잔다.
- 09 아이/가/엄마/보다/일찍/잠들었다.
- 10 여름/에/먹/는/사과
- 11 여름/사과/보다/맛있/는/겨울/사과
- 12 여름/사과/는/새콤/하/고/겨울/사과/는/달콤/하/다.
- 13 저/아이/가/잘/잔(자-/ㄴ)다.
- 14 아이/는/일찍/자/고/, 엄마/는/늦게/잔(자-/ㄴ)다.
- 15 아이/가/엄마/보다/일찍/잠/들/었다.

### 13

‘잔다’는 ‘자다’의 어간 ‘자-’에 현재를 나타내는 어미 ‘-ㄴ-’,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 15

‘잠들었다’는 ‘잠들다’의 어간 ‘잠들-’에 어미 ‘-었-’, ‘-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그리고 ‘잠들다’는 ‘잠’과 ‘들다’로 나눌 수 있으므로, ‘잠들었다’의 형태소는 ‘잠/들/었/다’와 같이 4개로 나눌 수 있다.

### 바로 확인

본문 66쪽

- 1 ①      2 ⑤      3 ⑤

1 형태소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의 최소 단위이고 단어는 하나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는 다른 말

에 의지하지 않고는 홀로 쓰일 수 없으므로 자립성이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단어로 인정되며 그 자체로 문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형태소이다.

2 ① '눈꽃'은 '눈', '꽃', ② '별자리'는 '별', '자리', ③ '산나물'은 '산', '나물', ④ '주름살'은 '주름', '살'로 형태소를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복숭아'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로, '복', '숭아' 또는 '복숭', '아'와 같이 쪼개면 그 의미를 잃기 때문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3 단어는 원칙적으로 뜻을 지니고 자립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자립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되는 '조사'는 예외적으로 단어에 포함한다. 따라서 문장에 쓰인 단어의 개수는 어절의 수에 조사의 개수를 더한 것이 된다.

제시된 문장에서 단어는 '집/앞/에/있는/나무/에/새잎/이/돋았다'로 9개이고, 형태소는 '집/앞/에/있/는/나무/에/새/잎/이/돋/았/다'로 13개이다.

### 1강-B 형태소의 분류



본문 68쪽

- 01 하늘에 비구름이 끼었다.
- 02 꽃 사이로 빨간꽃을 찾아
- 03 나의 마음 따로 없어 그대 마음이 나의 마음
- 04 밤나무의 밤이 익었다.
- 05 주희의 동생은 예쁘다.
- 06 회원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
- 07 형은 나무로 식탁을 만들었다.
- 08 이 지역의 기후는 벼농사에 알맞다.
- 09 하늘에 비구름이 끼었다.
- 10 꽃 사이로 빨간꽃을 찾아
- 11 나의 마음 따로 없어 그대 마음이 나의 마음
- 12 밤나무의 밤이 익었다.
- 13 주희의 동생은 예쁘다.
- 14 회원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
- 15 형은 나무로 식탁을 만들었다.
- 16 이 지역의 기후는 벼농사에 알맞다.

### 04

'밤나무의 밤이 익었다.'에서 명사 '밤, 나무, 밤'은 자립 형태소이고, 조사 '의, 이'는 의존 형태소이고, 용언의 어간 '익-'과 어미 '-었-', '-다'도 의존 형태소이다.

### 06

'회원들의 '-들은 '복수(複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 바로 확인

본문 69쪽

- 1 ⑤      2 ③      3 ③

1 '올랐다'는 용언의 어간 '오르-'에 어미 '-았-', '-다'가 결합한 형태로,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는 모두 의존 형태소이다. 따라서 '올랐다'에는 자립 형태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용언의 어간 '오르-'는 실질 형태소, '-았-'과 '-다'는 형식 형태소이다.

2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로, 자립 형태소와 용언의 어간이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시된 문장에서는 자립 형태소인 '산, 밤, 꽃, 가득'과 용언의 어간 '피-'가 실질 형태소이다.

①은 자립 형태소, ②는 형식 형태소, ④는 의존 형태소, ⑤는 단어에 해당된다.

3 제시된 문장은 '산/에/는/도토리/가/많/다'와 같이 7개의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다. 이 중 조사 '에, 는, 가'는 자립성이 없지만 자립성을 가진 말에 붙어 쓰이면서 쉽게 분리될 수 있으므로 모두 단어로 인정한다. 그러나 조사는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함께 써야 하기 때문에 자립 형태소가 아니라 의존 형태소이다.

### 1강-C 이형태



본문 72쪽

- 01 ㉠      02 ㉡
- 03 ㉢      04 ㉣
- 05 ㉤      06 ㉥

## 01

‘동생’은 감정을 나타내는,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명사인 유정 명사이고, ‘꽃’은 식물이나 무생물을 가리키는 무정 명사이다.

## 02

‘돕다’는 ‘ㅂ’ 불규칙 용언으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돕고, 돕자, 돕더니’와 같이 활용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도와, 도우니, 도우면’과 같이 어간의 ‘ㅂ’이 ‘오/우’로 바뀐다.

## 03

‘내 손을 꼭 잡아라.’의 ‘-아라’는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잡-’과 같이 양성 모음일 때 뒤에 붙어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이고, ‘우산을 잘 접어라.’의 ‘-어라’는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접-’과 같이 음성 모음일 때 뒤에 붙어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 04

‘듣다’는 ‘ㄷ’ 불규칙 용언으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듣고, 듣지, 듣더니’와 같이 활용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들어, 들으니’와 같이 ‘ㄷ’이 ‘ㄹ’로 바뀐다.

### 바로 확인

본문 73쪽

1 ③    2 ④

1 ‘안’은 부사 ‘아니’의 준말이고, ‘않-’은 ‘않다’의 어간이다. 따라서 ‘안’과 ‘않-’은 쓰임과 의미가 다르므로 서로 다른 형태소이지 이형태의 관계가 아니다.

2 ㉠의 ‘물-’과 ‘물-’은 동사 ‘물다’의 어간으로, 뒤에 오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느냐 모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어간의 형태가 바뀌는 이형태이다. ㉡의 ‘-었-’과 ‘-았-’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 앞말의 끝음절 모음이 음성 모음이나 양성 모음이나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이형태이다. ㉢의 ‘-느’와 ‘-은’은 보조사로서 앞말의 끝음절이 자음이나 모음이나에 따라 형태를 달리 하는 이형태이다. 따라서 이 셋의 공통점은 모두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는 음운론적 이형태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 ㉠은 동사의 어간으로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실질 형태소인 것

에 비해, ㉡, ㉢은 각각 어미와 조사로 문법적 의미만을 지니는 형식 형태소이다.

## 2강-A

## 단어의 구성 요소와 형성 방법



본문 76쪽

01 놀이/터	02 흙/날리다
03 불꽃/놀이	04 시/부모
05 단/팔죽	06 밥/그릇
07 코/웃음 - 웃음	08 비/웃음
09 소꿉/놀이 - 놀이	10 소꿉/질
11 <del>웃</del> 웃음	12 <del>치</del> 이기다
13 <del>싹</del> 노랗다	14 걱정 <del>스</del> 럽다
15 나무 <del>꾼</del>	16 <del>훈</del> 침
17 웃 <del>기</del> 다	18 <del>치</del> 솟다

## 07

‘코웃음’은 우선 ‘코’와 ‘웃음’으로 나눌 수 있다. ‘웃음’은 다시 어간 ‘웃-’과 접사 ‘-음’으로 나눌 수 있다.

## 08

‘비웃음’은 ‘비’와 ‘웃음’이 합쳐진 말이 아니라 ‘비웃다’라는 말에 접사 ‘-음’이 붙은 형태이므로, ‘비웃-’과 ‘-음’으로 나눌 수 있다.

### 바로 확인

본문 77쪽

1 ④    2 ⑤    3 ③    4 ④

1 용언의 기본형은 ‘-다’의 형태로 제시되므로 용언의 어간과 접사를 분석할 때는 어미 ‘-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갖고 분석한다. ‘사랑하다’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어근 ‘사랑’과 어근과 결합하여 동사를 만드는 접사 ‘-하(다)’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① ‘밤낮’은 어근 ‘밤’과 ‘낮’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② ‘치뜨다’에서 ‘뜨-’는 ‘감은 눈을 열다.’라는 실질적인 의미



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어근이고, ‘치-’는 어근에 붙어 ‘위로 향하게’ 또는 ‘위로 올려’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다. ③ ‘미끄럼틀’은 어근 ‘미끄럼’과 어근 ‘틀’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⑤ ‘장난꾸러기’는 어근 ‘장난’에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꾸러기’가 붙은 말이다.

**2** 단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맨손체조’는 ‘맨+손체조’가 아니라 ‘맨손+체조’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① ‘날고기’의 ‘날-’은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고, ② ‘잡히다’의 ‘-히-’는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사, ③ ‘드넓다’의 ‘드-’는 ‘심하게’ 또는 ‘높이’의 뜻을 더하는 접사, ④ ‘망치질’의 ‘-질’은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므로 나머지는 모두 접사와 어근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3** ‘첫사랑(첫+사랑)’과 ‘첫차(첫+차)’에서 ‘첫’은 관형사로, ‘맨 처음의’의 뜻을 지닌다. 따라서 모두 두 개의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① ‘군침’의 ‘군-’은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고, ‘군밤’의 ‘군-’은 ‘굽다’라는 의미를 지닌 어근이다. ② ‘떡이’의 ‘-이’는 명사 파생 접사이고, ‘젊은이’의 ‘이’는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어근이다. ④ ‘강더위’의 ‘강-’은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고, ‘강둑’의 ‘강’과 ‘둑’은 어근이다. ⑤ ‘새빨강다’의 ‘새-’는 ‘매우 길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고, ‘새신랑’의 ‘새’는 관형사로 어근이다.

**4** ‘볼놀이’는 최초의 직접 구성 요소인 ‘볼’과 ‘놀이’가 모두 어근인 합성어이다. 그리고 ‘놀이’는 어근 ‘놀-’과 접사 ‘-이’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즉 ‘볼놀이’는 단일어인 어근 ‘볼’과 파생어인 어근 ‘놀이’가 결합한 구성인 것이다. ‘눈높이’ 또한 최초의 직접 구성 요소인 ‘눈’과 ‘높이’가 모두 어근인 합성어인데, ‘눈’은 단일어 어근이고 ‘높이’는 어근 ‘높-’과 접사 ‘-이’가 결합한 파생어 어근이므로 ‘볼놀이’와 구성 방식이 같다.

① ‘첫사랑(첫+사랑)’과 ② ‘잠투정(잠+투정)’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며, ③ ‘도둑질(도둑+ -질)’과 ⑤ ‘비웃음(비웃-+-음)’은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본문 79쪽

01 시-	02 맨-
03 새-/시-	04 되-
05 헛-	06 덧-
07 -개	08 -하(다)
09 -거리(다), -대(다)	10 -롭(다)
11 -다랗(다)	12 -이

**08**

동작성이 있는 말에 붙어 동작성을 실현하는 접미사는 ‘-하-’이므로, ‘일하다’는 ‘일+ -하- + -다’로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다.

**09**

‘그 소리나 동작이 되풀이되거나 지속되다.’의 뜻을 더하는 동사 파생 접미사에는 ‘-거리(다)’와 ‘-대(다)’가 있다.

**바로 확인** 본문 80쪽

1 ⑤      2 ⑤      3 ①

**1** ‘덧대다’는 ‘대어 놓은 것 위에 겹쳐 대다’의 의미이다. ‘덧-’은 ‘거듭’ 또는 ‘겹치’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덧쓰다, 덧입다’와 같이 쓰인다.

**2** ‘웃기다’는 동사인 어근 ‘웃-’에 사동 접사 ‘-기-’가 결합한 파생어로 동사이다. 따라서 어근의 품사가 바뀐 단어는 아니다.

①, ②의 ‘군말’과 ‘뜻사랑’은 둘 다 명사에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로 어근의 품사가 유지되고 있다. ③ ‘사랑스럽다’는 명사 ‘사랑’에 접사 ‘-스럽-’이 붙어 형용사가 된 것이다. ④ ‘슬픔’은 형용사 어근 ‘슬프-’에 명사 파생 접미사 ‘-ㅁ’이 붙어 명사가 된 것이므로 어근과 품사가 달라진 사례이다.

**3** ‘되묻다’는 동사 ‘묻다’에 ‘다시’의 뜻을 더하는 접사 ‘되-’가 붙은 동사이므로 ㉠에 해당한다. ‘정답다’는 명사

‘정’에 접사 ‘-답다’가 붙어 형용사가 되었으므로 ㉠에 해당하며, ‘웃기다’는 동사 ‘웃다’에 사동 접사 ‘-기-’가 붙어 통사 구조가 달라진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뒤섞다(동사), 맛먹다(동사), 치솟다(동사), 들볶다(동사), 설익다(동사), 새파랗다(형용사)’의 접사는 모두 어근에 뜻만 더해 줄 뿐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도 않고 통사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의 사례이다.

‘걱정스럽다’는 명사 ‘걱정’에 접사 ‘-스럽-’이 붙어 형용사가 된 것이고, ‘가난하다’는 명사 ‘가난’에 접사 ‘-하-’가 붙어 형용사가 된 것이므로 ㉡의 사례이다.

‘입히다’는 동사 ‘입다’에 사동 접사 ‘-히-’가 붙은 동사이고, ‘읽히다’는 동사 ‘읽다’에 사동 또는 피동을 만드는 접사 ‘-히-’가 붙은 동사이므로 ㉢의 사례이다.

한편 ‘낮추다’는 형용사 ‘낮다’에 사동 접사 ‘-추-’가 붙어 동사가 된 것이고, ‘높이다’는 형용사 ‘높다’에 사동 접사 ‘-이-’가 붙어 동사가 된 것으로, 둘 다 어근의 품사가 바뀌었고 이것이 통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

**2강-C**      **합성어**      1. 통사적/비통사적

**채움**       본문 82쪽

01 앞뒤	02 볶음/밥
03 나뭇/가지	04 새/해
05 오/가다	06 늙은/이
07 부술/비	08 돌아/가시다
09 밤/낮	10 잘/되다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12**  
‘먹거리’는 ‘먹다’의 어간 ‘먹-’에 명사 ‘거리’가 관형사형 어미 없이 결합한 형태이므로, 국어의 문장 배열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 동사 어간과 명사가 관형사형 어미

‘-을’로 결합한 ‘먹을거리’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13**  
‘스며들다’는 ‘스미다’의 어간 ‘스미-’와 ‘들다’가 연결 어미 ‘-어’로 결합된 ‘스미어들다’가 줄어든 형태이다.

**14**  
‘얼룩소’의 ‘얼룩’은 ‘본바탕에 다른 빛깔의 점이나 줄 따위가 뚜렷하게 섞인 자국’을 의미하는 명사로 ‘얼룩소’는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15**  
‘빛나다’는 ‘빛이 나다’가 조사 ‘이’가 생략된 채 결합한 것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19**  
‘날짐승’은 ‘날다’의 어간 ‘날-’에 관형사형 어미 ‘-르’이 결합된 ‘날’(어간의 받침 ‘르’이 탈락하고 관형사형 어미 ‘-르’이 결합한 형태)과 명사 ‘짐승’이 결합한 것이다.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가 연결되는 것은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배열 방식과 일치하므로 ‘날짐승’은 통사적 합성어이다.

**20**  
‘날뛰다’는 ‘날다’의 어간 ‘날-’과 동사 ‘뛰다’가 연결 어미 없이 연결된 것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24**  
‘이리저리’는 ‘이곳으로. 또는 이쪽으로’의 뜻을 지닌 부사 ‘이리’와 ‘저곳으로. 또는 저쪽으로’의 뜻을 지닌 부사 ‘저리’가 결합한 합성 부사이다. 부사와 부사가 결합하였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바로 확인**      본문 83쪽

- 1** ②      **2** ③      **3** ②

**1** ‘건널목’은 ‘건너-(어간)+-르(관형사형 어미)+목(명사)’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통사적 합성어이다. ① ‘달밥’은 관형사형 어미 ‘-은’이 생략되어 있으며, ③ ‘군세다’와 ⑤ ‘높푸르다’는 연결 어미 ‘-고’가 생략된 채 연결되었다. ④ ‘부술비’는 부사의 일부와 명사가 결합한 것으로 모두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2** ‘알아보다’는 ‘알다’의 어간 ‘알-’과 용언 ‘보다’가 연결 어미 ‘-아로’ 결합되었으므로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일치하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① ‘여닫다’는 용언의 어간 ‘열-’이 연결 어미 없이 용언 ‘닫다’와 결합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굳은살’은 용언의 어간 ‘굳-’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어 명사인 ‘살’과 결합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오가다’는 어간 ‘오-’가 연결 어미 없이 ‘가다’와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⑤ ‘힘쓰다’는 명사 ‘힘’과 용언 ‘쓰다’가 조사 ‘을’이 생략된 채 결합하였는데, 국어 문장 구성에서 조사는 생략 가능하므로 ‘힘쓰다’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3** <보기 2>에 제시된 합성어 중, ‘꺾쇠’는 동사의 어간 ‘꺾-’에 관형사형 어미 없이 명사 ‘쇠’가 결합하였으므로 ㉠에 해당하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검버섯’도 형용사의 어간 ‘검-’에 관형사형 어미 없이 명사 ‘버섯’이 결합하였으므로 ㉠에 해당하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한편 ‘새해’는 관형사 ‘새’가 명사 ‘해’를 꾸미므로 통사적 합성어, ‘큰집’은 형용사의 어간 ‘크-’에 관형사형 어미 ‘-니’ 결합하여 명사 ‘집’을 꾸미므로 통사적 합성어, ‘나가다’와 ‘오가다’는 연결 어미가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 ‘소나무’는 명사 ‘솔’과 명사 ‘나무’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2강-C**      **합성어**      2. 대등/종속/융합

**채움**      본문 8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06, 07, 09**

‘바늘방석’은 ‘앉아 있기에 아주 불안스러운 자리’, ‘풍월’은 ‘언어들은 짧은 지식’, ‘피땀’은 ‘노력’을 의미하므로, 본래 의미와 달라진 융합 합성어이다.

**11, 12, 13**

‘쑥대밭’은 ‘매우 어지럽거나 못 쓰게 된 모양’, ‘종이호랑이’는 ‘겉보기에는 힘이 셀 것 같으나 사실은 아주 약한 것’, ‘쥐뿍’은 ‘아주 보잘것없거나 규모가 작은 것’을 의미하므로, 본래 의미와 달라진 융합 합성어이다.

**바로 확인**      본문 86쪽

**1 ④    2 ②    3 ③**

**1** ‘갈아입다’는 ‘입던 옷을 벗고 다른 것으로 바꾸어 입다’라는 의미로 ‘갈다’가 ‘입다’를 꾸며 주는 종속 합성어다. ① ‘논밭’은 의미상 논과 밭이 대등하게 결합한 합성어이다. ② ‘힘들다’는 ‘힘이 들다’의 의미로 ‘힘’과 ‘들다’의 의미가 대등하게 결합한 합성어이다. ③ ‘입방아’는 ‘입’과 ‘방아’가 결합한 합성어로 ‘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⑤ ‘돌아가다’는 ‘죽다’라는 의미로, ‘돌다’와 ‘가다’라는 어근의 원래 의미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볶음밥’은 ‘볶-(어근)+-음(접사)’과 ‘밥(어근)’이 결합된 단어로 ㉠의 사례이고, ‘눈가리개’는 ‘눈(어근)’과 ‘가리-(어근)+-개(접사)’가 결합된 단어로 ㉡의 사례이다. ① ‘비빔밥’은 ‘비비-(어근)+-ㅁ(접사)’과 ‘밥(어근)’의 결합이므로 ㉠의 사례이지만, ‘나들이’는 ‘나-(어근)+들-(어근)’과 ‘-이(접사)’의 결합이므로 합성어가 아니고 파생어이다. ③ ‘바닷물고기’는 어근 ‘바다’와 ‘물고기’가 결합한 것이고, ‘부슬비’는 어근 ‘부슬’과 ‘비’가 결합한 것이므로 둘 다 ㉠, ㉡의 사례로 볼 수 없다. ④ ‘돌다리’는 어근 ‘돌’과 ‘다리가 결합한 것이고, ‘산들바람’은 어근 ‘산들’과 ‘바람’이 결합한 것이므로 둘 다 ㉠, ㉡의 사례로 볼 수 없다. ⑤ ‘본받다’는 어근 ‘본’과 ‘받다’가 결합한 것이므로 ㉠의 사례로 볼 수 없고, ‘비웃음’은 합성어가 아니라 어근 ‘비웃-’에 접사 ‘-음’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3** ‘춘추(春秋)’는 ‘춘’과 ‘추’의 결합인 합성어로, ‘봄과 가을’을 이르기도 하지만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 ‘어른의 나이’를 높여 이르기도 한다. ‘할아버지 춘추’라고 할 때 ‘춘추’는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 ‘어른의 나이’를 높여 이르는 말로 쓰인 경우로, ㉠의 사례이다.

① ‘안팎’은 ‘안’과 ‘밖’이 결합하면서 ‘ㅁ’이 ‘ㅍ’으로 바뀌어 형태 변화가 일어난 경우이다. ② ‘화살’은 ‘활’과 ‘살’이 결합하면서 ‘ㄹ’이 탈락한 것으로, 형태 변화가 일어난 경우이다. ④ ‘이튿날’은 ‘이틀’과 ‘날’이 결합하면서 ‘ㄹ’이 ‘ㄷ’으

로 변한 것이다. ⑤ ‘마소’는 ‘말’과 ‘소’가 결합하면서 ‘르’이 탈락한 것으로, 형태 변화가 일어난 경우이다.

**3강-A 품사의 분류** 1. 형태

- 채움**  본문 89쪽
- 01 되어, 버린, 아시오
  - 02 없다
  - 03 나면, 가지고, 논다
  - 04 깐, 커진, 뒤다
  - 05 일어나, 외쳐, 보고, 싶었다
  - 06 날아, 보자꾸나
  - 07 듣다
  - 08 예쁘다
  - 09 덤벼들다
  - 10 치솟다

**04**  
‘뒤다’는 명사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것이다.

**07**  
‘듣은’은 ‘듣다’의 어간 ‘듣-’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은’과 결합할 때, 불규칙 활용하여 ‘들-’이 된 것이다. ‘들었을’ 역시 어간 ‘들-’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과 결합할 때, ‘들-’로 어간의 형태가 바뀐 것이다.

**09**  
‘덤벼들다’는 ‘덱비-+ -어+들- + -다’가 결합한 합성 동사로, 어간은 ‘덱벼들-’까지이다. ‘덱벼들다’는 어미 ‘-어’와 결합하여 ‘덱벼들어’로, 어미 ‘-면’과 결합하여 ‘덱벼들면’으로, 어미 ‘-는’과 결합하여 어간의 ‘르’이 탈락한 ‘덱벼든’으로 활용하고 있다.

**바로 확인** 본문 90쪽

1 ④      2 ④

**1** 제시된 문장의 단어는 ‘강, 의, 깊이, 는, 누구, 도, 모른다’로, 이 중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는 동사인 ‘모른다’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불변어이다.

**2** 용언인 ‘기다리다, 슬픈, 오면’과 서술격 조사 ‘이다’는 각각 문장에서 쓰일 때 ‘기다리고/기다리며/기다리는, 슬프고/슬프며/슬퍼서, 오고/오면/와서, 이고/이며/이어서’와 같이 활용하며 형태가 변한다. 이와 달리 ‘곧(부사), 온갖(관형사), 이불(명사), 둘(수사)’은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고 사용된다.

**3강-A 품사의 분류** 2. 기능

- 채움**  본문 92쪽
- 01 과학자, 일, 무엇
  - 02 첫째, 그곳, 하늘, 것
  - 03 는, 만
  - 04 계서, 예
  - 05 온갖, 활짝
  - 06 모든, 한
  - 07 흐르는, 깨끗하다
  - 08 있던, 꺼냈다
  - 09 아아
  - 10 체인, 관계인, 용언
  - 11 체인, 관계인, 체인, 관계인, 용언
  - 12 체인, 관계인, 수식인, 체인, 관계인, 용언
  - 13 체인, 관계인, 수식인, 용언, 용언

**02**  
체언은 문장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이다. ‘첫째’(수사), ‘그곳’(대명사), ‘하늘’(명사), ‘것’(의존 명사)’이 이에 해당한다.

**06**  
‘모든(관형사)’과 ‘한(수 관형사)’은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수식언에 해당한다.

## 12

기능에 따라 품사를 분류하면, ‘그’는 주어이고, ‘모자’는 목적어이므로 문장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체언에 해당한다. ‘는’과 ‘를’은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관계언에 해당한다. ‘헌’은 ‘모자’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므로 수식언이다. ‘놀리웠다’는 ‘그’의 움직임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용언에 해당한다.

## 13

‘딸꼭질’은 주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이므로 체언에 해당한다. ‘이’는 체언 뒤에 붙어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관계언에 해당한다. ‘오래’는 뒤에 오는 ‘멈추지 않았다’의 뜻을 분명하게 하는 부사이므로, 수식언에 해당한다. ‘멈추지’는 ‘딸꼭질’의 작용을 서술하므로 용언에 해당하고, ‘않았다’도 앞의 서술어를 부정하는 서술어이므로 용언에 해당한다.

### 바로 확인

본문 93쪽

1 ㉔ 2 ㉑

1 ‘독립언’은 문장에서 다른 말과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이다.

2 ㉑의 ‘오늘’은 명사로서 문장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체언에 해당하고, ㉒의 ‘오늘’은 부사로서 뒤에 오는 용언인 ‘왔다’를 수식하는 수식언에 해당한다.

### 3강-A

### 품사의 분류

3. 의미



채우기

본문 95쪽

01	날씨	가	매우	출다.	
	명사	조사	부사	형용사	
02	수업	시간	에	꾸벅꾸벅	졸았다.
	명사	명사	조사	부사	동사
03	나	는	그	가	좋다.
	대명사	조사	대명사	조사	형용사

04

밤	이	깊자	주위	가	고요하다.
명사	조사	형용사	명사	조사	형용사

05

아무	말	도	없이	눈물	만	흘렀다.
관형사	명사	조사	부사	명사	조사	동사

06

어머,	네	가	그	모습	을	봤어?
감탄사	대명사	조사	관형사	명사	조사	동사

07

필통	에서	연필	하나	를	꺼냈다.
명사	조사	명사	수사	조사	동사

08

첫째,	마취	를	제대로	해야	해.
수사	명사	조사	부사	동사	동사

09

참!	어제	깜짝	놀랄	뉴스	를	들었어.
감탄사	부사	부사	동사	명사	조사	동사

10

인호	야,	선생	께서	수업	끝나	교무	로	오라
명사	조사	명사	조사	명사	동사	명사	조사	동사

## 08

‘첫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수사’이고, ‘마취’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명사’이다. ‘를’은 앞말에 붙어 ‘마취’가 문장에서 목적으로 쓰임을 나타내므로 조사이다. ‘제대로’는 동사 ‘하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고, ‘해야 해’는 움직임을 나타내므로 동사이다.

### 바로 확인

본문 96쪽

1 ㉑ 2 ㉑

1 ‘이제’나 ‘오늘’은 문장에서 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부사로 쓰일 때도 있는데, ㉑의 ‘이제’는 뒤에 조사가 붙어 ‘바로 이때’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 문장에서 서술의 주체로 쓰이고 있으므로 명사이다. ㉒의 ‘오늘’ 또한 뒤에 조사가 붙어 뒤의 명사를 꾸미고 있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명사이다.

㉓은 뒤에 조사가 붙어 수량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고 있으므로 수사이다. ㉔은 ‘어렵게 힘들어’라는 의미로, 서술

어 ‘합격했다’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이다. ㉔ ‘모든’ 또는 ‘전체’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체언인 ‘국민’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사이다.

- 2** ㉑의 ‘달리기’는 어근 ‘달리-’에 명사 파생 접미사 ‘-기’가 붙은 명사로,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①의 ‘걸음’ 또한 어근 ‘걸-’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음’이 붙은 명사로,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관형어 ‘선생님의’의 수식을 받고 있다. ② 서술성을 지닌 동사로, 부사어 ‘멋쩍게’의 수식을 받고 있다. ③ 서술성을 지닌 동사로, 부사어 ‘빨리’의 수식을 받고 있다. ④ ‘나쁜 기억’에 대해 서술하는 기능을 갖는 동사이다. ⑤ ‘그림을’에 대해 서술하는 기능을 갖는 동사로 부사어 ‘잘’의 수식을 받고 있다.

**3강-B 품사의 종류** 1. 명사

**채움** 본문 99쪽

- 01 • 보통 명사: 하늘, 바람, 별, 나무, 희망
- 고유 명사: 한강, 이순신
- 02 • 보통 명사: 사랑, 교실, 지우개, 안경
- 고유 명사: 런던, 금강산
- 03 따름                      04 줄, 등, 줄
- 05 뿐, 이                    06 데
- 07 의                        08 에
- 09 에

**03** 의존 명사는 자립 명사와 달리,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막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저 기쁠 따름이다.’에서 명사는 ‘막내, 대학, 소식, 따름’인데, 이 중 ‘따름’은 단독으로는 쓸 수 없으며, ‘기쁠’이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다.

**04** ‘잘하는 줄은’과 ‘일 등인 줄은’의 ‘줄’은 ‘어떤 방법, 셈속 따위를 나타내는 말’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다. ‘일 등’의 ‘등’은 ‘등급이나 석차를 나타내는 단위’로 쓰인 의존 명사이다.

**바로 확인** 본문 100쪽

- 1** ③      **2** ①      **3** ③

- 1** 무생물이나 식물 등과 같이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대상을 가리키는 부정 명사 뒤에는 유정 명사 뒤에 붙는 조사 ‘에게’가 붙을 수 없다.
- 2** ‘군데’는 ‘날날의 곳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한 군데, 두 군데’와 같이 쓰인다. 나머지 ‘그릇’, ‘술가락’, ‘발자국’, ‘덩어리’는 문장에서 단위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으나 자립 명사에 해당한다.
- 3** ‘미래’는 ‘미래가/미래는/미래의/미래에’와 같이 조사 결합에 제한이 없다. ① ‘미연’, ② ‘내친김’, ④ ‘얼떨결’은 조사 ‘에’와 결합하여 각각 ‘미연에’, ‘내친김에’, ‘얼떨결에’의 형태로 쓰이며, 다른 조사와의 결합이 제한적이다. ⑤ ‘불가분’은 조사 ‘의’와 결합하여 ‘불가분의’의 형태로 쓰이며, 다른 조사와의 결합이 제한적이다.

**3강-B 품사의 종류** 2. 대명사

**채움** 본문 103쪽

- 01 저희-1인칭                      02 저-재귀
- 03 무엇-미지칭                    04 누구-미지칭
- 05 누구-부정칭

**03** ‘무엇’은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미지칭 대명사이다. 한편 ‘저’는 뒤에 오는 꽃을 수식하는 지시 관형사이다.

**바로 확인** 본문 104쪽

- 1** ⑤      **2** ②


**1** ㉔ ‘저희’는 문장 안의 ‘우리 아이들’을 다시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로 3인칭에 해당된다. ‘저희’는 주로 1인칭 대

명사 '우리'의 낮춤말로 사용되지만, 앞에서 언급한 사람을 다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2** ②의 '누구'는 특정 인물을 가리키지 않는 말이므로 부정칭 대명사에 해당한다.

- ① '저'는 앞의 '영수'를 다시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이다. ③ '무엇'은 모르는 사물을 가리키는 미지칭 대명사이다. ④ '당신'은 청자를 가리키므로 2인칭 대명사이다. ⑤ '아무'는 특정 인물을 가리키지 않으므로 부정칭 대명사이다.

**3강-B 품사의 종류** 3. 수사

채움  본문 106쪽

01 다섯	02 셋째
03 하나	04 여섯
05 둘	06 첫째, 둘째
07 육, 일, 오	08 제이
09 서넛	

**04**

'여섯'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수사이다. '사과 한 개'의 '한'은 수를 나타내나, 뒤에 오는 의존 명사 '개'를 수식하므로 수 관형사이다.

**바로 확인** 본문 107쪽

- 1 ③    2 ②    3 ②

**1** '하루'나 '이틀', '사흘' 등은 수와 관련된 어휘이지만 날짜 또는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또한 '일 년'의 '일'은 의존 명사 '년'을 수식하는 수 관형사이다.

- ①의 '하나', '셋', '넷', ②의 '하나', ④의 '둘'은 양수사이다. ⑤의 '첫째'와 '둘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이다.

**2** ㉠의 '둘'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로 수사이다.

㉠은 대명사이고, ㉡은 '편'을 수식하는 수 관형사이다. 또한 ㉢은 관형사이며, ㉣은 '말이'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이다.

**3** '모두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에서 '하나'는 뜻, 마음, 생각 따위가 한결같거나 일치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품사는 명사이다.

그 외의 '하나'는 수효를 세는 맨 처음 수를 의미하므로 수사이다.

**3강-B 품사의 종류** 4. 동사/형용사

채움  본문 112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 × → 형용사	08 ×, ×, × → 형용사
09 ○, ○, ○ → 동사	10 ○, ○, ○ → 동사
11 ○, ○, ○ → 동사	12 ×, ×, × → 형용사
13 ×, ×, × → 형용사	14 본용언+보조 용언
15 본용언+본용언	16 본용언+보조 용언
17 본용언+보조 용언	18 본용언+보조 용언

**14**

본용언 '먹다'에 보조 용언 '버리다'가 이어진 형태이다. 이때 '버리다'는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두 용언 사이에 연결 어미 '-서'를 넣어 보면 '먹어서 버리다'가 되는데, 이때 뜻이 달라지게 된다.

**17**

'선생님은 영수가 집에 가게 하셨다.'에서 용언은 '가게 하셨다'이다. 이는 '가다'에 '-게 하다'가 결합한 형태로, 여기서 '하다'가 보조 동사이며, '-게 하다'의 구성으로 쓰일 때, 앞말의 행동을 시키거나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사동의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가게 하셨다'는 본용언 '가다'와 보조 용언 '하다'로 구성된 구이다.

참고로 '-게 하다'와 관련하여 다양한 학계 입장이 있다. '-게 하다'를 사동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의 접사로 보거나, '하다' 역시 본용언으로 보기도 한다. 우리 책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라 '-게 하다'의 '하다'를 보조 용언으로 본다.







사 ‘만’

㉔ 수지는 준호와 결혼했다.

→ 보조사 ‘는’, 부사격 조사 ‘와’

**3** ③의 ‘주희야’는 ‘명사+호격 조사’의 결합일 뿐 감탄사는 아니다.

① ‘우아’, ② ‘어머나’, ④ ‘그래’, ⑤ ‘아’는 감탄사이다.

같은 경우이다. 이를 구분할 때는 문맥 속에서 서술성을 가지면 용언(형용사)이고, 그렇지 않으면 관형사라고 판단할 수 있다.

**3강-B 품사의 종류** 8. 품사의 통용

**채움** 본문 128쪽

01	명사 / 감탄사
02	형용사 / 동사
03	명사 / 부사

**02** ‘있다’는 일반적으로 동사로 쓰이지만, ‘존재하는 상태’, ‘재물이 많은 상태’ 등을 의미할 때에는 형용사로 쓰인다.

**바로 확인** 본문 129쪽

**1** ④    **2** ①

**1** ‘그 백화점은 개점 시간이 늦다.’의 ‘늦다’는 ‘(시간이) 어떤 기준보다 또는 상대적으로 많이 흐른 시점이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오늘도 그 지각생은 학교에 늦었다.’의 ‘늦다’는 ‘(정해진 시간 안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자동사이다.

①의 ‘길다’는 모두 형용사, ②의 ‘늦다’는 모두 동사, ③의 ‘예쁘다’는 모두 형용사, ⑤의 ‘보다’는 모두 동사에 해당한다.

**2** ㉑은 주어인 ‘너’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으로, 의미상 ‘서로 갈지 않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㉒은 체언인 ‘사람’을 수식하는 ‘수식언’으로, 의미상 ‘해당되는 것 이외의’라는 뜻이므로 관형사이다. 동일한 단어가 두 개의 품사를 갖고 있는 품사 통용과 달리, 이 경우는 형용사 ‘다르다’의 활용형 ‘다른’과 관형사 ‘다른’의 형태가

**3강-C 단어의 의미** 1. 단어 간의 의미 관계

**채움** 본문 133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ㄱ	12	ㄴ
13	ㄱ	14	ㄴ	15	ㄱ

**11** ㄱ의 ‘홍수’는 ‘비가 많이 와서 강이나 개천에 갑자기 크게 불은 물’의 의미로 쓰였고, ㄴ의 ‘홍수’는 ‘사람이나 사물이 많이 쏟아져 나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의미로 쓰였다.

**12** ㄱ의 ‘뿌리’는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는 근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의미로 쓰였고, ㄴ의 ‘뿌리’는 ‘식물의 밑동’의 의미로 쓰였다.

**바로 확인** 본문 134쪽

**1** ③    **2** ②    **3** ④


**1** ‘새’와 ‘제비’는 상위어와 하위어로, 상하 관계이다. ‘개 - 진돗개’도 서로 상하 관계에 있다. ① ‘부모 - 자식’, ⑤ ‘죽다 - 살다’는 반의 관계이다. ②의 ‘사자’와 ‘호랑이’는 동물의 하위어들로, 의미 관계는 없다. ④ ‘배우다 - 학습하다’는 유의 관계이다.

**2** ㉑의 ‘달다’는 각각 ‘물건을 일정한 곳에 걸거나 매어 놓다.’와 ‘꿀이나 설탕의 맛과 같다.’의 의미이므로 서로 동음이의 관계이다. ㉒의 ‘먹다’는 각각 ‘음식 따위를 입을 통

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라는 중심 의미와 여기에서 파생된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다의 관계이다. 그리고 ㉠의 ‘서서’와 ‘앉다’는 서로 반의 관계이다.

**3** ‘참새’와 ‘잉어’의 서식 환경이 지상, 수상이라는 점에서 다르지만, 다른 요소에서도 차이점이 나타나므로 반의어라고 볼 수 없다. 즉 ‘참새’는 날개가 있고, 지느러미가 없고, 깃털이 있고, 비늘이 없다. 반면 ‘잉어’는 날개가 없고, 지느러미가 있고, 깃털이 없고, 비늘이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점이 많은 단어는 반의 관계로 볼 수 없다.

**3강-C 단어의 의미** 2. 사전 활용

**채움**  본문 137쪽

01 ㉠	02 ㉠
03 ㉡	04 ㉢
05 ㉣	

**04, 05**  
‘지다’ 「2」는 【…을】이라는 문형 정보로 보아 목적어를 필수 성분으로 요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다’ 「1」은 【…에】라는 문형 정보로 보아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임을 알 수 있다.

**바로 확인** 본문 138-139쪽

- 1** ㉠ ㉡    **2** ㉢ ㉣
- 1** ‘달다’ ㉠은 ‘물건을 일정한 곳에 걸거나 매어 놓는다.’의 의미이다. ‘소금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보았다.’의 ‘달다’는 ‘소금의 무게’를 달아 보는 것으로, ‘무게를 재다(계산)’의 의미이다. 따라서 ‘달다’와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
- 2** 어미 ‘-음’이 사용되면 용언의 본래 품사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접미사 ‘-음’이 사용되면 품사가 바뀐다. <보기>에서 ‘얼음’은 동사 ‘얼다’의 어근 ‘얼-’에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어 명사가 된 것이므로 문법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집중 훈련 OX** 본문 141-148쪽

- 01 (1) ○ (2) ○ (3) ○ (4) ○ (5) × (6) ○ (7) ○ (8) ×
- 02 (1) × (2) × (3) ○ (4) × (5) × (6) × (7) ○ (8) ×
- 03 (1) × (2) ○ (3) × (4) × (5) × (6) × (7) ○ (8) ×
- 04 (1) × (2) ○ (3) ○ (4) ○ (5) ○ (6) ○ (7) × (8) ○
- 05 (1) ○ (2) ○ (3) ○ (4) ○ (5) × (6) ○ (7) × (8) ○
- 06 (1) × (2) × (3) ○ (4) × (5) × (6) ○ (7) × (8) ○
- 07 (1) ○ (2) ○ (3) × (4) ○ (5) ○ (6) ○ (7) × (8) ×
- 08 (1) ○ (2) ○ (3) ○ (4) ○ (5) × (6) × (7) ○ (8) ×
- 09 (1) ○ (2) ○ (3) ○ (4) × (5) ○ (6) × (7) ○ (8) ○
- 10 (1) ○ (2) ○ (3) ○ (4) ○ (5) × (6) ○ (7) ○ (8) ×
- 11 (1) ○ (2) × (3) ○ (4) ○ (5) ○ (6) × (7) ○ (8) ○
- 12 (1) × (2) ○ (3) ○ (4) ○ (5) × (6) ○ (7) ○ (8) ○

- 01**
- (1) ‘풀밭’은 ‘풀’과 ‘밭’이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풀’과 ‘밭’, 2개의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다.
  - (2) ‘맨-’은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밭’과 결합하여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밭’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맨밭’은 ‘맨-’과 ‘밭’, 각각의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다.
  - (3) ‘뛰다’의 ‘-ㄴ-’ 대신 ‘-었-’을 넣으면, ‘뛰었다’가 되어 동작 시간이 과거로 바뀐다. 따라서 ‘-ㄴ-’은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하나의 형태소로 볼 수 있다.
  - (4) 다른 말에 기대지 않고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이다. <보기>에서 자립 형태소는 ‘그, 풀, 밭, 밭’로 모두 4개이다.
  - (5)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이다. 형식 형태소에는 ‘조사, 어미, 접사’가 포함되며, 제시된 문장에는 ‘가, 을, 맨-, 로, -ㄴ-, -다’ 6개가 있다.
  - (6)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이다. ‘그, 풀, 밭, 밭, 뛰-’로 모두 5개가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 (7)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은 ‘형태소’이다. <보기>를 형태소로 분석하면, ‘그, 가, 풀, 밭, 을, 맨-, 밭, 로, 뛰-, -ㄴ-, -다’로 모두 11개이다.
  - (8) 자립 형태소가 아니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는 용언의 어간인 ‘뛰-’ 하나이다.

- 02**
- (1) ‘들-, 들-’은 ‘들다’의 어간이므로 실질적 의미를 지닌

형태소이다.

- (2)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 의미를 가진 ‘들-, 들-’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3)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 의존 형태소는 조사, 어간, 어미, 접사이므로, 조사 ‘은/는’, 어간 ‘들-/들-’, 어미 ‘-았/었-’ 모두 해당한다. 또한 ‘은/는’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는지 모음으로 끝나는지에 따라, ‘들-/들-’은 결합하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는지 모음으로 시작하는지에 따라, ‘-았/었-’은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므로 음운론적 이형태에 해당한다.
- (4) ‘은/는’은 조사로서 단어의 자격을 지니지만 용언의 어간(들-/들-)이나, 선어말 어미 ‘-았/었-’은 문장에서 자립해서 쓰이지 못하므로 단어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또한 용언의 어간 ‘들-/들-’은 다른 형태소와 달리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형태소이다.
- (5) ‘은/는’은 조사로서 단어의 자격을 지니지만 용언의 어간 ‘들-/들-’이나 선어말 어미 ‘-았/었-’은 단어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
- (6) ‘은/는’과 ‘-았/었-’은 문법적 의미를 지니는 형식 형태소이다.
- (7) 조사 ‘은/는’, 어간 ‘들-/들-’, 어미 ‘-았/었-’은 각각 의미는 동일하지만, 앞뒤로 결합하는 음운이 무엇이냐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 (8) 조사 ‘은/는’은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 그러나 어간 ‘들-/들-’과 어미 ‘-았/었-’은 각각 어미, 어간과 결합해야만 단어를 이룰 수 있다.

③

- (1) ‘꿈꾸다’는 체언 ‘꿈’과 용언 ‘꾸다’가 결합하여 ‘꿈(을)꾸다’가 된, 합성어이다.
- (2) ‘돌아서다’는 ‘돌다’와 ‘서다’가 결합할 때 연결 어미 ‘-아’로 연결되어 형성된 한 단어이다.
- (3) ‘뒤섞다’는 ‘마구, 함부로’의 뜻을 지닌 접두사 ‘뒤-’에 용언 ‘섞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4) ‘빛나다’는 체언 ‘빛’과 용언 ‘나다’가 결합하여, ‘빛(이)나다’가 된 합성어이다.
- (5) ‘오르내리다’는 용언의 어간 ‘오르-’에 연결 어미 없이 용언 ‘내리다’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 (6) ‘검붉다’는 용언의 어간 ‘검-’에 연결 어미 없이 용언 ‘붉다’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 (7) ‘날아가다’는 ‘날다’와 ‘가다’가 결합할 때 연결 어미 ‘-아’로 연결되어 형성된 한 단어이다.

- (8) ‘본받다’는 체언 ‘본’에 용언 ‘받다’가 결합하여, ‘본(을)받다’가 된 합성어이다.

④

- (1) ‘뛰노는’은 ‘뛰다’와 ‘놀다’가 결합할 때 연결 어미 없이 연결되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2) ‘몰라볼’은 ‘모르다’와 ‘보다’가 결합할 때 연결 어미 ‘-아’로 연결되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3) ‘타고난’은 ‘타다’와 ‘나다’가 결합할 때 연결 어미 ‘-고’로 연결되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4) ‘지난달’은 ‘지나다’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이 결합한 뒤, 체언 ‘달’과 결합하였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5) ‘굳은살’은 ‘굳다’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이 결합한 뒤, 체언 ‘살’과 결합하였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6) ‘날아올랐다’는 ‘날다’와 ‘오르다’가 결합할 때 연결 어미 ‘-아’로 연결되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7) ‘부술비’는 부사 ‘부술’과 체언 ‘비’가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 (8) ‘늪은이’는 ‘늪다’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이 결합한 뒤, 체언 ‘이’와 결합하였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⑤

- (1) 명사 ‘멋’에 ‘-쟁이’가 붙어 ‘멋쟁이’가 되어도 품사는 명사이며, 문장 구조에도 변화가 없으므로 ㉠에 해당한다.
- (2) 형용사 ‘파랗다’에 ‘새-’가 붙어 ‘새파랗다’가 되어도 품사는 형용사이며, 문장 구조에도 변화가 없으므로 ㉠에 해당한다.
- (3) 동사 ‘지우다’의 어간 ‘지우-’에 접사 ‘-개’가 붙어 ‘지우개’가 되면, 품사가 명사로 바뀌므로 ㉡에 해당한다.
- (4) 동사 ‘열다’의 어간 ‘열-’에 피동 접사 ‘-리-’가 붙어 ‘열리다’가 되면 품사는 동사이거나, 문장 구조가 ‘동생이 문을 열다’에서 ‘문이 (동생에게) 열리다.’와 같이 바뀌므로 ㉢에 해당한다.
- (5) 동사의 어간 ‘읽-’에 사동 접사 혹은 피동 접사 ‘-히-’를 붙이면 ㉢과 같이 문장 구조가 바뀌지만 품사는 동사로 동일하다.
- (6) 동사 ‘밧다’에 ‘짓-’이 붙어 ‘짓밧다’가 되어도 품사는 동사이며, 문장 구조에도 변화가 없으므로 ㉠에 해당한다.
- (7) 용언의 어간 ‘나누-’에 명사 파생 접사 ‘-기’가 붙으면

품사가 동사에서 명사로 바뀐다. 따라서 ‘나누기’는 ㉠이 아닌 ㉡에 해당한다.

- (8) 동사 ‘비다’에 사동 접사 ‘-우-’가 붙어 ‘비우다’가 되어도 품사는 동사이거나, 문장 구조가 ‘집이 비다.’에서 ‘온 식구가 집을 비우다.’와 같이 바뀌므로 ㉡에 해당한다.

### 06

- (1) 동사 ‘깎다’의 피동사가 ‘깎이다’이므로 품사에 변화가 없어 ㉡의 사례는 부적절하다. 타동사 ‘밟다’의 피동사가 ‘밟히다’이므로 품사에 변화가 없고 다만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로 바뀌어 문장 구조가 달라지므로 ㉡의 사례는 적절하다.
- (2) 동사 ‘깎다’의 피동사가 ‘깎이다’이므로 품사에 변화가 없어 ㉡의 사례는 부적절하고, ‘(불이) 밟다’의 ‘밟다’는 형용사인데, ‘(불을) 밟히다’의 ‘밟히다’는 사동사이므로 품사에 변화가 있어 ㉡의 사례도 부적절하다.
- (3) 형용사 ‘눅다’의 사동사가 ‘눅히다’이고 문장 구조에 있어 목적어가 필요했으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동사 ‘팔다’의 피동사가 ‘팔리다’이므로 품사에 변화가 없지만, 문장 구조에 있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로 바뀌므로 ㉡의 사례로도 적절하다.
- (4) 형용사 ‘눅다’의 사동사가 ‘눅히다’이고 그 문장 구조 또한 달라졌으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그러나 형용사 ‘눅다’가 사동사 ‘눅이다’로 파생하여 품사가 변했으므로 ㉡의 사례는 부적절하다.
- (5) 형용사인 ‘낮다’의 사동사가 ‘낮추다’이므로 품사가 변했고 문장 구조 또한 달라졌다. 따라서 ㉡의 사례는 적절하다. 그러나 타동사인 ‘밀다’에 강세 접미사가 붙은 ‘밀치다’는 타동사로서 품사와 문장 구조 모두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의 사례로 부적절하다.
- (6) 형용사 ‘높다’의 사동사가 ‘높이다’이고 문장 구조에 있어 목적어가 필요했으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동사 ‘쌍다’의 피동사가 ‘쌍이다’이므로 품사에 변화가 없지만, 문장 구조에 있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로 바뀌므로 ㉡의 사례로도 적절하다.
- (7) ‘맞다’와 사동사 ‘맞히다’는 모두 품사가 동사이므로 품사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동사 ‘굽다’의 사동사 ‘굽히다’는 모두 품사가 동사이므로 품사에 변화가 없고 문장 구조에 변화가 있으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8) 형용사 ‘좁다’의 사동사가 ‘좁히다’이고 문장 구조에 있어 목적어가 필요했으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동사 ‘남다’의 사동사가 ‘남기다’이고 문장 구조에 있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로 바뀌므로 ㉡의 사례도 적절하다.

### 07

- (1) ㉠의 ‘도’와 ㉡의 ‘만’은 조사이므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속한다.
- (2) ㉠의 ‘이루었다’와 ㉡의 ‘그린’은 동사이므로,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 속한다.
- (3) ㉠의 ‘두’는 수 관형사로 ‘팔’을 수식하지만, ‘하나’는 수사(체언)로 문장에서 수식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 (4) ㉡의 ‘나무’와 ‘꽃’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에 해당한다.
- (5) ㉠의 ‘넓게’와 ㉡의 ‘희미하다’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6) ㉠의 ‘벌려’와 ㉡의 ‘다루는’은 문장 안에서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용언이며, 모두 동사이다.
- (7) ㉡의 동사 ‘되다’와 ㉠의 서술격 조사 ‘이다’는 모두 활용하기 때문에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 속한다.
- (8) ㉡의 ‘탁자’와 ㉠의 ‘기계’는 명사이다. 앞에 오는 말에 자격을 부여하는 단어는 격 조사이다.

### 08

- (1) ‘옛날, 사진, 기억’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 명사이다.
- (2) ‘보니(보다), 떠올랐다(떠오르다)’는 모두 활용하고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 동사이다.
- (3) ‘하나’는 활용하지 않으며 ‘한 개’라는 수량을 의미하고, 조사와 결합하므로 ㉡ 수사이다.
- (4) ‘을, 가’는 활용하지 않으며 앞말에 붙어 앞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므로 ㉡ 조사이다.
- (5) 형용사 ‘즐겁다’의 어간 ‘즐겁-’이 관형사형 ‘-은’과 결합해서 활용하여 ‘즐거운’이 된 것으로, ㉡ 관형사가 아니라 형용사이다.
- (6) ‘누워(눅다), 우러르(우러르다), 보니(보다)’는 모두 활용하고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 동사이지만, ‘밟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에 해당하지 않는다.
- (7) ‘의자, 하늘, 햇살’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 명사이다.
- (8) ‘저’는 활용하지 않으며 체언인 ‘하늘’을 수식하는 ㉡ 관형사이지만, ‘큰’은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 관형사가 아니라 형용사이다.

09

- (1) ‘숫다’는 ‘숫아’와 같이 활용할 때 어간에 변화가 없지만, ‘낫다’는 ‘나아’와 같이 활용할 때 어간에서 ‘ㅅ’이 탈락하므로 어간이 바뀌는 경우이다.
- (2) ‘얼다’는 ‘얼어’와 같이 활용할 때 어간에 변화가 없지만, ‘엿듣다’는 ‘엿들어’와 같이 어간의 ‘ㄷ’이 ‘ㄹ’로 바뀌므로 어간이 바뀌는 경우이다.
- (3) ‘떡다’는 ‘떡어’와 같이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에 변화가 없지만, ‘하다’는 ‘하여’(하-+-어)와 같이 활용할 때 어미 ‘-어’가 ‘-여’로 바뀌므로 어미가 바뀌는 경우이다.
- (4) ‘흐르다’는 어간 ‘흐르-’가 어미 ‘-어’와 결합하여 ‘흘러’로 활용되므로, 용언의 어간 ‘흐르-’의 ‘ㄹ’가 모음 어미 앞에서 ‘ㄹㄹ’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어미가 바뀐 것이 아니라 어간이 바뀐 경우이다.
- (5) ‘수놓다’는 ‘수놓아’와 같이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에 변화가 없지만, ‘파랗다’는 ‘파래’(파랑-+-아)와 같이 어간의 ‘ㅎ’이 탈락하고, 어미도 ‘-아’에서 ‘-애’로 바뀌므로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이다.
- (6) ‘곱다’의 어간 ‘곱-’에 어미 ‘-아’가 결합하여 ‘고와’로 활용되므로, 용언의 어간 ‘곱-’이 모음 어미 앞에서 ‘고오’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모음 어미와 결합하여 ‘고와’가 된 것이다. 따라서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뀐 것이 아니라 어간이 바뀐 것이다.
- (7) ‘웃다’는 ‘웃어’와 같이 활용할 때 어간에 변화가 없지만, ‘잇다’는 ‘이어’와 같이 활용할 때 어간에서 ‘ㅅ’이 탈락하므로 어간이 바뀌는 경우이다.
- (8) ‘슬프다’는 ‘슬퍼’와 같이 활용할 때 어간의 ‘-’가 탈락하지만, ‘푸르다’는 ‘푸르러’(푸르-+-어)와 같이 어미 ‘-어’가 ‘-리’로 바뀌므로 어미가 바뀌는 경우이다.

10

- (1) ‘민수(가/는) 운동(을/은) 싫어한다.’가 성립하므로, 격 조사 ‘가’, ‘을’ 자리에 보조사 ‘는’, ‘은’이 올 수 있다.
- (2) ‘나는 점심에 국수(를) 먹었는데’가 성립하므로, ‘을/를’과 같은 격 조사는 담화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 (3) ‘형은, ‘나는’, ‘민수’는’과 같이 앞에 오는 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 조사 ‘은’과 ‘는’ 중 선택하여 쓴다.
- (4) ‘영희(도/까지/마저/만)’에는 체언 뒤에 여러 보조사가 붙었고, ‘어서요’에는 부사 ‘어서’ 뒤에 보조사 ‘요’가 붙었으므로, 보조사는 체언뿐 아니라 부사 뒤에도 붙을 수 있다.
- (5) ‘빵만으로는’는 ‘빵(체언)+만(보조사)+으로(부사격 조

사)’로 분석되는데, 이때 보조사는 격 조사 앞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보조사는 ‘격 조사 뒤에만 붙을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6) ‘영희가 시험에 합격했다.’에서 ‘영희도 시험에 합격했다.’로 바꾸면 ‘더함’의 의미를, ‘영희만 시험에 합격했다.’로 바꾸면 ‘한정’이나 ‘강조의 의미가 더해진다.
- (7) ‘사과와 배’에는 ‘사과’와 ‘배’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조사 ‘와’가 쓰였다.
- (8)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단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사 또한 단어로 인정하고 있지만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다.

11

- (1) ‘같이’의 품사 정보에는 부사, 조사로 쓰이는 말임이 나타난다. 그리고 조사 ‘같이’가 붙으면 부사의 역할을 하므로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말임을 알 수 있다.
- (2)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에 사용된 조사 ‘같이’는 [I]「1」이 아닌 [I]「2」의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3) ‘같이하다’의 뜻풀이에 ‘같이[I]’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때, ‘같이하다’는 ‘같이’와 ‘하다’가 결합한 복합어로 볼 수 있다.
- (4) 문형 정보【(…과) …을】을 통해, ‘…과’의 형태로 쓰이는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할 때에는 세 자리 서술어, 그렇지 않을 때에는 두 자리 서술어로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5) ‘평생을 같이한 부부’의 ‘같이한’은 ‘같이하다」1」의 뜻으로 쓰였는데, 사전에 이는 ‘함께하다’와 비슷한 말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같이한’은 ‘함께한’으로 교체하여 쓸 수 있다.
- (6) 제시한 용례에서 ‘같이’는 ‘다름이 없이’라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같이」1」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 (7) ‘같이’는 부사나 조사로 쓰일 때 각각 2개의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품사와 상관없이 다의어임을 알 수 있다.
- (8) ‘같이하다’의 「1」, 「2」 모두 비슷한 말로 ‘함께하다’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함께하다’의 품사도 동사임을 알 수 있다.

12

- (1) 뜻풀이 「10」이 추가된 것은 맞으나 주변적 의미가 추가되었을 뿐 표제어(단어)의 중심적 의미인 뜻풀이 「1」은 그대로이므로 수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 (2) ‘이번 달에는 카드를 너무 끊어서 청구서 보기가 무섭다.’의 ‘끊다’는 「10」의 ‘물건 따위를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3) 표준 발음으로 [김:뺨]이 추가되었다.
- (4) ‘내음’은 ‘냄새’의 방언으로 사전에 등재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뜻풀이가 ‘코로 맡을 수 있는 나쁘지 않거나 향기로운 기운. 주로 문학적 표현에 쓰인다.’로 새롭게 바뀌었고, 방언이 아닌 사전의 표제어로 제시되었다.
- (5) ‘냄새’와 ‘내음’은 서로 다른 표제어이고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다의어의 관계가 아니라 유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6) ‘태양계’의 뜻풀이에서 행성의 개수가 바뀐 것은 과학적 정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7) ‘태양계’는 개정 전에도 명사였고, 개정 후에도 명사이다.
- (8) ‘스마트폰’은 개정 전에는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표제어로 추가된 신어이다.

## 3장 문장

### 1강-A 문장



본문 151쪽

- 01 그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믿는다.
- 02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함함하다.
- 03 문득/ 오늘/ 나는/ 그/ 섬에/ 가고/ 싶다.
- 04 언니가 내가 산 옷을 몰래 입었다.
- 05 옆집 아주머니는 개를 싫어한다.
- 06 가을 하늘이 매우 푸르다.
- 07 나는 그가 귀국했음을 미리 알았다.
- 08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아직 이르다.

#### 01

‘그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믿는다’의 다섯 어절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 07

‘그가 귀국했음’은 문장에서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 목적어로 사용된 명사절이다. ‘미리 알았다’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추지 않은 동사구이다.

#### 08

‘우리가 학교에 가기’는 부사격 조사 ‘에’가 붙어 문장에서 부사어로 사용된 명사절이다.

### 바로 확인

본문 152쪽

- 1 ②    2 ③    3 ⑤

1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하므로 ‘잘/지내셨습니까?/제가/영수의/친구입니다.’로 나눌 수 있고 5개이다. 구는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 것이므로 ‘잘 지내셨습니까?’, ‘영수의 친구입니다.’로 2개이다. 그리고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고 반드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어야 하는 절은 찾을 수 없으며, 문장은 ‘잘 지내셨습니까?’와 ‘제가 영수의 친구

입니다.'로 2개이다.

2 ㄷ의 '그가 떠난'은 주어(그가)와 서술어(떠나다)를 지니고 있는 문법 단위이므로, 구(句)가 아닌 절(節)에 해당한다.

ㄴ은 '새/컴퓨터가/순식간에/고물이/되었다'로 총 5개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고, ㄷ과 ㄹ은 각각 '나는/그가/떠난/사실을/정말/몰랐다', '할머니께서는/손자가/대학에/합격했음을/미리/아셨다'로 총 6개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다. 또 ㄹ은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음'이라는 절을 포함하고 있다.

3 '절'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구'와 구별된다. ⑤의 '열심히 읽었다'는 부사 '열심히'가 동사 '읽었다'를 수식하는 동사구에 해당한다.

①~④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때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①의 '코가 길다'는 서술절, ②의 '가을이 오기'는 명사절, ③의 '향기가 좋은'은 관형절, ④의 '소리도 없이는' 부사절로 구분할 수 있다.

**1강-B 문장 성분** 1. 주성분

**채우기** 본문 158쪽

- 01 운아는 맑은 하늘을 매우 좋아한다.
- 02 희선이는 맛있는 빵을 먹었다.
- 03 빨간 장미꽃이 활짝 피었다.
- 04 민규는 어린애가 아니다.
- 05 영화가 공부를 한다.
- 06 죽어 선생님께서만 그 사실을 알려 주셨다.
- 07 내가 찾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 08 너 언제 학교에 가니?
- 09 그녀는 영화배우처럼 예쁘다.
- 10 그는 수학 교사가 되었다.
- 11 영화는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다.
- 12 할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

04 '주어-보어-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12**

'본용언-보조 용언'의 구성이 하나의 서술어 역할을 한다.

**바로 확인** 본문 159-160쪽

- 1 ⑤      2 ④      3 ②      4 ②

1 '주었다'는 주어 '준수가', 목적어 '책울', 그리고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필수 부사어 '나에게'를 필요로 하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① '피었다'는 주어 '꽃이'만을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② '되었다'는 주어 '그 사람이' 외에 보어 '장관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③ '잡았다'는 주어 '검은 고양이' 외에 목적어 '쥐를'을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④ '다르다'는 주어 '우리는' 외에 비교 대상인 필수 부사어 '너희와'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2 ㉠에도 목적어가 있다. ㉠에서 서술어 '마시다'의 목적어는 '우유'인데 목적격 조사 '을/를'이 아닌 보조사 '나'가 결합하였다.

㉡의 목적어는 '빵을', ㉢의 목적어는 '내 모습을', ㉣의 목적어는 '우유를'이며, ㉤은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다.

3 ㄴ의 '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라는 문장에서 전체 문장의 주어는 생략되었다. 문장의 주어는 서술어의 주체인데, 여기서 서술어 '들었다'의 주체가 소포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소포가'는 전체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소포가 도착했다)에서의 주어이다.

ㄱ은 '가영이'가 문장의 주체이고, 그를 설명한 내용인 '목소리가 곱다'가 서술어이다. ㄷ에서 친구들이 원하는 대상, 즉 목적어는 '내가 노래 부르기를'이다. ㄹ의 서술어 '아니다'의 앞에 오는 말은 보어이므로 '학생이'는 보어에 해당된다. ㅁ의 '봄이' 역시 ㄹ의 '학생이'와 같이 보어이며, 전체 주어(계절이)는 생략되어 있다.


4 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동요를 배운다.'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아이들이', '동요를', '배운다'로 세 개다. '어린이집에서'는 부사어로,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ㄱ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주어 '동생이'와 서술어 '잔다'이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성분이다. ㄷ에서 서술어 '여겼다'는 부사어 '동생으로'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즉 주성분이 아닌 부사어도 문장에서 필수적인 성분이 될 수 있다. ㄹ에서 관형어 '긴'과 '짧은'이 의존 명사 '것'을 수식하



고 있다. 의존 명사는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므로 반드시 관형어를 수반한다. ㄹ에서 서술어 ‘모른다’의 주어는 ‘기상청도’이지만, ‘내리다’의 주어는 밝혀져 있지 않다. ‘기상청도 비가 언제 내릴지 모른다.’와 같이 주어를 밝혀 적어야 올바른 문장이 된다.

**1강-B 문장 성분** 2. 부속 성분

**채움**  본문 164쪽

옷장에 입을 옷이 없었다. 그래서 어제 노란 티셔츠를 샀다. 오늘 ㉠ 옷을 입고 학원에 가는 중이다. 친구가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소영아, ㉡ 옷 어때?”

“어머, 설마 네가 입으려고 샀어?”

소영은 ㉢ 말만 남긴 채 건물로 들어갔다. 오늘따라 바깥 날씨가 쌀쌀하다.

관형어와 부사어는 수식하는 대상이 무엇이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기본이다. ‘오늘따라 바깥 날씨가 쌀쌀하다.’에서 ‘오늘따라’는 명사 ‘오늘’에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경우에만 공교롭게’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따라’가 붙은 부사어이다.


**바로 확인** 본문 165~166쪽

- 1 ③      2 ①      3 ②
- 1**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으로서 생략이 가능하지만 의존 명사를 수식할 때는 생략할 수 없다. 의존 명사가 홀로 쓰일 수 없으며 반드시 관형어를 필요로 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만큼’은 정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들릴’이란 관형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 2** <보기>의 ㄱ에 사용된 부사어 ‘엄마와’는 서술어 ‘다르다’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필수 부사어로, 서술어를 수식하는 성분 부사어이다.
- 3** 우선 ‘문장 성분’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과 ㉡은 체

언인 ‘친구’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모두 관형어이다. 그리고 ㉢과 ㉣은 모두 용언인 ‘들었다’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어이다.

한편 ㉠은 형용사 ‘오래되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붙은 꼴로 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며, ㉡은 관형사이다. ㉢은 형용사 ‘지긋하다’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 ‘-게’가 붙어 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며, ㉣은 부사어이다. 따라서 ‘품사’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과 ㉡은 형용사이고, ㉢은 관형사, ㉣은 부사어이다.

**1강-B 문장 성분** 3. 독립 성분

**채움**  본문 167쪽

01 참, 그 비 한번 정말 시원하게 온다.

02 수호야, 학교 가자!

03 예구, 왜 그리도 내 속을 몰라주냐?

04 이거 네 물건 맞아? 예, 맞습니다.

**바로 확인** 본문 168쪽

- 1 ②      2 ③
- 1** 독립어는 감탄사나 호격 조사(아/야/이시여)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부르거나 느낌, 응답 등을 나타내므로 다른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울러 독립어는 뒤에 선표나 느낌표를 사용해서 이를 구분한다. ②의 ‘제발’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 2** ㄴ의 ‘그대여’는 독립어로 문장 속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③의 서술은 주어에 대한 설명으로 ㄱ의 ‘지연이가’에만 해당된다.
- ① ㄱ의 ‘이름표를’과 ㄴ의 ‘마음을’은 모두 목적어이다. ② ㄱ의 ‘깔끔한’과 ㄴ의 ‘간절한’은 모두 관형어로서 필수적이지 않은 성분이며, 모두 문장에서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④ ㄱ의 ‘붙였다’와 ㄴ의 ‘알아주세요’는 서술어로서 필수적인 성분이다. ⑤ ㄱ의 ‘플로’와 ㄴ의 ‘제발’은 모두 부사어로서 서술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문 173쪽

- 01** 나는 누나를 사랑하지만, 그녀는 나를 동생으로 여기고 있다.
- 02** 우리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
- 03** 나는 주중에는 자전거를 타고, 주말에는 수영을 한다.
- 04** 그가 흡연을 치자 관중들은 큰 함성을 질렀다.
- 05** 그 안건에 대해 참석자들 중 과반수가 찬성하였다.
- 06** 확실한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이다.
- 07**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여간 기쁘지 않았다.
- 08** 경희는 부지런하다는 점에서 남들과 달랐다.
- 09** 이번 시험에서 몇 문제밖에 풀지 못했다.  
/ 이번 시험에서 몇 문제는 풀지 못했다.
- 10** 나는 민주와, 영호를 만났다.  
/ 나는 혼자서 민주와 영호를 만났다.
- 11** 우연이는 지금 양말을 신는 중이다.  
/ 우연이는 지금 양말을 신은 상태이다.
- 12** 나는 예쁜 연희의, 머리핀을 만지작거렸다.  
/ 나는 연희의 예쁜 머리핀을 만지작거렸다.

**03**

목적어 '자전거를'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다. 수영은 '하는' 것이지만 자전거는 '타는' 것이다.

**04**

'함성'은 여러 사람이 함께 외치거나 지르는 소리라는 의미이므로, '함성 소리'는 의미가 중복된 표현이다.

**05**

'과반수'는 절반이 넘는 수라는 의미로, 이미 '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과반수가 넘다'는 의미가 중복된 표현이다.

**07**

부사 '여간'은 부정 서술어와 호응한다.

**08**

서술어 '다르다'는 '...와'에 해당하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비교 대상을 밝혀 써 주어야 한다.

## 바로 확인

본문 174-175쪽

1 ③    2 ④    3 ④

**1** '잉어는 10도 이상이 되면 먹이를 찾기 시작한다.'는 '잉어는 먹이를 찾기 시작한다.'와 '10도 이상이 되다.'라는 문장이 합쳐진 문장이다. '10도 이상이 되다.'라는 문장에 주어가 빠져 있으므로 '잉어는 수온이 10도 이상이 되면 먹이를 찾기 시작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은 부사어 '모름지기'는 '~해야 한다'라는 서술어와 호응한다는 점에서, ②는 서술어 '대하지'에 호응하는 부사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④는 서술어 '유학자이다'가 현재 주어 '이이의 호는'과 호응하지 않으므로 이와 호응하는 주어 '그는'을 넣어야 한다는 점에서, ⑤는 서술어 '요청했다'에 호응하는 부사어를 넣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정한 문장은 모두 적절하다.

**2** ④는 수식어 '귀여운'이 수식하는 대상이 동생인지 아니면 동생의 강아지인지 명확하지 않아 생긴 중의적 문장이다. 따라서 <보기>의 밑줄 친 사례로 적절하다.

①은 서술어가 동작의 진행과 양료를 모두 나타낼 수 있어 발생한 중의성이고, ②는 비교 대상에 따른 중의성, ③은 접속 조사 '와/과'에 따른 중의성, ⑤는 부정문에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가서 생긴 중의성이다.

**3** '할아버지께서 답장을 보내셨다.'에서 서술어 '보내셨다'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사어는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런데 수정된 문장은 이에 대한 부사어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시간 부사 '어제'를 넣은 문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할아버지께서 손자에게 답장을 보내셨다.'와 같은 문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① '매진'은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팔렸음을 의미하므로 '전부'와 함께 쓰이는 것은 의미 중복에 해당한다.

## 2강-A

### 홀문장과 겹문장



본문 177쪽

- |      |      |      |
|------|------|------|
| 01 홀 | 02 겹 | 03 겹 |
| 04 홀 | 05 겹 | 06 겹 |
| 07 홀 | 08 겹 | 09 겹 |
| 10 겹 |      |      |

#### 01

‘닭다’는 주어와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므로, ‘영호는 민수와 닭았다.’에서 ‘민수와’는 필수 부사어이다. 따라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 02

‘영호와 민수는 대학생이다.’는 ‘영호는 대학생이다.’와 ‘민수는 대학생이다.’가 접속 조사 ‘와’로 이어진 문장이다.

#### 06

‘나는 여름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나는 기다린다.’의 문장 안에 ‘여름이 오다.’가 명사형 어미 ‘-기’와 결합하여 명사절 ‘여름이 오기’로 들어가 있으므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 10

‘이쪽으로 자동차가 빠르게 온다.’는 ‘이쪽으로 자동차가 온다.’의 문장 안에 ‘자동차가 빠르다.’가 부사형 어미 ‘-게’와 결합하여 부사절 ‘자동차가 빠르게’로 들어가 있으므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 바로 확인

본문 178쪽

- 1 ②    2 ③    3 ⑤

1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다.’는 두 개의 홀문장 ‘가을 하늘이 높다.’와 ‘가을 하늘이 푸르다.’를 연결 어미 ‘-고’로 이어서 쓴 겹문장이다.

①, ④, ⑤에는 서술어가 하나뿐이다. ③의 서술어 ‘먹어 보았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구성된 하나의 서술어이다. 따라서 ③도 홀문장이다.

2 ‘우리는 어제 학교로 돌아왔다.’는 주어(우리는)와 서술어(돌아왔다)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① ‘가을이 오다.’와 ‘곡식이 익다.’가 연결 어미 ‘-면’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② 부사절 ‘소리도 없이’가 ‘함박눈이 내린다.’에 안긴 문장이다. ④ 관형절 ‘우리가 돌아온’이 ‘그는 사실을 모른다.’에 안긴 문장이다. ⑤ ‘사람은 책을 만든다.’와 ‘책은 사람을 만든다.’가 연결 어미 ‘-고’로 이어진 문장이다.

3 ‘사귀다’는 필수 부사어(…과)를 요구하는 서술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사귀었다.’와 ‘나는 오래전부터 사귀었다.’처럼 두 개의 홀문장으로 나눌 수 없다. 즉 이때 사용된 ‘과’는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그 사람과 나는 오래전부터 사귀었다.’는 하나의 서술어로 이루어진 홀문장이다.

①~④에 사용된 문장은 모두 접속 조사 ‘와/과’가 사용된 ‘이어진문장’이므로 겹문장이다.

## 2강-B

### 문장의 확대

1. 안은문장(명사절, 관형절)



본문 182쪽

- |                                       |
|---------------------------------------|
| 01 영호가 범인임                            |
| 02 그가 노력하고 있음                         |
| 03 바람이 불기                             |
| 04 자전거를 타기                            |
| 05 나는 <u>부모님이 시키신</u> 일을 다 끝냈다.       |
| 06 <u>내가 들은</u> 음악은 4월에 만들어졌다.        |
| 07 그들은 <u>시대에 뒤떨어진</u>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
| 08 우리는 <u>누나와 꽤 많은</u> 친구를 오늘도 만났다.   |

#### 01

안은문장에 주어가 없으므로, ‘영호가 범인이다.’를 주어가 되도록 명사절로 만들어야 한다. 명사형 어미 ‘-(으)르’를 사용하여 ‘영호가 범인임’으로 고쳐 쓸 수 있다.

1 ㉠ 2 ㉡ 3 ㉢

1 ㉠의 명사절(장마가 끝나기)은 목적격 조사 '를'이 붙어 목적어로 사용되었고, ㉡의 명사절(어린아이 혼자 다니기)은 부사격 조사 '에'가 붙어 부사어로 사용되었다. ㉢의 명사절(그가 집에 돌아가기)도 부사격 조사 '로'가 붙어 부사어로 사용되었다. ㉣은 문맥상 명사절(어른들도 치과에 가기)에 목적격 조사 '를'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목적어로 사용되었다.

2 ㉣은 '그가 돌아왔다.'라는 홀문장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붙어 형성된 관형절이다. 이 과정에서 안은문장인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의 목적어 '사실'은 관형절 '그가 돌아온'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므로 동격 관형절이다. 동격 관형절은 관형절 내의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다.

㉠, ㉡ 안은문장에서 ㉠은 목적어로, ㉡은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 ㉣은 관형절로 주어는 '그'이지만 ㉣을 안은문장의 주어는 '나'이다. ㉤ ㉥과 ㉦은 모두 명사절로 각각 명사형 어미 '-음'과 '-기'가 결합되어 있다. '-음'과 '-기'는 용언을 명사처럼 바꿔 준다는 기능이 같지만 그 형태는 다르다.

3 안은문장의 관형절은 '두 사람이 어제 헤어진'인데, 이를 완결된 홀문장으로 고치면, '두 사람이 어제 공원에서 헤어졌다.'가 된다. 여기서 '공원'은 부사격 조사 '에서'와 함께 쓰여 부사어의 역할을 하므로 ㉡의 사례가 아니라 ㉢의 사례로 적당하다.

㉠의 관형절은 '어제 결혼한'인데, 이를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그들이 어제 결혼했다.'가 된다. '그들'은 주격 조사 '이'가 붙어 주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의 관형절은 '나무로 된'인데, 이를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탁자가 나무로 되었다.'가 된다. '탁자'는 뒤에 주격 조사 '가'가 붙어 주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의 관형절은 '친구가 나에게 준'인데, 이를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친구가 나에게 옷을 주었다.'가 된다. '옷'은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 목적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의 관형절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인데, 이를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아이들이 주말에 운동장에서 공을 찼다.'가 된다. '주말'은 부사격 조사 '에'가 붙어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 01 형제들과 다르게 / 형제들과 달리
- 02 아는 것도 없이
- 03 그 사람은 손이 무척 크다.
- 04 영웅이는 용기가 부족하다.
- 05 서울은 인구가 매우 많다.
- 06 연재는 작기가 직접 하겠다고 약속했다.
- 07 여자 주인공이 당황한 어조로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말하였다.
- 08 나는 속으로 '이건 너무 어려워.'라고 되뇌었다.
- 09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십니다.

01

안은문장의 서술어에 부사 파생 접사 '-이'나 부사형 어미 '-게'가 붙어 부사절로 사용될 수 있다. 부사절로 안은 문장에 쓰이는 '-이'는 서술어 '다르다, 같다, 없다'와만 결합한다.

02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 되도록 해야 하므로, 서술어의 어간에 '-이, -게' 등의 접사나 전성 어미를 결합해야 한다. 만일 '그는 아는 것도 없는데 잘난 척을 한다.'와 같이 수정했을 경우, 연결 어미 '-는데'와 결합하여 이어진 문장을 만든 것이다.

09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는 명령문을 인용한 것으로, 간접 인용될 때 명령형 종결 어미 '-으라'에 인용격 조사 '고'가 붙은 것이다.

1 ㉣ 2 ㉤ 3 ㉥ 4 ㉦

1 ㉣는 '그가 노력하고 있음'이라는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이때 명사절은 부사격 조사 '에'가 붙어 부사어로

사용되었다.

- ① ‘언니와 달리’, ② ‘돈도 없이’, ③ ‘그림이 아름답게’, ⑤ ‘물이 새지 않도록’이라는 부사절을 안고 있다.

**2** ㄷ의 ‘우리 누나는 군인이 되었다.’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 아니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뿐인 홑문장이다. ‘우리 누나는’이 주어이고, ‘군인이’는 서술어 ‘되다’ 앞에 있는 보어이다. 따라서 ㄷ의 ‘군인이’는 서술절 속의 주어가 아니라 보어의 역할을 한다.

ㄱ과 ㄴ은 모두 서술절을 안고 있는 문장으로, 각각 ‘마음이 넓다’와 ‘산이 많다’가 서술절이다. 여기서 ‘마음이’와 ‘산이’가 서술절의 주어가 된다.

**3** ㄷ의 “내일 집에 계십시오.”는 인용절이다. 이때 직접 인용절을 간접 인용절로 바꾸면 ‘아들이 어제 저에게 오늘 집에 있으라고 부탁했습니다.’로 고칠 수 있다. 간접 인용절은 말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표현되므로 시제와 높임 표현이 모두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ㄱ의 ‘그녀가 지나가도록’은 부사절이다. ㄴ의 ‘내가 (친구를) 만난’은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절이고, ‘마음이 정말 착하다’는 서술절이다.

**4** ‘나는 화가 가라앉음을 느꼈다.’는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화가 가라앉다’가 명사형 어미 ‘-음을’ 통해 명사절로 안겨 있으며 이는 문장에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② ‘그가 다쳤다’는 ‘사실’의 내용으로 안겨 있는 관형절이다. 즉 문장에서 ‘사실’을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때 관형절의 내용과 수식을 받는 체언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므로 동격 관형절임을 알 수 있다. ③ 인용될 때 큰따옴표가 사용되었고, 인용격 조사 ‘라고’가 쓰였으므로 ‘의의가 있습니다.’는 직접 인용절임을 알 수 있다. ④ 부사절 ‘겉모습과 달리’는 부속 성분이므로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⑤ ‘털이 하얗다’는 주어 ‘우리 강아지는’에 대한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절이다.



본문 193쪽

01 대등	02 종속
03 종속	04 대등
05 종속	06 종속
07 ‘-아서’, 원인	08 ‘-(으)면’, 조건
09 ‘-더라도’, 양보	10 ‘-고자’, 목적

## 06

접문장은 평서문이 아닌 의문문 등의 다른 문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등장하는 접문장이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서 ‘상황, 배경’의 의미 관계가 성립된다.

### 바로 확인

본문 194~195쪽

- 1 ②    2 ⑤    3 ③

**1** ‘나는 밥을 먹고 형은 빵을 먹었다.’는 의미 관계상 서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나머지 문장은 모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정도, ③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는 원인, ④ ‘물이 깊어서 아이가 건널 수 없었다.’는 원인, ⑤ ‘책을 빌리려고 철수는 도서관에 갔다.’는 목적의 의미 관계로 이어져 있다.

**2** ㄴ은 ‘나는 비가 오더라도 할머니 댁에 갈 것이다.’처럼 앞 절이 뒤 절의 주어 다음으로 이용해도 의미상 큰 차이가 없다.

① ㄱ의 ‘성실하고’의 주어는 ‘민주는’이지만 ‘깊다’의 주어는 ‘생각이’이다. 참고로 ‘민주는 생각이 깊다.’는 ‘생각이 깊다’라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다. ② ㄱ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지만 ‘대조’가 아니라 ‘나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③ ㄴ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앞 절과 뒤 절의 자리를 바꾸면 ‘나는 할머니 댁에 가더라도 비가 올 것이다.’라는 문장이 되므로 의미 차이가 발생한다. ④ ㄴ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조건’이 아니라 ‘양보’의 의미 관계를 갖는다.

3 나. '비가 오고 꽃이 피다.'는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있는 절이 이어진 것으로, 앞뒤 절의 순서를 바꾸면, '꽃이 피고 비가 왔다.'로 원래 문장과 그 의미가 달라진다. 따라서 ③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ㄱ의 '나는 봄과 여름을 좋아한다.'는 '나는 봄을 좋아한다.', '나는 여름을 좋아한다.'의 두 절을 접속 조사 '과'로 연결한 것으로 중복되는 주어는 생략하였다. ㄴ의 '봄이 오면 꽃이 피다.'는 조건을 의미를 갖는 연결 어미 '-면'이 사용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 문장은 '꽃이 봄이 오면 핀다'처럼 앞 절이 뒤 절 안으로 올 수 있다.

차려 주는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 '아들아, 밥을 차려 다오.' 등 명령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면 보다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3 ④의 서술어 '먹읍시다'의 주체는 '화자'이므로 화자만 행하려는 행동을 청유문으로 표현한 문장이다. 따라서 ⑦의 사례에 가장 가깝다.

① '조용히 하자'의 주체는 '떠드는 친구들'이므로 청자만 행동하기를 요청하는 문장이다. ② (약을) '먹자'의 주체는 말을 듣는 '아이'이므로 청자만 행하기를 바라는 문장이다. ③ 보러 '가는' 주체는 화자와 청자 모두를 의미하므로 화자와 청자가 같이 행동하기를 요청하는 문장이다. ⑤ '토의합시다'의 주체는 화자와 청자 모두를 의미하므로 화자와 청자가 같이 행동하기를 요청하는 문장이다.

**3강-A 문법 요소** 1. 종결 표현

채움  본문 197쪽

01 명령문	02 의문문
03 평서문	04 의문문
05 청유문	06 감탄문
07 명령문	08 평서문
09 명령문	10 ○
11 △	12 □

10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의문문으로, 판정 의문문이라고 한다.

12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똑바로 서라'는 명령의 의미를 전달한다.

**바로 확인** 본문 198~199쪽

- 1 ②    2 ③    3 ④    4 ④


1 ②의 '이 옷을 입으면 얼마나 예쁠까?'는 '이 옷이 예쁘다.'는 감탄의 의미를 담은 '수사 의문문'이다.

2 '아들아, 배가 너무 고프다.'는 종결 어미 '-다'로 끝나는 평서문이지만, 담화 상황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밥을

4 르은 설명 의문문으로 청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며, 선택항 중에 하나를 고르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선택항 중 하나를 고르기를 요구하는 의문문의 예로는 '자장면과 우동 중 어떤 것이 좋아?' 등이 있다.

한편 ㄴ은 의문문이지만 화자가 청자에게 창문을 닫아 달라는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령문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3강-A 문법 요소** 2. 높임 표현(주체 높임)

채움  본문 201쪽

01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홍시를 잘 잡수신다. → 연세 많으신, 께서
02 어머니가 몹시 피곤했는지 거실에서 잔다. → 께서, 피곤하셨는지, 주무신다
03 아버지께서 너 데리고 식당으로 오랬어. → 오라셨어 (오라고 하셨어)
04 아버지께서는 친구분들에 비해 키가 크다. → 크시다.
05 우리 할머니는 젊었을 때 예뻐셨다.
06 저분이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시다.
07 할아버지는 수염이 많으시다.
08 형, 아버지는 지금 퇴근하셨어.

03

‘아버지께서 너 데리고 식당으로 오랬어.’에서 높임의 대상은 아버지이다. 식당으로 오는 주체는 ‘너’이므로 ‘오시래’로 수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서술어 ‘오랬어’는 ‘오라고 하셨어’ 또는 ‘오라셨어’로 고쳐야 한다.

04

높여야 하는 주체인 아버지와 관련된 대상 ‘키’를 높이는 간접 높임이다.

06

‘저분이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에서 주어는 ‘저분’이다. ‘저분’을 높이기 위해 서술격 조사 ‘이다’에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했다.

07

간접 높임이 사용된 문장이므로 높임의 대상은 ‘수염’이 된다.

08

‘형, 아버지는 지금 퇴근하셨어.’에서 주어는 ‘아버지’이다. ‘형’은 호칭어로 독립어에 속한다.

- ① ㄱ에서 ‘뜨거우시니’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해서 주어 ‘커피’를 높이고 있으므로 ‘뜨거우니’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ㄷ은 ‘자다’를 높여 주는 특수 어휘 ‘주무시다’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ㄹ에서 ‘가시래’는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가는 주체인 ‘준호’를 높이고 있다. 높임의 대상은 선생님이므로, 선생님을 높인 ‘가라고 하셔’나 이를 줄인 ‘가라셔’로 수정해야 한다. ⑤ ㄹ은 ‘불편한 점’을 높인 간접 높임이다. 간접 높임에서는 높임의 특수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므로 ‘계시면’을 ‘있으시면’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3강-A 문법 요소** 3. 높임 표현(상대 높임, 객체 높임)

**채움** 본문 206쪽

01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하십시오체	갑니다	갑니까?	가십시오	가시지요
하오체	가오, 가시오	가오?, 가시오?	가오, 가시오, 가구려	갑시다
하계체	가네, 감세	가는가? 가나?	가게	가세
해라체	간다	가냐? 가니?	가라	가자

**바로 확인** 본문 202쪽

- 1 ⑤      2 ②

**1** ㉔는 높임 특수 어휘인 ‘편찮으시다’를 통해 서술의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주체 높임에 해당한다. ① ㉓의 ‘드리다’를 통해서 부사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에 해당한다. ② ㉕의 ‘뵈다’는 목적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에 해당한다. ③ 목적어인 ‘할머니’를 높여 ‘데리고’ 대신 특수 어휘 ‘모시고’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에 해당한다. ④ 특수 어휘 ‘여쭙다’를 사용하여 부사어인 큰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에 해당한다.

**2** ㄴ의 ‘고객님, 이 적금의 이율이 제일 높으세요.’에서 ‘높으세요’의 주체는 ‘이율’이므로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선어말 어미 ‘-(으)시-’를 그대로 사용한 ‘높으십니다’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높으세요’는 ‘높아요’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02 여러 번 찾아왔었는데 과장님을 뵈기가 어렵더군요.
- 03 나는 선생님께 꽃을 선물로 드렸다.
- 04 선생님, 진로 문제에 대해 여쭙볼 게 있어요.
- 05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서울역에 가셨다.
- 06 아빠, 친구들과 선생님을 뵈러 갈게요.
- 07 선생님, 그건 부모님께 여쭙분 뒤 말씀드릴게요.

07

‘선생님, 그건 부모님께 물어본 뒤 말해 드릴게요.’에서 객체인 ‘부모님’을 높이기 위해 ‘물어본’을 ‘여쭙분’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말해 드릴게요.’를 ‘말씀드릴게요.’로 바뀌어야 한다.

1 ⑤    2 ⑤    3 ②

1 ㉠은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인 ‘모시다’를 사용하여 목적어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① ㉠은 종결 표현 ‘-습니다’를 사용하여 말을 듣는 상대(가족)를 높이고 있다. ② ㉠의 ‘-는구나’는 누나가 동생에 쓰는 종결 표현으로 높임의 의미는 없다. ③ ㉠의 용인 ‘계시다’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④ ㉠의 ‘께’는 부사격 조사로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2 ‘(아내가 남편에게) 빨리 준비해서 나갑시다. 약속에 늦겠어요.’에서 ‘나갑시다’는 격식체인 ‘하오체’의 청유형이고, ‘늦겠어요’는 비격식체 ‘해요체’의 평서형이다. 따라서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함께 사용한 사례로 적절하다.

① ‘있소’는 하오체의 평서형, ‘자오’는 하오체의 명령형이다. 즉 격식체인 하오체만을 사용하여 화자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며 예의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② 청자가 아이이지만 선생님이 다수 학생을 높여 표현하고 있는데, 비격식체인 ‘해요체’만 사용하고 있다. ③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만을 사용하고 있다. ④ ‘했는가?’라는 의문형, ‘앞게’라는 명령형을 사용했다. 이는 격식체인 예사 낮춤의 ‘하계체’만을 사용하고 있다.

3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는 종결 어미 ‘-습시다’를 통해 상대 높임을 실현하고, 특수 어휘 ‘모시고’를 통해서 목적어(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① 종결 어미 ‘-어요’를 통해 상대 높임은 실현하지만, 그 외의 높임법은 확인할 수 없다. ③ 특수 어휘 ‘드려’와 부사격 조사 ‘께’를 통해 부사어(객체) ‘할아버지’를 높였으나 그 외 높임은 확인할 수 없다. ④ 종결 어미 ‘-지요’를 통해 상대 높임은 실현되나 객체를 높이는 조사나 특수 어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덧붙여 이 문장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⑤ 상대 높임이나 객체 높임은 확인할 수 없고, 주격 조사 ‘-께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본문 213쪽

01 안 받았다	02 먹은 / 먹었던
03 경주였어	04 멋지다
05 있겠다 / 있을 것이다	06 예쁘던 / 예뻐던
07 싫어하더라	08 우승한
09 될	10 먹었다
11 △	12 △
13 ○	14 △

07

화자가 과거에 관찰한 기억을 떠올리며 하는 말이므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더-’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 ④    2 ③    3 ③    4 ①

1 ‘년 학교에 가면 혼났다.’는 ‘미래 상황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고 있다. 미래에 학교에 가면 일어날 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내일이 벌써 한가위더라.’에서 선어말 어미 ‘-더-’는 미래 상황을 새로 알게 된 경우에 쓰인 것이므로, ㄷ의 ‘과거 어느 때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할 때’ 사용되는 ‘-더-’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동사 ‘내다’의 어간에 붙은 관형사형 어미 ‘-(으)ㄴ’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3 ㉠은 동사 ‘사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것은 현재 시제이다.

① ㉠의 ‘-고 있구나’는 ‘진행상’을 나타내고, ② ㉠의 ‘-았-’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섬을 나타낸다. ④ ㉠의 ‘-고서’라는 연결 어미에 의해서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나타내고 있고, ⑤ ㉠의 ‘-ㄹ’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로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서고 있음을 나타낸다.



4 ①은 시험에 합격하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②와 ③은 '가능성'을, ④와 ⑤는 '추측'의 의미를 드러낸다.

**3강-A 문법 요소** 5. 피동 표현 / 사동 표현

**채움**  본문 222쪽

- 01 동생, 언니, 안겼다.
- 02 그림, 나, 보였다.
- 03 물고기, 영수, 잡혔다.
- 04 사과, 준이, 세 조각, 나뉘었다.
- 05 철수, 모기, 물렸다.
- 06 불, 바람, 꺼졌다.
- 07 사진, 리안이, 찢어졌다.
- 08 실, 현두, 끊어졌다.
- 09 준호, 웃긴다.
- 10 유리잔, 물, 채웠다.
- 11 아기, 우유, 먹인다.
- 12 언니, 동생, 안게 했다.
- 13 나, 그림, 보게 했다.
- 14 철수, 옷, 입게 했다.

**07**  
 '찢다'의 통사적 피동사는 '찢어지다'이다. '찢겨지다'의 경우 파생적 피동인 '찢기다'에 다시 '-아/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이므로 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바로 확인** 본문 223쪽


- 1 ①    2 ②    3 ②
- 
- 1 '성현이가 몸살에 걸렸다.'를 능동문으로 바꾼다면 능동문의 주어가 되는 '몸살'이 된다. 그런데 '몸살'은 무정 명사라서 동작성을 나타낼 수 없다. 그래서 '몸살이 성현이를 걸었다.'라는 문장은 자연스럽게 않다.  
 ②~⑤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②는 '엄마가 다습이를 안다.' ③은 '모기가 유희를 심하게 물었다.' ④는 '어떤 수학

자가 그 문제를 풀었다.' ⑤는 '민서가 아름다운 가을 경치를 보았다.'가 된다.

2 ㉠, ㉡은 목적어를 취하고 있으므로 '사동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피동사이다.  
 피동사와 사동사 중 '-이-, -히-, -리-, -기-'를 취하는 단어는 사동사일 수도 있고 피동사일 수도 있다. 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피동사는 자동사이므로 목적어를 취하지 않고, 사동사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를 취한다는 차이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피동사는 '-어지다'로 바꿀 수 있고, 사동사는 '-게 하다'로 바꿀 수 있다.

3 '메우다'의 주동사는 '매다'이므로 '메우다'는 용언의 어간 '메-'에 사동 접사 '-우-'가 한 번 쓰인 사동사이다. 나머지는 모두 ① 세우다(서-+-이-+-우-+-다), ③ 재우다(자-+-이-+-우-+-다), ④ 띄우다(뜨-+-이-+-우-+-다), ⑤ 태우다(타-+-이-+-우-+-다)로 이중 사동 접사 '-이-'와 '-우-'가 겹쳐 만들어졌다.

**3강-A 문법 요소** 6. 부정 표현

**채움**  본문 225쪽

- 01 안    02 못    03 안    04 못했다
- 05 않았    06 못했    07 보지 말자
- 08 올려놓지 마라
- 09 만나지 마라

**바로 확인** 본문 226-227쪽

- 1 ③    2 ②    3 ③
- 
- 1 ㄷ의 '철수는 수업료를 내지(않는다/못한다).' 중 의지 부정은 '-지 않는다'이다. 이 의지 부정은 '철수는 수업료를 안 낸다.'처럼 짧은 부정문도 가능하다.  
 2 '수민이는 어제 학원에서 지원이를 만나지 않았다.'라는 문장에서 부정이 미치는 범위는 '수민이', '어제', '학원', '지원이', '만나다'이다. ②는 의미상 이 다섯 성분 중 한 가

지도 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가능한 해석이다.

**3** ㄷ의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많은 준비를 했다.’에서 안 부정문은 실패를 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부정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말하는 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쓰인 것이라는 설명은 안 부정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다.

ㄱ은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반영된 부정문이다. ㄴ은 비가 오지 않는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ㄹ은 우종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ㅁ은 고향 집에 못 가는 이유가 ‘폭설’이라는 외부적 상황 요인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

의 동생이므로 ㉠에는 ‘내’가 들어가야 하며, ㉡에는 직접 인용에서의 “착해.”를 간접 인용으로 바꾼 ‘착하다고’가 들어가야 한다. ㉢에는 어제 말한 ‘내일’이 말하는 시점에서는 ‘오늘’에 해당되므로 ‘오늘’이 들어가야 하며, ㉣에는 아들의 입장에서 주체 높임 표현을 사용한 부분을 자신의 입장으로 바꾸어 ‘있으라고’로 써야 한다.

**2** <보기>에서 인용 발화는 어떤 사람의 말을 남에게 전달하는 말이라고 했다. 덧붙여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 일을 전달하는 것도 인용 발화에 속한다고 했다. 그런데 ①은 자신의 감정(기쁘다)을 객관화하여 직접 표현하고 있을 뿐 남의 말이나 매체의 말을 전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용 발화라고 보기 어렵다.

**3강-A 문법 요소** 7. 인용 표현

**채우기** 본문 229쪽

**01** 산책하겠냐고

**02** 어머니께는 내가 말씀드리라고

**03** 자기가 하겠다고

**04** 자기가 나 대신 간다고

**05** 내가 앉아 있는 그곳에 가만히 있어!

**06** 밥 먹으러 가자.

**07** 나는 설현이를 좋아해.

**08** 어떤 노래를 좋아하세요?

**05** ‘내가 앉아 있는 이곳에 가만히 있으라’는 간접 인용을 철수의 입장에서 다시 쓰면 ‘내가’는 ‘네가’가 되고, ‘이곳에’는 ‘그곳에’가 된다. 간접 인용 표현에서 ‘있으라고’는 명령문이 바뀐 형태이다.

**바로 확인** 본문 230쪽

**1** ④ **2** ①

**1**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지시, 높임, 종결, 시간 표현 등을 말하는 사람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바꾸어야 한다. 영수 어머니가 말한 ‘네 동생’은 말하는 사람

**집중 훈련 OX** 본문 233~239쪽

**01** (1)○ (2)○ (3)× (4)○ (5)○ (6)○ (7)○ (8)×

**02** (1)× (2)× (3)× (4)× (5)○ (6)× (7)○ (8)×

**03** (1)○ (2)○ (3)× (4)○ (5)× (6)○ (7)○ (8)○

**04** (1)× (2)○ (3)○ (4)○ (5)○ (6)○ (7)× (8)○

**05** (1)○ (2)○ (3)× (4)○ (5)○ (6)× (7)× (8)○

**06** (1)○ (2)○ (3)○ (4)○ (5)× (6)○ (7)○ (8)×

**07** (1)○ (2)○ (3)× (4)○ (5)○ (6)× (7)○ (8)○

**08** (1)× (2)× (3)× (4)○ (5)× (6)× (7)× (8)○

**09**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11** (1)× (2)○ (3)× (4)× (5)× (6)○ (7)× (8)○

**12** (1)× (2)○ (3)○ (4)× (5)× (6)× (7)× (8)○

**01**

(1) ‘꽃이 아름답다.’가 부사형 어미 ‘-게’와 결합하여 ‘꽃이 아름답게’라는 부사절로 안겨 있으며, 전체 문장에서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하늘’이 부사격 조사 ‘에서’와 결합한 ‘하늘에서’와 부사 ‘평평’은 서술어 ‘내리고 있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부사어 ‘너무’는 서술어 ‘샀다’가 아니라 관형어 ‘헌’을 수식하고 있다.

(4) ㄱ의 ‘엄마와’, ㄴ의 ‘취미로’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ㄱ에서 ‘엄마와’가 생략되면 비문이 된다는 점으로 볼 때, ‘엄마와’는 필수 부사어이다.

- (5) ㄱ의 '재로'는 체언 '재'에 부사격 조사 '로'가 결합한 부사어이고, ㄴ의 '재가'는 체언 '재'에 보격 조사 '가'가 결합한 보어이다. ㄱ에서 '재로'가 생략되면 비문이 된다는 점에서 '재로'가 필수 부사어임을 알 수 있고, ㄴ에서 '재가' 역시 생략되면 비문이 된다는 점에서 필수 문장 성분임을 알 수 있다.
- (6) '과연'은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의 의미로, '그 아이는 똑똑하구나.'를 수식한다.
- (7) '빠르게'는 '빠르다'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하여 부사어가 되었고, '학교에'는 체언 '학교'에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하여 부사어가 되었다.
- (8) 부사어 '만약'과 '비록' 모두 일부 절만 수식하고 있지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지는 않다. '만약'은 부사절 '이것이 진품이라면', '비록'은 부사절 '반대가 있더라도'를 수식하고 있다.

## ②

- (1) '되었다'는 주어(계절이)와 보어(가을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2) '닭았다'는 주어(오빠는)와 부사어(아빠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3) '피었다'는 주어(장미꽃이)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 (4) '고치셨다'는 주어(아버지께서)와 목적어(집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5) '여겼다'는 주어(그는)와 목적어(직업을), 부사어(천직으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6) '읽었다'는 주어(나는)와 목적어(책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7) '붙였다'는 주어(누나가)와 부사어(편지 봉투에), 목적어(우표를)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8) '샀다'는 주어(동생이)와 목적어(책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③

- (1) '비슷하다'는 두 개의 대상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이 많은 상태에 있음을 드러내는 서술어로, '이것과'와 같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 (2) '이탈하였습니다'는 어떤 범위나 대열 따위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떨어져 나갔다는 의미를 지닌 서술어로, '궤도에서'와 같은 부사어나 '궤도를'과 같은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 (3) 서술어 '만났습니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로, '공원에서'라는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 (4) '삼았다'는 어떤 대상과 인연을 맺어 자기와 관계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를 지닌 서술어로, '그 용감한 기사'와 같은 목적어와 '사위로'와 같은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 (5) 서술어 '방문했습니다'는 주어와 목적어만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로, 부사어 '오후에'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 (6) '적합하다'는 일이나 조건 따위에 꼭 알맞다는 의미를 지닌 서술어로, '벼농사에'와 같은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 (7) '주셨다'는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했다는 의미를 지닌 서술어로, '지혜에게'와 같은 부사어와 '선행상'과 같은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 (8) '빌렸다'는 남의 물건 따위를 나중에 도로 돌려주거나 대가를 갚기로 하고 얼마 동안 썼다는 의미를 지닌 서술어로, '친구에게'와 같은 부사어와 '5만 원'과 같은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 ④

- (1) '나이'에 적합한 표현은 '크고 작다'가 아니라 '많고 적다'이므로, '많고 적음'으로 수정해야 한다.
- (2) '아버지에 생신'은 '아버지'가 '생신'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관형격 조사 '의'를 써서 '아버지의 생신'으로 고쳐야 한다.
- (3) '-던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다. 반면 '-든지'는 나열된 것들 중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문맥에서는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해라.'라고 고쳐야 한다.
- (4) '결코'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의 의미를 지니는 부사로, '아니다, 없다, 못하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쓰인다. 따라서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로 고쳐야 한다.
- (5) '그녀는 노래와 춤을 추고 있다.'에서 '노래'와 관련된 서술어 '부르다'가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그녀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다.'로 수정해야 한다.
- (6) '열려지지'는 '열-+-리-+-어지-+-지'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열리지' 또는 '열어지지'로 고쳐야 한다.

- (7) '교복을 입고 있다.'는 동작이 진행 중인 경우(진행상)와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완료상)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 표현이다. 하지만 시간 부사 '지금'을 넣더라도 이 중의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언니가 교복을 입는 중이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 (8) '나오셨습니다'가 주어 '음료'를 높이고 있으므로, 높임 표현이 잘못되었다. '주문하신 음료가 나왔습니다.'라고 고쳐야 한다.

**05**

- (1) ㉠의 '삼았다'는 주어 '그는' 이외에도 목적어 '위기를'과 부사어 '좋은 기회를'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2) ㉡의 '바다가'는 서술어 '파랗다'의 주어이고, '눈이'는 '부시게'의 주어이다.
- (3) ㉢은 '동주는 별을 응시했다.'와 '별이 반짝이다.'라는 두 개의 홑문장이 결합된 겹문장이다. '별이 반짝이다.'가 관형절로 전체 문장에 안겨 있는데, 이때 '별을'은 안은문장에서는 목적어이지만 안긴문장에서는 주어이다.
- (4) ㉠에는 '(기회가) 좋다.'라는 홑문장이 관형절로 안겨 있으므로, '좋은'은 안긴문장의 서술어이다. ㉢에도 '별이) 반짝이다.'라는 홑문장이 관형절로 안겨 있으므로, '반짝이느'은 안긴문장의 서술어이다.
- (5) ㉡의 '눈이 부시게'는 전체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며, ㉢의 '반짝이느'은 전체 문장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 (6) ㉠에는 '(기회가) 좋다.'라는 홑문장이 관형절로 안겨 있으며, ㉡에는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하다.'라는 문장이 명사절로 안겨 있다.
- (7) ㉡의 안긴문장은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하다.'이므로 '벼농사에'는 안긴문장의 부사어가 맞으나, ㉢의 '눈이 부시게'는 '눈이 부시다'가 부사절이 된 형태이므로 안은문장의 부사어이다.
- (8) '응시했다'는 주어(동주는)와 목적어(별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며, '몰랐다'도 주어(우리는)와 목적어(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06**

- (1) ㉡의 명사절은 '그 사람이 범인임'이다. 명사절 안에 관형어 '그'가 있다.
- (2) ㉢에 안긴문장 '그 사람이 범인임'은 주격 조사 '이'와

- 결합하여 전체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 (3) ㉠에는 '(선수가) 부상을 당하다.'가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 결합한 '부상을 당한'이 관형절로 안겨 있다. 관형절과 안은문장의 문장 성분 '선수가'가 중복되므로, 관형절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었다.
- (4) ㉡의 안긴문장은 '성적이 많이 오르기'이며, ㉢의 안긴문장은 '그 사람이 범인임'이다. ㉠은 ㉢과 달리 안긴문장 속에 부사어 '많이'가 있다.
- (5) ㉡의 '장애물 달리기'는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없으므로 절이 아닌 '구'이다. 따라서 ㉠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없다. ㉢에는 '성적이 많이 오르기'가 명사절로 안겨 있으며 이는 안은문장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
- (6) ㉡의 안긴문장은 '옆집에 사는'으로, '(누나가) 옆집에 살다.'가 관형사형 어미 '-느'와 결합한 것이다. 안긴문장의 주어 '누나가'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중복되어 안긴문장에서는 생략되었다.
- (7) ㉡의 안긴문장은 '부상을 당한'으로, 뒤에 오는 주어 '선수'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의 안긴문장은 '옆집에 사는'으로, 뒤에 오는 주어 '누나가'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 (8) ㉡의 안긴문장은 '(누나가) 옆집에 사는'으로, 목적어가 없다.

**07**

- (1) ㉠에 쓰인 '-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며, '-구나'는 감탄문으로 문장을 종결하는 감탄형 종결 어미이다.
- (2) ㉡에 쓰인 어미는 관형사형 어미 '-느'으로, 어말 어미 중 전성 어미에 속한다. '-느'은 동사의 어간 '청소하-'에 붙어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3) ㉢에 쓰인 '-겠-'은 주체의 의지가 아닌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 (4) ㉠에는 동사 '권하-'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였고, '읽-'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였다. 모두 동사에 붙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5) ㉡에 쓰인 '-겠-'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며, '-지만'은 앞뒤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연결 어미로, 어말 어미에 속한다.
- (6) ㉢에 쓰인 '-아서'는 원인을 나타내는 어말 어미이다. 어말 어미는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를 포함한다. '-섯-'은 높임을 나타내는 '-시-'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이 결합한 말로, 두 선어말 어미가 함께 쓰였다.

- (7) ㉠의 '없으십니다'에 쓰인 '-(으)시-'는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로, 선생님의 소유물인 자동차를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또한 종결 어미 '-ㅂ니다'를 통해 청자를 높이고 있다.
- (8) ㉡의 '불었다'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하였고, '거센'에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였다.

**08**

- (1) ㉠의 안긴문장은 '자식이 건강하다.'에 명사형 어미가 붙은 명사절이며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 (2) ㉡의 안긴문장은 '연락도 없다.'에 부사 파생 접사가 붙은 부사절이며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 (3) ㉢의 안긴문장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에 명사형 어미가 붙은 명사절이며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 (4) ㉣의 안긴문장은 '내가 늘 공원에서 쉬다.'에 관형사형 어미 '-던'이 붙은 관형절이다. 이때 부사어 '공원에서'가 안은문장과 중복되므로, 안긴문장에서는 생략되었다.
- (5) ㉤의 안긴문장은 '과제가 아주 어렵다.'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관형절이며, 안은문장과 공통된 성분인 '과제'가 생략되었다. 즉 생략된 문장 성분은 주어이다.
- (6) ㉥의 안긴문장은 '마음씨가 착하다.'이며, 서술절이다.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 (7) ㉦의 안긴문장 '돈 없다.'는 부사 파생 접사가 붙어 부사절로 안겨 있으며,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 (8) ㉧의 안긴문장 '동생이 빵을 사다.'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붙어 관형절로 안겨 있다. 이때 목적어 '빵'이 안은문장과 중복되므로, 안긴문장에서는 생략되었다.

**09**

- (1) ㉠에서 문장의 주체는 '할머니'이다.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계시다'를 사용하고 있다.
- (2) ㉡에서 문장의 주체는 '누나'이고, 객체는 '어머니'이다.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높임의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고 있다.
- (3) ㉢에서 문장의 주체는 '할아버지'이다.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였고, 서술어 '가신다'에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다.
- (4) ㉣에서 문장의 주체는 '저(나)'이고, 선생님은 서술의 객체이면서 말을 듣는 상대방이다. '말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르기고 하고 자기 말을 낮춰 이르기고 하는데,

- 여기서는 주체인 '저'의 말을 낮춰 이르고 있다.
- (5) ㉤에서 상대방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서술어 '왔습니'다'에서 높임의 종결 어미 '-습니다'(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 (6) ㉥에서 '여러분'은 주체이자, 상대방이다. 서술어 '오세요'(오-+-시-+-어요)에서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를 높이면서, 종결 어미를 통해 상대방도 높이고 있다.
- (7) ㉦에서 '께'와 '여쭙어서'는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 (8) ㉧에서 높임의 대상인 '과장님'은 말을 듣는 상대방(청자)이다. 해요체를 사용하여 상대를 높이고 있다.

**10**

- (1) ㉠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겠-'은 미래의 사건이 아닌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 사용되었다. '거기에는 눈이 왔겠다.'에서는 '-겠-'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았-'과 함께 쓰여 눈이 과거에 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며, '지금 거기에는 눈이 오겠지.'에서는 '-겠-'이 '지금'이라는 시간 부사와 함께 쓰여 현재 눈이 오고 있는 상황을 추측하고 있다.
- (2) ㉡의 '그가 집에 갔다.'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만, '막차를 놓쳤으니 나는 집에 다 갔다.'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았-'은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
- (3) 일반적으로 관형사형 어미 '-르'는 동사와 형용사에 결합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그런데 ㉢에 사용된 관형사형 어미 '-르'의 경우, '내가 떠날 때 비가 올 것이다.'에서는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지만, '내가 떠날 때 비가 왔다.'는 '떠날'의 시점이 발화 이전이므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
- (4) ㉣에서 '그는 지금 학교에 간다(가-+-ㄴ-+-다).'에 쓰인 선어말 어미 '-ㄴ-'은 현재 시제로 쓰였으나, '그는 내년엔 진학한다고(진학하-+-ㄴ-+-다+고) 한다.'에 쓰인 '-ㄴ-'은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
- (5) ㉤에서 형용사 '작다'가 현재 시제로 쓰일 때에는 '오늘 보니 그는 키가 작다(작-+-다).'와 같이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와 결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6) ㉥의 '어제 고향 친구가 왔다.'와 '어제 고향 친구가 왔었다.'를 비교해 보면, 선어말 어미 '-었-'만 쓰였을 때 보다 중첩인 '-았었-'이 쓰인 경우에 현재와 단절된 과거의 사건임이 강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 (7) ㉦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디-'는 과거에 화자가 경험한 사실뿐만 아니라 '그 집 김밥이 맛있다고 하더라.'에

서처럼 남에게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말할 때에도 쓰이고 있다.

- (8) ㉠에서 동사 ‘뛰다’에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지만, 형용사 ‘작다’에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1

- (1) ㉠은 ‘눅눅하다’가 능동사 또는 주동사로 사용되었으므로 피동문이라고 할 수 없다. 서술어 ‘눅눅하다’와 ‘보였다’ 모두 주어만 필수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 (2) ㉡은 사동사 ‘눅눅하다’가 쓰인 사동문이며, 주어(아이들)와 목적어(얼음을)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또한 ㉢의 서술어 ‘보았다’도 주어(사람들)와 목적어(산)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3) ㉣은 사동문이며, 서술어 ‘눅눅하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반면 ㉤의 서술어 ‘보였다’는 주어만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 (4) ㉥은 주어 ‘사람들’이 산을 보는 행위를 스스로 행하는 능동문이자 주동문이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사동문이 아니다. 한편 ㉦의 서술어 ‘쫓기다’는 주어(도둑)와 부사어(경찰에게)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5) ㉧은 ‘보다’의 어간에 피동 접사 ‘-이-’가 결합한 파생적 피동문이다. 서술어 ‘보였다’는 주어만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한편 ㉨의 서술어 ‘쫓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6) ㉩의 ‘보였다’는 주어만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지만, ㉢의 ‘보았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7) ㉪은 주어 ‘경찰’이 도둑을 쫓는 행위를 스스로 행하는 능동문이자 주동문이다. 서술어 ‘쫓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8) ㉫은 ‘쫓다’의 어간에 피동 접사 ‘-기-’가 결합한 파생적 피동문이다. 서술어 ‘쫓기고 있다’, 곧 ‘쫓기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의 서술어 ‘눅눅하다’도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12

- (1) A에서 ㉠(자동사)과 ㉡(타동사)의 주어 ‘동생이’는 사동문으로 바뀐 C에서 각각 목적어와 부사어로 나타나고 있다.
- (2) ㉠에서 A의 서술어 ‘숨는다’는 주어만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지만, B의 서술어 ‘숨긴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에서 A의 서술어 ‘먹는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지만, B의 서술어 ‘먹인다’는 주어와 부사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3) ㉠에서 A의 주어 ‘동생이’는 B에서 목적어 ‘동생’으로 나타나고 있다. ㉢ 역시 A의 주어 ‘방 온도’가 B에서 목적어 ‘방 온도를’로 나타나고 있다.
- (4) ㉠의 자동사 ‘숨는다’(A)에 대응하는 사동사 ‘숨긴다’(B)가 있다.
- (5) ㉠과 ㉢의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바뀐 문장은 모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뿐인 홀문장이다.
- (6) ㉣의 ‘먹다’와 ㉤의 ‘찬다’는 모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다. 이 중 ㉤의 서술어 ‘찬다’(A)는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으나, ㉣의 서술어 ‘먹는다’(A)는 대응하는 사동사인 ‘먹인다’(B)가 있다.
- (7) ㉢의 서술어 ‘낮다’(A)는 형용사이지만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과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이 모두 존재한다. 한편 ㉤의 서술어 ‘찬다’(A)는 동사이다.
- (8) A가 B나 C로 바뀔 때, ㉠~㉢ 모두에서 새로운 주어 ‘누나가’가 추가되었다.

# 4장 국어 역사와 규범

## 1강-A 고대 국어

**채움**  본문 245쪽

01	春	
	봄	
	춘	
02	密	
	빽빽할	
	밀	
03	此	唱
	이	부를
	차	창

### 01~03

**01**의 ‘간봄’에서 ‘봄’은 한자 春의 뜻 ‘봄’을 차용하였다. **02**의 ‘밀성군’의 ‘밀’은 한자 密의 소리 ‘밀’을 차용하였다. 한편, ‘추화군’의 ‘추’는 한자 推의 소리 ‘추’로 읽지만, 뜻이 ‘밀(다)’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추화군’은 한자의 뜻인 ‘밀(推)’을 취해 적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뜻과 유사한 소리를 가진 한자 ‘밀(密)’을 취해 ‘밀성군’으로 바꿔 적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03**은 ‘이에’의 ‘이’를 적을 때 한자 此의 뜻 ‘이’를 차용하였고, ‘불러(→ 불리)’의 ‘불’을 적을 때 한자 唱의 뜻 ‘부를(→ 불)’을 차용하였다.

## 바로 확인

본문 246~247쪽

- 1 ⑤    2 ⑤    3 ②


**1** ‘구결’은 한문 원문을 읽을 때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 한자어에 없는 조사나 어미를 한자어로 추가하여 표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구결로 표기된 글에서 구결 글자를 빼면 그대로 한문 원문이 된다. 한편, ‘이두’는 한문을 우리말 어순으로 재배열하고, 조사나 어미를 추가하여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두는 조사나 어미를 빼도 온전한 한문 원문이 되지 않는다.

**2** ㉠의 한자 ‘隱’은 ‘숨다’라는 의미와는 상관없이 우리말 조사 ‘은’을 표시하기 위해 소리가 차용되었다. ㉡ 역시 ‘약속하다’라는 의미와 상관없이 우리말 어미 ‘-기’를 표현하기 위해 소리가 차용된 것이다. 즉 ㉠과 ㉡은 모두 형식 형태소를 향찰로 표기한 것이다.

**3** <자료 1>에서 ‘이두’는 국어의 문장 구조에 따라 단어를 배열했다고 했으므로 ‘나는 집에 간다.’를 표기하려면 서술어 ‘간다(去)’는 문장의 제일 뒤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我隱去宙以’에서처럼 중간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해석을 달리 해야 한다. ㉢의 月隱明可에서 ‘月隱’은 ‘달은’에 해당하는데, ‘隱’은 조사 ‘은’을 나타내므로 형식 형태소이다.

## 1강-B 중세 국어

1. 한글의 창제

**채움**  본문 250쪽

01	ㅅ, ㅆ, ㅈ	02	ㄴ	03	ㅁ
04	ㅅ, ㅎ	05	ㅌ		
06	ㅅ, ㄹ, ㅅ	07	ㅇ		
08	ㅣ	09	ㅇ, ㅅ, ㅈ, ㅊ, ㅌ, ㄹ, ㄴ		
10	ㅇ, ㅅ, ㅈ, ㅊ, ㅌ	11	ㅣ		

### 06

이체자는 기본자에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만들어진 글자이다. 이체자에는 ‘ㅇ(옛이음)’과 ‘ㄹ’, ‘ㅅ(반치음)’이 있다. ‘ㅎ(여린히음)’은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지만, 이체자가 아니라 ‘ㅇ’에 획을 더한 가획자이다.

## 바로 확인

본문 251쪽

- 1 ④    2 ⑤

**1** 가획자는 소리의 세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체자(ㅅ, ㄹ, ㅇ)는 모양을 달리하여 만든 글자이므로 소리의 세기와는 관련이 없다.

2 ㉔에서 제시한 ‘가, 거’를 보면, 초성 ‘ㄱ’이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중성 ‘나, ㄱ’을 오른쪽에 붙여 썼다. 또한 ‘ㄱ, 고’는 중성을 초성의 아래쪽에 붙여 사용했다. 이는 현대 국어와도 동일한 방법이다.


①, ② ㉕을 통해 초성이 받음 기관을 본떠 기본자 ‘ㄴ’, 가획의 원리로 ‘ㄷ, ㅌ’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㉖를 통해 중성은 기본자를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고 이를 합용하여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㉔의 모든 글자(순경음), ㉔의 ‘ㄸ, 시, ㅃ, ㅍ’이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㉔은 두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란히 적는 병서로,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각자 병서’(ㄸ, ㅃ, ㅍ, ㅆ, ㅈ, ㅊ)와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합용 병서’(시, ㅃ, ㅍ)를 확인할 수 있다.

① ‘ㅌ’은 대체로 소멸되었다. ② 성조는 소멸된 이후 일부가 긴소리와 짧은소리로 남았다. ③ 어두 자음군은 중세 국어 초기에는 모두 받음되었으나 16세기에 와서 된소리로 바뀌기 시작했다. ⑤ ‘ㄴ’은 16세기에 먼저 둘째 음절 이하에서 ‘ㄴ’로 변했고, 18세기 근대 국어 시기에 첫음절에서 ‘ㄴ’로 변했다.

2 ㉕의 ‘아·니·뵤·씩’의 왼쪽에 찍은 방점을 보고 판단해 보면 ‘아’는 왼쪽에 점이 없으므로 ‘평성’, ‘니’는 하나이므로 ‘거성’, ‘뵤’은 두 개이므로 ‘상성’, ‘씩’은 하나이므로 ‘거성’이다. 이를 소리의 높낮이에 적용하면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낮았다가 높은 소리, 높은 소리’가 순차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3 (가)의 ㉔에서는 오늘날 단모음인 ‘애, ㅐ’가 중세 국어에서는 이중 모음으로 사용되었다는 정보인데, ‘니르·고져’에는 이에 해당하는 음운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㉔와 같은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1강-B 중세 국어** 2. 음운

채움  본문 256쪽

01 ㅃ → 반모음 ‘ㄴ’	02 ㅃ → 소실
03 ㅌ → ㅊ, ㅍ → 소실	
04 ㄴ → ㄷ	05 ㅌ → ㅊ
06 ㅃ → ㅍ + ㅍ	07 ㅆ, ㅈ
08 ㅍ, ㅍ	09 -으니

03 ‘ㅌ’와 ‘ㅌ’이 달라졌다. ‘ㅌ’는 음절 첫소리에서 ‘ㄴ’로,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ㅌ’로 바뀌었고, ‘ㅌ’은 음운이 소실되었다.

**바로 확인** 본문 257-258쪽

- 1 ④    2 ②    3 ⑤

1 중세 국어 시기에는 ‘애’와 ‘ㅐ’가 이중 모음이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단모음으로 발음되고 있다. 더불어 ‘니’와 ‘ㄴ’ 또한 중세 국어에서는 이중 모음 [we]와 [wi]로 발음되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ø]와 [y]로 단모음화되었다. 즉 중세 국어의 이중 모음은 현대 국어에 이르러서는 그 수가 줄었다.

**1강-B 중세 국어** 3. 표기 / 어휘

채움  본문 262쪽

01 사르미	02 말씩미
03 모새	04 바블
05 ㅃ들	06 사스미
07 도즈기	08 ㅃ르매
09 확	10 축
11 확	12 이
13 축	14 확
15 이	

01~08 주격 조사 ‘이’를 제외한 목적격 조사 ‘을/을’, 부사격 조사 ‘애/에’, 관형격 조사 ‘의/의’는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에 따라 선택된다. 또한 앞말의 받침은 뒤에 붙는 조사의 초성으로 옮겨 오기 때문에 ‘사름+이’는 ‘사르미’로, ‘말춤+이’는 ‘말씩미’로, ‘뭇+애’는 ‘모새’로, ‘뱃+을’은 ‘바블’로, ‘뽕+을’은 ‘ㅃ들’로, ‘사슴+이’는 ‘사스미’로, ‘도죽+이’는 ‘도즈기’로, ‘ㅃ름+애’는 ‘ㅃ르매’로 적는다.



## 09, 11, 14

‘세수하다’는 그 의미가 ‘손’만 씻는 것에서 ‘손과 얼굴’을 씻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영감’은 그 의미가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을 이르는 말’에서 ‘나이가 많은 남자를 이르는 말’로 확대되었다. ‘지갑’은 그 의미가 ‘종이로 만든 물건’에서 ‘가죽이나 형겔 따위로 만든 물건’으로 확대되었다.

## 10, 13

‘겨집’은 ‘보통의 여자’를 모두 의미하는 말이었지만, ‘계집’으로 형태가 바뀌고 그 의미도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축소되었다. ‘얼굴’은 ‘사람의 몸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었지만,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으로 축소되었다.

## 12, 15

‘쓰다’는 ‘값어치가 있다.’에서 반대로 ‘값이 저렴하다.’로 바뀌었고, ‘식식하다’는 ‘엄숙하다.’에서 ‘굳세고 위세 있다.’의 ‘씩씩하다’로 바뀌었다. 따라서 두 단어 모두 의미가 다른 의미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 바로 확인

본문 263쪽

1 ④    2 ④

1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종성에서 원칙적으로 8자(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 허용하는 8종성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ㄱ의 ‘ㅁ춤내’는 종성에 ‘ㅁ’을 썼기 때문에 8종성법이 적용되었지만, ㄴ의 ‘꽃’은 종성에 ‘ㅅ’을 썼기 때문에 8종성법을 설명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이를 통해 8종성법은 중세 국어 표기법의 대표적 특징이지만 모든 문헌에서 철저히 지켜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①의 중세 국어 ‘어린’은 오늘날의 ‘(나이가)어리다’의 뜻과 달리 ‘어리석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름’은 중세 국어 시기에는 ‘열매’의 의미로 사용되어 오늘날 계절을 가리키는 여름과 의미가 달랐다. ‘하나라’, ‘하느니’는 현대 국어의 ‘(행위를)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맑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의 ‘전츠’나 ‘뭇썩’은 오늘날 쓰지 않고, ‘까닭’, ‘흔들리다’와 같은 말을 사용한다. ③ <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국어 시기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⑤의 ㄱ의 ‘쁘들(뜻을)’, ‘노미(놈이)’, ㄴ의 ‘기픈(깊은)’과 ‘벼락매(바람에)’를 보면, 중세 국어 시기에는 이어 적기(연철) 형태로 표기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적기는 한 음절의 종성을 다음 글자의 초성으로 옮겨서 쓰는 방법을 가리킨다.

2 ‘암-+닭’을 ‘암탉’이라고 쓰는 것은 ‘새끼를 배거나 열매를 맺는’의 뜻을 가진 접두사 ‘암-’이 중세 국어에서는 ‘암ㅎ’, 즉 ‘ㅎ’으로 끝나는 체언이었기 때문이다.

### 1강-B

### 중세 국어

4. 문법



본문 268쪽

- |   |         |
|---|---------|
| 01 이  | 02 이    |
| 03  | 04 생략   |
| 05 익  | 06 의    |
| 07 주  | 08 상    |
| 09 객  | 10 주, 상 |
| 11 객  | 12 객    |
| 13 대왕하 었더 나를 모르시 <sup>㉠</sup> 잇고            |         |
| 14 왕이 무로되 부터 우희 또 다른 부터가 잇 <sup>㉡</sup> 니잇가 |         |
| 15 네 겨집 그려 가 <sup>㉢</sup> 던다.               |         |
| 16 이 쓰리 너희 <sup>㉣</sup> 종가                  |         |

## 10

‘모르시<sup>㉠</sup>잇고’는 ‘모르-+-시-+-느-+-잇-+-고’로 분석된다. 여기서 ‘-시-’는 나를 모르는 주체인 ‘대왕’을 높이는 선어말 어미이고 ‘-잇-’은 말을 듣는 상대인 대왕을 높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 바로 확인

본문 269-270쪽

1 ④    2 ②    3 ③

1 ㄴ.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잇-’이 존재하였다.

ㄹ. 중세 국어에서 설명 의문문(‘고/오’)과 판정 의문문(‘가/아’)의 종결 표현이 달랐다.

ㄱ. 중세 국어에는 관형격 조사로 ‘ㅅ’ 외에도 ‘히/의’ 등이 있었으므로 잘못된 내용이다. ㄷ.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에는 ‘가’가 없고 ‘이’만 존재하였으므로 잘못된 내용이다.



1 ③    2 ①    3 ④    4 ⑤

**1** ‘익어, 익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어간과 어미를 분리해서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기 때문에 ㉠에 해당한다. 만약 ㉠에 근거하여 소리대로 적었다면 ‘이거, 이근’으로 적어야 한다.

**2** 제시한 문장은 ‘나도 언니만큼 요리를 잘할 수 있다.’처럼 띄어 써야 한다. 여기서 ‘만큼’은 체언의 뒤에 붙어, 비교의 대상과 거의 비슷한 정도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로써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한편 ‘까다롭게 검사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 ‘-은, -는, -던’ 뒤에 쓰여, 원인이나 근거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거나 ‘그는 아들에게 희망을 건 만큼 실망도 컸다.’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그와 같은 정도나 한도를 나타내는 말일 때 ‘만큼’은 의존 명사로 사용된다.

**3** ‘깨뜨려 보았다’에서 ‘깨뜨리다’는 ‘깨다’의 어간에 접미사 ‘-뜨리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따라서 앞말이 합성 용언도 아니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 있지도 않기 때문에 ‘깨뜨려보았다’처럼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참고로 합성 용언이란 ‘떠내려가다, 덩벼들다’와 같이 두 어근이 합성하여 새로운 용언으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4** 불경을 외우는 것을 ‘염불’이라 하는데, 그 불심을 실천할 마음 없이 입으로만 외는 염불을 접두사 ‘공(空)’을 붙여 ‘공염불’이라 한다. 따라서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를 붙여 만든 말이기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공념불’이 아닌 ‘공염불’로 적는다.

①은 둘째 음절에 나온 한자음은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본음 그대로 사용한 사례이다. ②와 ③은 한자음 첫 소리에 ‘ㄹ, ㄴ’을 꺼리는 두음 법칙을 적용한 말이다. ④는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과 ‘률’은 각각 ‘열’과 ‘울’로 적는다는 규정을 적용한 사례이다.



본문 288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ㄱ(△), ㄴ(○), ㄷ(○)		
14 ㄱ(○), ㄴ(△), ㄷ(△)		
15 ㄱ(△), ㄴ(△), ㄷ(○)		
16 ㄷ	17 ㄱ	18 ㄴ

**03**

‘뭍음’은 ‘뭍+ -음’이 결합한 형태로, 소리대로 적으면 ‘무꿈’이 된다. 그러나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뭍음’으로 적고 있다.

**09**

‘마중’은 ‘맞+ -웅’이 결합한 형태로,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은 단어이다.

**13**

‘위+턱’은 뒷말이 거센소리로 시작하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위+물’은 ‘윗물[윈물]’, ‘위+길’은 ‘윗길[위길/윈길]’로 표기한다.

**14**

‘그네+줄’은 ‘그넛줄[그네줄/그넛줄]’로 표기하며, ‘가로+줄[가로줄]’과 ‘세로+줄[세로줄]’은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15**

‘차+간’은 한자어로 된 합성어지만 ‘차간[차간]’으로 표기한다. 한자어 합성어 중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한자어는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튀간, 횡수’ 총 6개뿐이다.

1 ⑤    2 ⑤    3 ①

1 ‘나드리’가 아닌 ‘나들이’로 적는 것은 어간에 ‘-이’나 ‘-음’처럼 널리 사용하는 접미사가 붙어 명사로 된 경우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즉 ‘나들이’는 어간 ‘나들-’과 어미 ‘-이’를 모두 밝혀 적는 예이다.

③ ‘무덤’은 용언의 어간 ‘묻-’에 명사 파생 접미사 ‘-임’이 붙어서 된 말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④ ‘올가미’는 용언의 어간 ‘올-’에 널리 사용하지 않는 ‘-아미’가 붙어 된 말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2 ‘마개’는 용언의 어간 ‘막-’에 접미사 ‘-애’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인데, 접미사 ‘-애’가 널리 사용되는 접미사가 아니어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마개’로 적고 있다. 따라서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붙었다는 탐구는 적절하지 않다.

3 ‘도매-가격’과 ‘도매-값’은 둘 다 합성 명사이다. 따라서 ㉠의 조건이 두 단어를 구분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도매가격’은 두 개의 한자어 ‘도매(都賣)’와 ‘가격(價格)’으로 이루어진 합성 명사이다. 이에 반해 ‘도매값’은 한자어 ‘도매(都賣)’와 고유어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는 ㉠가 아니라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다음 중 하나일 것-고유어가 포함되어야 하는 조건) 때문에 갈린 것이다.

② ‘전세방(傳貰房)’은 두 개의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이고, 아랫방은 고유어(아래)와 한자어(방(房))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므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 것은 조건 ㉠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버섯국’은 ‘버섯+국’이 결합한 합성어로서, 앞말 ‘버섯’이 자음(ㅅ)으로 끝난 단어이고, ‘조개국’은 ‘조개+국’이 결합한 합성어로서, 앞말 ‘조개’가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했다. ④ ‘인사말’은 ‘인사(人事)+말’로 결합했지만 ‘ㄴ’ 소리가 덧나지 않는데 반해 ‘존대(尊待)+말’이 결합하면 [존덴말]로 ‘ㄴ’ 소리가 덧난다. 그래서 사이시옷 표기를 하여 ‘존댓말’로 표기한다. ⑤ ‘나무+껍질’의 결합인 ‘나무껍질[나무껍질]’은 뒷말의 첫소리가 본래부터 된소리였지만, ‘나무+가지’의 결합인 ‘나무가지[나무가지]’는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이시옷 표기를 한 것이다.



- |              |               |
|--------------|---------------|
| 01 갓장이 / 멧쟁이 | 02 오뚝이 / 삼촌   |
| 03 위층 / 옷옷   | 04 시골내기 / 풋내기 |

01

‘갓장이, 갓쟁이’ 중에서는 ‘갓’을 만드는 기술자와 관련된 말이므로 ‘갓장이’로 표기한다. ‘멧쟁이, 멧쟁이’ 중에서는 기술과 관련되지 않은 말이므로 ‘멧쟁이’로 표기한다.

1 ③    2 ④

1 어깨에서 팔꿈치까지의 부분은 팔꿈치부터 손목까지의 부분보다 ‘위’에 있으므로 ‘웃-’이 아닌 ‘윗-’을 붙일 수 있다. 이때 ‘다만 1’의 규정에 의하여 거센소리 ‘ㅍ’ 앞에서는 ‘위’로 표기해야 하므로 ‘위팔’을 표준어로 삼는다.

2 <보기 1>에서 ‘삼촌’은 어원 의식이 강하게 남아서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고 했다. 따라서 음성 모음 형태로 발음하는 습관을 반영했다는 학생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삼촌(三寸)’에는 음성 모음은 없고 양성 모음 ‘ㅏ’와 ‘ㅑ’만 사용되었다.

②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의 사례로 ‘쌍둥이’를 들었다. 그러므로 이와 유사한 ‘막둥이’나 ‘흰둥이’도 이전에 양성 모음의 형태(막둥이, 흰둥이)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의 음성 모음 형태로 바뀌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        |        |
|--------|--------|
| 01 도넛  | 02 디지털 |
| 03 레이저 | 04 로켓  |
| 05 배터리 | 06 메시지 |

07 뷔페	08 스페셜
09 소시지	10 액세서리
11 앙코르	12 프리포즈
13 콘텐츠	14 커튼
15 Wangsimni	16 Gumi
17 Seorak	18 Ulleung
19 Chilgok	20 Yeosu

### 01

영어 단어 ‘doughnut’은 원래의 소리를 고려하여 ‘도넛’으로 표기한다. 복수형으로 쓰는 ‘도너츠’ 외에도 ‘도나스, 도너스, 도우넛’ 모두 틀린 표기이다.

### 03

빛을 증폭하는 장치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laser’의 ‘s’는 [z]로, ‘er’는 [ə]로 소리 나므로, 외래어 표기법의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 [z]는 ‘ㄗ’로, [ə]는 ‘어’로 쓴다.

### 07

여러 가지 음식을 큰 식탁에 차려 놓고 손님이 스스로 선택하여 덜어 먹도록 한 식당을 일컫는 ‘뷔페’는 프랑스어 ‘buffet’에서 온 말이다. 따라서 프랑스어 발음을 고려하여 ‘뷔페’로 적는다.

### 08

영어 ‘special[ˈspeʃəl]’을 적을 때, 어말의 [ʃ]는 ‘시’로 적고, 자음 앞의 [ʃ]는 ‘슈’로,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쇄’, ‘셔’, ‘셰’, ‘쇼’, ‘슈’, ‘시’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스페셜’로 적는다.

### 13

우리나라에서는 내용물을 통틀어 이르는 외래어로 ‘content’가 아닌 ‘contents’가 굳어져 사용되므로, ‘콘텐츠’로 적는다.

한편 영어에서 ‘con-’을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원어 발음을 바탕으로 하므로 원래의 철자가 같더라도 한글 표기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관용을 반영하여 표기가 결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concept’[ˈkɒnsept]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콘셉트’로 쓴다. 단 ‘condition’, ‘control’, ‘container’의 ‘con-’은 [kən-]과 [kɒn-]의 두 가지 발음

이 모두 가능하여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컨-’과 ‘콘-’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단어에 따라 한글 표기가 다른 이유는 표기 관행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 15

‘왕십리’는 [왕심니]로 발음되므로 ‘Wangsimni’로 적는다.

### 17

‘르’는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으므로, ‘설악[서락]’은 ‘Seorak’으로 적는다.

## 바로 확인

본문 302쪽

### 1 ②    2 ①    3 ③

1 ㉠ 관용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굳어진 외래어는 그대로 쓰기 때문에 ‘캐머리’가 아니라 ‘카메라’로 적어야 한다. ㉡ 외래어 표기에서 받침에 사용하는 7개의 자음에 ‘ㅍ’이 없고 그것을 대표하는 ‘ㅂ’이 있다. 따라서 ㉢ ‘커피숍’은 ‘커피슈’로 표기해야 한다.

2 로마자를 표기할 때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근거하여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신라’는 소리 나는 [실라]로 표기해야 한다. 즉, ‘Silla’(실라)로 적어야 하지 ‘Sinla’(신라)로 적어서는 안 된다.

⑤ ‘낙동강’은 [낙동강]으로 발음되지만 로마자 표기법에 된소리되기는 표기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낙동강’은 된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Nakdonggang’으로 표기한다.

3 ‘울산’이나 ‘압구정’은 모두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만 로마자 표기에서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① ‘같이[가치]’는 구개음화를 반영하여 ‘gachi’로 적었고, ‘해돋이[해도지]’도 구개음화를 반영하여 ‘Haedoji’로 적었다. ② ‘호법[호법]’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단어이고, ‘신문로[신문노]’는 음운 변동(비음화)을 반영하여 ‘Sinmunno’로 적었다. ④ ‘실고[실꼬]’는 음운 변동(거센소리되기)을 반영하여 ‘silko’로, ‘집현전[지편전]’은 음운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Jiphyeonjeon’과 같이 ‘ㅎ’을 밝혀 적었다. ⑤ ‘대관령[대괄령]’은 음운 변동(유음화)을 반영하여 ‘Daegwallyeong’으로 적었고, ‘학여울[학녀울]’도 음운 변동(ㄴ 첨가, 비음화)을 반영하여 ‘Hangnyeoul’로 적었다.

- 01 (1)○ (2)× (3)○ (4)× (5)○ (6)× (7)○ (8)○
- 02 (1)○ (2)× (3)× (4)○ (5)○ (6)× (7)○ (8)○
- 03 (1)○ (2)○ (3)○ (4)× (5)× (6)○ (7)× (8)×
- 04 (1)○ (2)○ (3)○ (4)○ (5)× (6)× (7)○ (8)×
- 05 (1)○ (2)× (3)× (4)○ (5)× (6)○ (7)○ (8)○
- 06 (1)× (2)○ (3)○ (4)× (5)○ (6)○ (7)○ (8)○
- 07 (1)○ (2)× (3)○ (4)○ (5)○ (6)× (7)○ (8)×
- 08 (1)× (2)× (3)○ (4)× (5)× (6)○ (7)○
- 09 (1)○ (2)○ (3)× (4)○ (5)○ (6)○ (7)× (8)○
- 10 (1)× (2)× (3)× (4)× (5)× (6)○ (7)× (8)○
- 11 (1)○ (2)○ (3)○ (4)× (5)○ (6)× (7)○ (8)○
- 12 (1)× (2)○ (3)× (4)× (5)× (6)○ (7)× (8)○

01

- (1) '나랏말싸미(나라+ㅅ+말쑥+이)'에 대응되는 현대어가 '나라의 말이'이므로, 'ㅅ'은 관형격 조사('의')로 사용되었다.
- (2) '둥귀에'에 대응되는 현대어가 비교격 조사를 사용한 '중국어'이므로 '에'는 비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3) '어린'에 대응되는 현대어가 '어리석은'이므로, 현대 국어에서 '어린'(나이가 적은)과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 (4) '제'에 대응되는 현대어가 '자기의'라는 점에서 '저+ㅣ'로 분석되는 'ㅣ'는 주격 조사가 아니라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5) '쁘들'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 'ㅂ'과 'ㄷ'이 함께 쓰였다.
- (6) '퍼디'에 대응되는 현대어가 구개음화('ㄷ', 'ㄷ'이 'ㅣ' 모음 앞에서 'ㅈ', 'ㅉ'으로 발음되는 것)가 된 '퍼지'라는 점에서 중세 국어에서는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 (7) '노미'에 대응되는 현대어가 '사람이'이므로, '노미'는 '놈(중세어에서 '사람'의 뜻)+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 (8) '뺨한키'의 'ㅎ'은 현대 국어에는 없는 자음이다.

02

- (1) 'ㅎ산'에 대응되는 현대어가 '하신'이므로, 'ㅎ산'에는 '대사'를 높이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샤-'가 사용되었다.
- (2) '거시잇고'에 대응하는 현대어가 '것입니까?'라는 점을 볼 때 '거시잇고'에는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잇-)가 사용되었다. '-잇-'은 객체가 아닌 상대(청자)를 높인다.

- (3) ㉠ '선인이'에 대응되는 현대어가 '선인이'이고, ㉡의 '蓮花(연화)'에 대응되는 현대어가 '연꽃이'이므로, 조사 '이'와 'ㅣ' 모두 주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격 조사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4) '大王(대왕)하'에 대응되는 현대어가 '대왕이시여'이므로, 체언 '대왕'과 결합한 '하'는 높임의 대상과 결합한 호격 조사임을 알 수 있다.
- (5) '南堀(남굴)ㅅ'에 대응되는 현대어가 '남굴의'이므로, 'ㅅ'은 현대 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6) ㉢ 'ㅅ쌀'의 목적격 조사는 '을'이고 ㉣ '쌀'에는 목적격 조사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과 ㉣을 보고 중세 국어의 목적격 조사가 현대 국어에 비해 그 종류가 다양했는지는 알 수 없다.
- (7) '세간에'에 대응되는 현대어는 '세상에', '시절에'에 대응되는 현대어는 '시절에'이므로, 앞말의 모음이 양성이나 음성이나에 따라 부사격 조사가 '애'와 '에'가 선택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8) 'ㄷ, ㅌ'이 'ㅣ' 모음 앞에서 'ㅈ, ㅉ'으로 바뀌는 것이 구개음화인데, 중세 국어에서는 '쉽디'로 썼으므로 현대 국어의 '쉽지'와 비교할 때 중세 국어에서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03

- (1) '하늬'에 대응되는 현대어가 '하늘의'이고, 무정 명사(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식물, 사물을 가리키는 명사) '하늘'이 명사 '별'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ㅅ'이 관형격 조사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講ᄃᆞᆫ소셔'에 대응되는 현대어가 '청하십시오'이고, 객체인 '부텨(부처)'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선어말 어미 '-술-'이 객체를 높임을 확인할 수 있다.
- (3) '아라보리로소니잇가'에 대응되는 현대어가 '알아보시겠습니까?'이고, 의문사가 없으므로 '예/아니요'를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이고, 보조사 '가'로 끝났으므로 '아' 계열 의문형 보조사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라)의 '내'는 '나+ㅣ'로 분석되고 이에 대응되는 현대어는 '내가'이므로, 주격 조사 '가'에 대응되는 주격 조사 'ㅣ'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 (5) '미티'에 대응되는 현대어를 보면 '밑에'인데 '밑'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유정 명사가 아니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 '미티(밑+의)'의 '의'에 대응되는 현대어 '에'는 부사격 조사이므로, 관형격 조사 '의'로 해석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 (6) ‘님금하’에 대응되는 현대어가 ‘임금이시여’이므로, ‘하’는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호격 조사임을 알 수 있다.
- (7) ‘누네’에 대응되는 현대어가 ‘눈에’이므로, 중세 국어에서는 기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기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8) ‘나가시니’가 높이는 대상은 문장의 주어인 ‘태자’이므로, 듣는 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중세 국어에서도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04

- (1) ‘흐고빅’에 대응되는 현대어가 ‘한 굽이가’이므로, 중세 국어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ㅁ술’에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음 ‘ㅁ’(받침음)과 모음 ‘·’(아래아)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아나’에 대응되는 현대어가 ‘안아’이므로, 중세 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긴녀.룻”에서 ‘긴’ 옆에 두 개의 점을 찍어 상성을 표시하였고, ‘룻’ 옆에 한 개의 점을 찍어 거성을 표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 ‘집 우횃 저비오’에 대응되는 현대어가 ‘집 위의 제비이고’이므로, ‘집 우횃’은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이다. 따라서 ‘우횃’의 ‘ㅅ’은 현대어의 관형격 조사 ‘의’에 대응되는 관형격 조사이다.
- (6) ‘저비’에 대응되는 현대어는 ‘제비’이므로, 형태의 변화는 있지만 의미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 (7) ‘서르’에 대응되는 현대어가 ‘서로’이므로, 현대 국어에는 한 단어에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자주 함께 쓰이는 반면, 중세 국어에는 상대적으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8) ‘갈며기로다’에 대응되는 현대어는 ‘갈매기로구나’이므로, 의문형 종결 어미가 아닌 감탄형 어미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05

- (1) <보기 1>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뒤따르면 ‘ㅎ’은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는다고 했으므로, ‘나라홀’이 들어가야 한다.
- (2) <보기 1>에서 관형격 조사가 뒤따르면 ‘ㅎ’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값’이 들어가야 한다.

- (3) <보기 1>에서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고 했으므로, ‘안과’가 들어가야 한다.
- (4) <보기 1>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뒤따르면 ‘ㅎ’은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는다고 했으므로, ‘돌홀’이 들어가야 한다.
- (5) <보기 1>에서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고 했으므로, ‘흐나토’가 들어가야 한다.
- (6) <보기 1>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뒤따르면 ‘ㅎ’은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는다고 했으므로, ‘하늘홀’이 들어가야 한다.
- (7) <보기 1>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뒤따르면 ‘ㅎ’은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는다고 했으므로, ‘갈홀’이 들어가야 한다.
- (8) <보기 1>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뒤따르면 ‘ㅎ’은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는다고 했으므로, ‘살홀’이 들어가야 한다.

#### 06

- (1) 중세 국어에서는 ‘똥다’의 어간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붙여서 객체를 높일 수 있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특수 어휘가 없으므로, 객체 높임을 표현할 수가 없다. 현대 국어에서 ‘도우시니’로 표현한 것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에 의해서 객체가 아닌 주체를 높인 것이다.
- (2) ㉠에서 ‘똥스븃니(똥-+-술-+-으니)’의 ‘-술-’은 앞의 말이 ‘ㅂ’으로 끝나고, 뒤의 말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 쓰이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임을 알 수 있다. ㉡에서 ‘뜯좁고(뜯-+-좁-+-고)’의 ‘-좁-’은 앞의 말이 ‘ㄷ’으로 끝나고, 뒤의 말이 자음으로 시작할 때 쓰이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임을 알 수 있다.
- (3) ㉢은 용언 ‘보다’를 통해 객체 높임을 표현할 때 선어말 어미 ‘-습/술-’을 사용함을 보여 준다. 현대 국어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없으므로, 특수한 어휘 ‘뵤다’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을 표현한다.
- (4) ‘청흐스븃쇼셔’는 ‘청ㅎ-+-술-+-으쇼셔’가 결합한 형태로, ㉡과 같은 선어말 어미 ‘-술-’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왕’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객체인 ‘부터’를 높이는 것이다.
- (5) ㉠의 ‘똥스븃니’는 ‘똥-+-술-+-으니’가 결합한 형태로, 선어말 어미의 받침 ‘뵤’을 뒤의 말에 이어 적었고, ㉡의 ‘보스븃면’은 ‘보-+-술-+-으면’이 결합한 형태로, 선어말 어미의 받침 ‘뵤’을 뒤의 말에 이어 적었다.

- (6) ㉠~㉢은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인 용언이므로,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온다.
- (7) ㉠~㉢은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인 용언이다. 현대 국어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없으나, 중세 국어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8) ㉠~㉢의 ‘-술-’에서 ‘ㅍ’과 ‘ㅇ’, ‘-술-’에서 ‘ㄷ’과 같은 현대 국어에 없는 자모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7**

- (1) ‘늬’에 대응하는 현대어가 ‘남’이므로 사람에게 해당하며, 끝음절의 모음은 ‘ㅣ’이므로 양성 모음이다. 따라서 관형격 조사 ‘의’를 써야 한다.
- (2) ‘거북’에 대응하는 현대어는 ‘거북’이므로 동물이다. 그리고 ‘거북’의 끝음절의 모음은 ‘ㅏ’로 음성 모음이므로, 관형격 조사 ‘의’를 써야 한다.
- (3) ‘大王’에 대응하는 현대어가 ‘대왕’이므로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이다. 따라서 관형격 조사 ‘시’를 써야 한다.
- (4) ‘나무’에 대응하는 현대어가 ‘나무’이므로 사람도 동물도 아니다. 따라서 관형격 조사 ‘시’를 써야 한다.
- (5) ‘아들’에 대응하는 현대어가 ‘아들’이므로 사람이며, 끝음절의 모음이 ‘ㅣ’이므로 양성 모음이다. 따라서 관형격 조사 ‘의’를 써야 한다.
- (6) ‘술위’에 대응하는 현대어가 ‘수레’이므로, 사람도 동물도 아닌 것에는 관형격 조사 ‘시’를 써야 한다.
- (7) ‘부터’에 대응하는 현대어가 ‘부처’이므로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이다. 따라서 관형격 조사 ‘시’를 써야 한다.
- (8) ‘하늘’에 대응하는 현대어 ‘하늘’은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므로, 관형격 조사 ‘시’를 써야 한다.

**08**

- (3) 중세 국어의 ‘큰 믋스믈(므슴+을) 여러(열-+-어)’에 대응되는 현대 국어 ‘큰 마음을 열어’를 통해서 ‘열다’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모두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번개 구름(구름+을) 흐터(홀-+-어)’에 대응되는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흩어’를 통해 ‘홀다’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모두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중세 국어의 ‘自然히 믋스미(므슴+이) 여러(열-+-어)’와 ‘散心은 흐튼(홀-+-은) 믋스미라(므슴+이라)’에서 ‘열다’와 ‘홀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기에 자동사로도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 국어에서 목적어가 없는 ‘열리어’와 ‘홀어진’는 동사 ‘열다’와 ‘홀다’의 피동 표현으로 ‘열다’, ‘홀다’와는 다른 동사이다.

- (6) 중세 국어에서는 ‘흐터, 흐튼’을 통해 ‘홀다’가 모두 목적어를 취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즉, 중세 국어에서는 ‘홀다’가 타동사, 자동사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현대 국어에서 ‘홀어진(홀+-어지-+-리-)’은 ‘홀다’의 피동 표현으로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이고, ‘홀다’는 타동사로 목적어를 취하고 있다.
- (7) 중세 국어에서 ‘열다’는 자동사, 타동사 모두 가능하지만, 현대 국어에서 ‘열다’는 타동사, ‘열리다(열-+-리-+-다)’는 피동사로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이다.

**09**

- (1) <보기 1>에서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 ‘-더-’는 주어가 화자 자신일 때 사용되는 선어말 어미 ‘-오-’와 결합하여 ‘-다-’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ㄱ에서 ‘몽담ㅎ다라’는 ‘몽담ㅎ-+-다-+-라’로 나눌 수 있으므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더-’가 ‘-오-’와 결합한 ‘-다-’가 쓰여 과거 시제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ㄱ은 ‘내 농담하였다.’로 해석할 수 있다.
- (2) ‘묻는다(묻-+-느-+-다)’의 선어말 어미 ‘-느-’는 <보기 1>을 통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ㄴ은 ‘네 이제 또 묻는다.’로 해석할 수 있다.
- (3) 동사 ‘주그나라’에 시제 관련 선어말 어미가 없으므로, 현재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이다. 따라서 ㄷ은 ‘너의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로 해석할 수 있다.
- (4) ‘ㅎ더이다(ㅎ-+-더-+-이-+-다)’의 ‘-더-’는 <보기 1>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ㄹ은 ‘그대의 딸을 맞이하고자 하였습니다.’로 해석할 수 있다.
- (5) ‘어드리라(얼-+-(-으)리-+-라)’의 ‘(-으)리-’는 <보기 1>을 통해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ㄴ은 ‘내 원을 따르지 않으면 꽃을 못 얻을 것이다.’로 해석할 수 있다.
- (6) ‘ㅎ더시니이다(ㅎ-+-더-+-시-+-니-+-이-+-다)’에서 ‘-더-’는 <보기 1>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ㄷ은 ‘다음 법왕이 시니 전법을 따라 하셨습니다.’로 해석할 수 있다.
- (7) ‘기드리느니라(기드리-+-느-+-니-+-라)’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느-’가 사용된 것은 맞지만, 어간이 ‘기다리-’이므로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는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ㄷ은 ‘이 지옥에 들릴 것이므로 물을 끓이며 기다린다.’로 해석할 수 있다.
- (8) ‘껏구오리라(껏구-+-오-+-리-+-라)’에서 ‘-리-’는



<보기 1>을 통해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사문과 하여 (함께) 재주를 거룰 것이다.'로 해석할 수 있다.

## 10

- (1) '얼음'을 소리대로 쓰면 '어름'이므로, '얼음'은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 (2) '낮잠'을 소리대로 쓰면 [날잠]이므로, '낮잠'은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 (3) '값나가다'의 발음은 [감나가다]이고, '검버섯'의 발음은 [검버섯]이므로, 두 단어 모두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 (4) '바가지'는 소리대로 적었으므로,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 아니다.
- (5) 둘 다 파생어는 맞지만, '노름'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 아니라 소리대로 적은 것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 (6) '웃소매'와 '밥알'은 합성어이며, 둘 다 어법에 맞도록 적었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 (7) '사랑+이'를 '사랑니'로 적은 것은 소리대로 적은 것이며,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므로 합성어이기도 하다.
- (8) '군말'은 파생어이며, 표기와 동일하게 [군말]로 소리 나고, '날고기'도 파생어이며, 표기와 동일하게 [날고기]로 소리 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 11

- (1) [으뜸]은 앞의 모음 'ㅡ'와 뒤의 모음 'ㅡ' 사이에서 [ㄷ] 소리가 나므로, ㉠에 해당한다.
- (2) [거꾸로]는 앞의 모음 'ㅓ'와 뒤의 모음 'ㅓ' 사이에서 [ㄱ] 소리가 나므로, ㉠에 해당한다.
- (3) [살짝]은 'ㄹ' 받침 뒤에서 [ㅈ] 소리가 나므로, ㉠에 해당한다.
- (4) [씩씩]은 'ㄱ'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로 같은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이므로, ㉠이 아니라 ㉡에 해당한다.
- (5) [낙찌]는 'ㄱ' 받침 뒤에서 [ㅈ] 소리가 나므로, ㉡에 따라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를 된소리로 적지 않는 것은, 'ㄱ, ㅂ'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언제나 된소리로 소리 나기 때문이다.
- (6) [쑹쑹하다]는 'ㅂ'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로,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이므로, ㉠이 아니라 ㉡에 해당한다.
- (7) [막꼭쑤]는 'ㄱ' 받침 뒤에서 [ㄱ], [ㅈ] 소리가 나므로, ㉡에 따라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 (8) [똑딱똑딱]은 'ㄱ' 받침 뒤에서 [ㄷ] 소리가 나지만, 같은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이므로 ㉡에 따라 된소리로 적는다.

## 12

- (1) '종로'는 표준 발음법 제5장 제19항에 의거하여 [종노]로 발음된다. 따라서 '종로'의 로마자 표기는 'Jongno'이다.
- (2) '탐라'는 표준 발음법 제5장 제19항에 따라 [탐나]로 발음되므로, 로마자 표기는 'Tamna'이다.
- (3) '벚꽃'은 표준 발음법 제4장 제8항에 의거하여 [번꼇]으로 발음되므로, 로마자 표기는 'beotkkot'이다.
- (4) '강릉'은 표준 발음법 제5장 제19항에 따라 [강능]으로 발음된다. 또한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2항 붙임 1의 모음 앞에서 'ㄱ'은 'g'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강릉 [강능]'은 'Gangneung'으로 적는다.
- (5) '한라산'은 표준 발음법 제5장 제20항에 의거하여 [할라산]으로 발음되고,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2항 붙임 2에 따라 'Hallasan'으로 적는다.
- (6) '대관령'은 표준 발음법 제5장 제20항에 따라 [대팔령]으로 발음되므로, 로마자 표기는 'Daegwallyeong'으로 적는다.
- (7)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2항 붙임 1에서 어말에서 'ㄱ'은 'k'로 적는다고 했으므로, '독도'는 'Dokdo'로 적는다.
- (8) '한밭'은 표준 발음법 제4장 제8항에 따라 [한밭]으로 발음되므로, 로마자 표기는 'Hanbat'이다.

개념 마스터 1 회 본문 315-318쪽

01 ②    02 ⑤    03 ④    04 ①    05 ④

## 01

### 정답 분석

② ㉠ ‘밭가락’은 ‘밭’과 ‘가락’이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때 ‘ㄹ’의 형태에 변화가 없으므로, <보기>의 ‘쌀가루’와 ‘솔방울’이 그 예로 적절하다. ㉡ ‘소나무’는 ‘솔’과 ‘나무’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때 ‘ㄹ’이 탈락하였으므로, <보기>의 ‘무술’과 ‘푸나무’가 그 예로 적절하다. ㉢ ‘이튿날’은 ‘이틀’과 ‘날’이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때 ‘ㄹ’이 ‘ㄷ’으로 바뀌었으므로, <보기>의 ‘섣달’이 그 예로 적절하다. ‘날알’은 ‘날’과 ‘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므로 ‘ㄹ’ 받침의 명사가 합성어를 형성한 경우가 아니다.

## 02

### 정답 분석

⑤ [A]는 중세 국어에서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때, ‘ㄴ, ㄷ, ㅅ, ㅈ’ 등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 받침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있었다는 점과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말에서 받침 ‘ㄹ’이 탈락한 후 관형격 조사 ‘ㅅ’이 ‘ㄷ’의 발음과 구분되지 않게 되면서 ‘ㄷ’ 소리가 나는 것은 받침을 ‘ㄷ’으로 적도록 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관형격 조사 ‘ㅅ’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로 볼 때, 현대 국어에서 ‘솔가락(솔가락)’과 ‘뭇사람(뭇사람)’의 표기가 다른 것은 ‘ㄹ’이 탈락한 후 남은 ‘ㅅ’의 발음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하여 적은 것(뭇사람)과 그렇지 않은 것(솔가락)의 차이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A]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대 국어로 오면서 ‘ㅅ’과 ‘ㄷ’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되었고, 현대 국어에서도 ‘ㅅ’과 ‘ㄷ’의 발음은 모두 [ㄷ]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 오답 분석

① <보기>의 [자료]에 제시된 ‘중세 국어의 예’ 중 첫 번째 예를 통해 ‘솔’이 현대어 ‘솔가락’과 대응되고, ‘저’가 현

대어 ‘젓가락’과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솔’과 ‘저’는 자립 명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현대 국어의 예’ 중 첫 번째 예에서 ‘솔’이 자립 명사로 쓰이지 않음을, 세 번째 예의 ‘밥 한 솔’에서처럼 ‘솔’이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쓰임을 알 수 있다.

- ② <보기>의 [자료]에 제시된 ‘중세 국어의 예’ 중 두 번째 예를 통해 ‘솔’과 ‘저’의 결합인 ‘수저’에 대응되는 현대어가 ‘수저’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보기>의 [자료]에 제시된 ‘중세 국어의 예’ 중 첫 번째 예를 통해 ‘솔’과 ‘저’가 자립 명사임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예를 통해 명사 ‘근’을 수식할 때 ‘솔’, 명사 ‘가락’을 수식할 때 ‘젓’의 형태로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솔’과 ‘저’는 명사를 수식할 때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A]에서 ‘뭇 사람’을 ‘뭇사람’으로 적어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한 것과 달리, ‘이튿 날’을 현대 국어에서 ‘이튿날’로 적도록 하였는데, 이때의 ‘ㄷ’은 ‘ㄹ’이 변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중세 국어의 ‘솔가락’이 근대 국어에서 ‘숫가락’으로, 현대 국어에 와서 ‘솔가락’으로 적히는 것은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 03

### 정답 분석

④ 이 문항은 먼저 <보기 2>에 제시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보기 1>에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문제 풀이 방법이다. ㉠ ‘집안일’은 합성어인데 자음으로 끝나는 ‘집안’ 뒤에 ‘ㅣ’ 모음으로 시작하는 ‘일’이 와서 ‘ㄴ’ 첨가가 일어나 [집안닐]이 된 후, 연음되어 [지반닐]로 발음하므로, 음운의 수가 하나 늘어난다. ㉡ ‘좋은’은 ‘ㅎ’이 탈락하여 [조은]으로 발음하므로, 음운의 수가 하나 줄어든다. ㉢ ‘않고는’ ‘ㅎ’과 ‘ㄱ’이 거센소리 ‘ㅋ’으로 축약되어 [안코]로 발음하므로, 음운의 수가 하나 줄어든다. ㉣ ‘같이’는 ‘ㄷ’이 ‘ㅣ’ 모음과 만나 구개음 ‘ㅈ’으로 바뀌면서 [가치]로 발음하므로, 음운의 수에 변화가 없다. ㉤ ‘난로’는 받침 ‘ㄴ’이 뒷말 ‘ㄹ’의 영향으로 유음화가 일어나 [날로]로 발음하므로, 음운의 수에 변화가 없다. ㉥ ‘웁는’은 자음군 단순화로 겹받침 ‘ㅃ’ 중 ‘ㄹ’이 탈락하여 [웁는]으로 발음하므로, 음운의 수가 하나 줄어든다.

이를 <보기 1>의 순서도에 적용하면 먼저 음운의 수에 변화가 없는 A에는 ㉢, ㉣이 들어가야 하고, 음운의 수에 변화는 생겼는데 음운의 수가 줄어들지 않은 B에는 ㉠이 들어가야 한다. 음운의 수가 줄었는데 새로

운 음운이 없는 C에는 ㉠, ㉡이, 새로운 음운이 있는 D에는 ㉢이 들어가야 한다.

## 04

### 정답 분석

- ① ㉠의 ‘같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가치]로 발음되고, ‘땀받이’도 구개음화가 일어나 [땀바지]로 발음된다. 또한 <보기>에서 ‘같이[가치]’의 로마자 표기를 ‘gati’가 아니라 발음과 동일하게 ‘gachi’로 적은 것을 통해, 구개음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됨을 알 수 있다.

### 오답 분석

- ② ㉡의 ‘잡다’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잡따]로 발음되고, ‘삭제’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삭째]로 발음된다. 그런데 <보기>에서 ‘잡다’의 로마자 표기를 ‘japdda’가 아니라 ‘japda’로 적은 것을 통해,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③ ㉢의 ‘놓지’는 ‘ㅎ’과 ‘ㅈ’이 축약되어 ‘ㅈ’으로 소리 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노치]로 발음된다. 반면 ‘닿아’는 겹받침 ‘ㅈ’에서 ‘ㅎ’이 탈락한 뒤 연음되어 [다라]로 발음되므로, ‘놓지’와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한편 <보기>에서 ‘놓지[노치]’의 로마자 표기를 ‘nohji’가 아니라 ‘nochi’로 적은 것을 통해, 거센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됨을 알 수 있다.
- ④ ㉣의 ‘맨입’은 ‘ㄴ’ 첨가가 일어나 [맨닙]으로 발음되고, ‘한여름’도 ‘ㄴ’ 첨가가 일어나 [한녀름]으로 발음된다. 또한 <보기>에서 ‘맨입[맨닙]’의 로마자 표기를 ‘maenip’이 아니라 ‘maennip’으로 적은 것을 통해, ‘ㄴ’ 첨가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됨을 알 수 있다.
- ⑤ ㉤의 ‘백미’는 받침 ‘ㄱ’이 뒤의 비음 ‘ㅁ’의 영향으로 ‘ㅇ’으로 소리 나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 [뱅미]로 발음된다. ‘밥물’도 받침 ‘ㅂ’이 뒤의 비음 ‘ㅁ’의 영향으로 ‘ㅁ’으로 소리 나서 [밤물]로 발음된다. 또한 <보기>에서 ‘백미[뱅미]’의 로마자 표기를 ‘baekmi’가 아니라 ‘baengmi’로 적은 것을 통해, 비음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됨을 알 수 있다.

## 05

### 정답 분석

- ④ 소연은 지연에게 ‘빨리 학교에 가라’는 명령의 의도를, 명령형 종결 어미 ‘-아라’를 사용하여 ‘빨리 가라.’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소연은 자신의 의도를 직접 드러내고자 종결 표현과 의도를 일치시켜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의도를 직접 드러내는 표현은 청자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

### 오답 분석

- ① 어머니가 지연에게 일어나라는 명령의 의도를 전달할 때, ‘저기’, ‘좀’ 등의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자에게 부담을 덜 줄 수 있다.
- ② 지연은 어머니에게 선생님께 전화해 달라는 요청의 의도를 전달할 때, ‘전화해 줘요.’라는 명령형이 아닌 ‘전화해 주시겠어요?’와 같은 의문형을 통해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③ 어머니는 지연에게 함께 병원에 가자는 청유의 의도를 전달할 때, ‘엄마랑 병원에 가자.’라는 청유형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화자의 의도와 종결 표현을 일치시켰다.
- ⑤ 어머니는 소연에게 작은 소리로 말하라는 명령의 의도를 전달할 때, ‘좋겠다.’와 같은 평서형 종결 표현과 ‘만’과 같은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개념 마스터	2회	문분 319-322쪽
01 ⑤	02 ②	03 ⑤
04 ④	05 ⑤	

## 01

### 정답 분석

- ⑤ 3문단에서 ‘15세기 국어에서 체언 ‘바’ 뒤에 주격 조사 ‘이’가 붙을 때 ‘배’로 표기된 사례도 반모음화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모음 ‘ㅐ’가 중세 국어에서는 이중 모음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문단에서 반모음화는 반모음과 성질이 비슷한 단모음에 적용되는 것으로, [ㅐ]의 경우처럼 단모음 ‘ㅣ’가 소리가 유사한 반모음 ‘ㅑ’로 교체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배’는 체언의 단모음 ‘ㅑ’에 주격 조사 ‘ㅣ’가 반모음 ‘ㅑ’로 교체된 후 결합하여 이중 모음 ‘ㅐ’가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체언의 단모음 ‘ㅑ’가 반모음으로 교체된 것이 아니라 주격 조사의 단모음 ‘ㅣ’가 반모음 ‘ㅑ’로 교체된 것이다.

### 오답 분석

- ① 2문단에서 [ㅐ]와 같이 반모음화가 일어난 경우도 규범상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라고 하였다.
- ② 2문단에서 ‘ㅐ+어’를 [ㅐ]로 발음하는 경우처럼 ‘하나’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현상을 반모음화라고 부른다.’라고 하였고, ‘단모음 ‘ㅣ’가 소리가 유사한 반모음 ‘ㅑ’로 교체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어간

‘피-’의 단모음 ‘ㅣ’가 반모음으로 교체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1문단에서 ‘어간이 ‘ㅣ, ㅅ, ㅈ’로 끝날 때 어미에 반모음 ‘ㅣ’가 첨가되어 발음되는 경우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만 표기할 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형태로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 ④ 3문단에서 15세기 국어의 “ㅣ, ㅅ, ㅈ, ㅅ, ㅈ” 표기도 ‘ㅅ’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이중 모음을 나타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였으므로, 이중 모음 ‘ㅅ’는 단모음 ‘ㅇ’과 반모음 ‘ㅣ’가 결합한 이중 모음을 나타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 02

### 정답 분석

- ② ㉠ ‘괴여’는 어간 ‘괴-’에 어미 ‘-어’가 결합하여 ‘괴여’가 된 경우이다. 15세기의 ‘ㅅ’ 표기는 ‘ㅅ’와 반모음 ‘ㅣ’가 결합한 이중 모음을 나타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르면 ‘괴여’에서 어간 ‘괴-’는 반모음 ‘ㅣ’로 끝나므로 ‘괴여’는 반모음 ‘ㅣ’ 뒤에서 다시 반모음 ‘ㅣ’가 첨가된 사례이다. 따라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 ‘니겨’는 어간 ‘니기-’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어간의 마지막 모음 ‘ㅣ’가 반모음 ‘ㅣ’로 교체되어 이중 모음 ‘ㅅ’가 된 것이다. 따라서 어간이 ‘ㅣ’로 끝나는 용언에서 반모음화가 일어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오답 분석

- ㉢ 15세기의 ‘ㅅ’ 표기는 ‘ㅅ’와 반모음 ‘ㅣ’가 결합한 이중 모음을 나타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내’는 ‘나’의 ‘ㅅ’와 조사 ‘이’의 결합에서 뒤의 ‘ㅣ’가 반모음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나’가 체언이므로 용언에서 일어나는 반모음화 사례가 아닌 체언과 조사의 결합에서 일어나는 조사 ‘ㅣ’의 반모음화 사례이다. 따라서 ㉢, ㉣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 ‘디여’는 어간 ‘디-’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어미에 반모음 ‘ㅣ’가 첨가되어 ‘어’가 ‘여’로 교체된 것이다. 이는 단모음 ‘ㅣ’ 뒤에서 일어난 반모음 첨가의 사례이다. 따라서 ㉢, ㉣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03

### 정답 분석

- ⑤ ‘수팽’과 ‘숫양’은 주위 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가지는 접두사 ‘수-’와 ‘숫-’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므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접두사가 결합하는 단어 ‘팽’과 ‘양’이 모두 명사이므로, 특정한 접두사가 둘 이상의 품사에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의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의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표준어 규정에서는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 굳어진 ‘양, 염소, 쥐’만 ‘숫양, 숫염소, 숫쥐’와 같이 ‘숫-’을 쓸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 오답 분석

- ① 접두사 ‘군-’이 명사인 ‘기침’과 ‘살’에 결합하여 ‘군기침, 군살’이 되었으므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② 접두사 ‘빚-’이 용언인 ‘나가다’와 ‘맞다’에 결합하여 ‘빚나가다, 빚맞다’가 되었으므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③ 접두사 ‘헛-’이 동사 ‘디디다’에 결합하여 ‘헛디디다’를 만들었고, 명사 ‘수고’에 결합하여 ‘헛수고’를 만들었으므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④ ‘새빨갳다, 셋노랑다’는 ‘매우 짙고 선명하게’라는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 ‘새-’와 ‘셋-’이 각각 용언 ‘빨갳다’와 ‘노랑다’에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므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새-’는 된소리 앞에서, ‘셋-’은 울림소리 앞에서 붙는 접두사이므로 ㉤의 사례에도 해당한다.

## 04

### 정답 분석

- ④ ‘꽃이 봄에 활짝 피다.’와 ‘봄이 오다.’라는 두 개의 홑문장을 사용하여 ‘명사절’과 ‘관형절’이 있는 겹문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는 꽃이 활짝 핀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에서는 ‘꽃이 (봄에) 활짝 피다.’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관형절 ‘꽃이 활짝 핀’이 체언 ‘봄’을 수식하고 있고, ‘봄이 오다.’에 명사형 어미가 붙은 명사절 ‘봄이 오기’가 전체 문장에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조건을 충족한다.

### 오답 분석

- ① ‘봄이 오면’과 ‘꽃이 활짝 핀다.’가 이어진 문장이다.
- ② ‘꽃이 활짝 피는’이 관형절로 안긴 겹문장이다.
- ③ ‘봄이 오다’와 ‘꽃이 활짝 피다’가 연결 어미 ‘-고’로 이어진 다음, 명사형 어미 ‘-기’가 붙은 ‘봄이 오고 꽃이 활짝 피기’가 명사절로 안긴 겹문장이다.
- ⑤ ‘봄이 오다’와 ‘꽃이 활짝 피다’가 연결 어미 ‘-아서’로 이어진 다음, 명사형 어미가 붙은 ‘봄이 와서 꽃이 활짝 피기’가 명사절로 안긴 겹문장이다.

## 05

### 정답 분석

- ⑤ 피동문은 행위를 당한 대상을 주어로 하는 문장이고, 사동문은 주어가 대상에게 행위를 시키는 문장이다.

01 ③

02 ③

03 ⑤

04 ④

05 ⑤

덧붙여 피동문과 사동문을 구분할 때, 단어의 의미와 관련된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쓰임 또한 유의해야 한다. ⑤의 ㉠ ‘큰 마당의 눈이 빗자루에 쓸렸다.’는 빗자루에 의해 눈이 밀리거나 모아지는 상황이므로 피동문이다. ㉡ ‘내 동생에게 거실 바닥만(을) 쓸렸다(쓸게 했다).’는 생략된 주어 ‘나’가 동생에게 거실 바닥을 쓰는 행위를 하도록 시킨 것이므로 사동문이다. 즉 ㉠과 ㉡의 ‘쓸리다’는 각각 ‘쓸다<sup>2</sup>’의 피동사와 사동사로 쓰였다.

문장의 의미로 구분하기가 애매하다면, 피동문은 목적어가 없지만 사동문은 목적어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동문과 사동문을 구분할 수도 있다. 다만 목적어의 유무만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적어를 취하는 일부 피동사(돈을 뜯기다, 발을 물리다, 발을 밟히다)가 쓰인 문장이나 ‘동음이의어’나 ‘다의어’에 대한 문장을 자칫 피동문이나 사동문으로 잘못 구분할 수도 있고, ⑤번의 ㉢과 같이 목적격 조사 ‘을’ 대신 보조사 ‘만’을 사용한 문장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오답 분석

- ① ㉠은 <보기>에 제시된 ‘갈다<sup>1</sup>’의 피동문이다. ㉡의 ‘갈렸다’는 <보기>에 제시된 ‘갈다<sup>2</sup>’의 피동사도, 사동사도 아니다. 이는 ‘쟁기나 트랙터 따위의 농기구나 농기계에 땅이 파여 뒤집히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보기>에 제시된 ‘갈다<sup>2</sup>’와 동음이의어인 ‘갈다’의 피동사이다.
- ② ㉠과 ㉡은 모두 <보기>에 제시된 ‘깎다’가 피동사로 쓰인 예문이다. ㉠에서는 용돈이 낮추어져 줄게 되었음을, ㉡에서는 점수가 낮추어져 줄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③ ㉠과 ㉡은 모두 <보기>에 제시된 ‘물다’가 사동사로 쓰인 예문이다. ㉠은 꿀을 가래떡에 들러붙게 하였음을, ㉡은 먹물을 붓에 들러붙게 하였음을 의미한다.
- ④ ㉢은 목적어가 있지만 <보기>에 제시된 ‘물다<sup>2</sup>’가 피동사로 쓰인 예문으로, 큰형이 동네 개로 인해 발이 세계 물렸음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은 <보기>에 제시된 ‘물다’와 다의어 관계에 있는 ‘물다’의 사동사가 쓰인 예문이다. 이때 ‘물다’는 ‘상처가 날 만큼 세계 누르다’라는 뜻이 아니라 ‘윗나나 아랫나 또는 양 입술 사이에 끼운 상태로 떨어지거나 빠져나가지 않도록 다소 세계 누르게 하다’라는 뜻이다.

01

정답 분석

- ③ ㄷ의 ‘보습고’는 목적어인 ‘세존’을 직접 높이는 표현이다. 이때 ‘-습-’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객체 높임을 통해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지는 못하므로, 주체인 ‘용왕’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02

정답 분석

- ④ ①의 ‘모시다’는 객체 높임을 나타내기 위한 특수 어휘로, 목적어인 ‘고모님’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④의 ‘튼튼하시다’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치아’를 높임으로써 그 소유주인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③의 ‘가시다’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어인 ‘아버지’를 직접 높이고 있다. 또한 주어에 조사 ‘께서’를 붙여 주체를 높이고 있다. ④의 ‘타당하시다’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생각’을 높임으로써 ‘그분’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⑤에는 객체 높임이 나타나 있고, ①, ③, ④에는 주체 높임이 나타나 있으므로, 학생 2는 ‘객체에 해당하는 인물을 높이는가의 여부’를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학생 1은 대상을 ‘직접 높이느냐, 간접적으로 높이느냐’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3

정답 분석

- ⑤ ‘탐구 자료’로 보아, 접미사 ‘-쟁이’는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이나 직업을 낮잡아 이를 때 덧붙이고, 접미사 ‘-장이’는 관련 기술을 가진 기술자를 이를 때 덧붙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장일(대장간에서 쇠를 다루어 도구를 만드는 일)’을 하는 기술자를 뜻할 때는 ‘대장쟁이’가 아니라 ‘대장장이’라 해야 한다. 또한 ‘중매(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소개하는 일)’를 하는 사람은 기술자가 아니므로 ‘중매장이’가 아니라 ‘중매쟁이’라 해야 한다.

오답 분석

- ① ‘탐구 자료’에서 ‘고집이 센 사람’을 ‘고집쟁이’, ‘거짓말

을 잘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하였으므로, '-쟁이'의 의미는 '어떤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다.

- ② '탐구 자료'의 (2)를 통해 직업과 관련된 말이지만 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에는 '-쟁이'를 붙여 쓰을 알 수 있고, (3)을 통해 어떤 기술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에는 '-장이'를 붙여 쓰을 알 수 있다.
- ③ '탐구 자료'의 (1)~(3)에서 '-쟁이'와 '-장이'는 '고집, 거짓말, 노래, 그림, 땀, 옹기'와 같은 명사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을 알 수 있다.
- ④ '탐구 자료'의 (1)~(3)에서 '-쟁이'와 '-장이'는 명사인 '고집, 거짓말, 노래, 그림, 땀, 옹기'와 결합하여 '고집쟁이, 거짓말쟁이, 노래쟁이, 그림쟁이, 땀장이, 옹기장이'의 단어를 만들었다. 새로운 단어의 품사 또한 명사이므로, '-쟁이'와 '-장이'는 모두 어근의 품사를 변화시키지 않는 접미사임을 알 수 있다.

## 04

### 정답 분석

- ④ 음운 변동의 양상에서 ㉠은 첨가, ㉡은 교체, ㉢은 탈락, ㉣은 축약에 해당한다. '구급약'은 [구:급냐]('㉠' 첨가) → [구:급냐](비음화)으로 소리 나므로, 뒷말 '약'에 '㉠'이 첨가(㉢)된 후, '㉡'이 '㉠'과 만나 비음 '㉡'으로 교체(㉣)되었다. '물엿' 역시 [물녓]('㉠' 첨가) → [물녓](유음화) → [물녓](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소리 나므로, 뒷말 '엿'에 '㉠'이 첨가(㉢)된 후, '㉡'의 영향으로 '㉠'이 유음 '㉡'로 교체(㉣)되었으며, '㉢'은 '㉡'으로 교체(㉣)되었다.

### 오답 분석

- ① '설날[설:랄]'은 '㉠'이 '㉡'로 교체만 되었으므로, 첨가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없을[업:쓸]'은 '㉢'이 연음된 후 된소리 '㉣'으로 교체만 되었으므로, 탈락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끓이다[끄리다]'는 겹받침 '㉣'에서 '㉢'이 탈락한 후, '㉡'이 연음되므로 축약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끗끗하다[꾼꾸타디]'는 받침 '㉢'이 '㉡'으로 교체되고, 교체된 '㉡'이 '㉢'과 만나 '㉣'으로 축약되므로, 탈락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 05

### 정답 분석

- ⑤ ㉠ ㉡의 '딸꾹질'은 부사 '딸꾹'에 접사 '-질'이 결합하여 명사가 된 것으로, 품사가 바뀌는 경우인 [A]로 구분할 수 있다. ㉢ ㉣의 '일찍이'는 부사 '일찍'에 접사

'-이'가 결합하여 부사가 된 것으로, 품사가 바뀌지 않는 경우인 [B]로 구분할 수 있다.

### 오답 분석

- ㉠ ㉡의 '높이다'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접사 '-이-'가 결합하여 동사가 된 것으로, 품사가 바뀌는 경우인 [A]로 구분할 수 있다.
- ㉢ ㉣의 '깊이'는 형용사 '깊다'의 어근 '깊-'에 접사 '-이'가 결합하여 부사가 된 것으로, 품사가 바뀌는 경우인 [A]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품사가 '명사'가 아닌 '부사'로 바뀐 것이므로,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

개념 마스터	<b>4</b> 회	본문 326~329쪽
<b>01</b> ③	<b>02</b> ④	<b>03</b> ③
<b>04</b> ①	<b>05</b> ①	

## 01

### 정답 분석

- ③ 1문단에서 비음화와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은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 '놓고'는 받침 'ㅎ'이 뒤의 'ㄱ'과 만나 거센소리 'ㄱ'으로 축약되어 [노코]로 발음됨을 알 수 있다. 또한 2문단에서 된소리되기도 예사소리인 파열음 'ㄴ, ㄷ, ㄱ' 뒤에 예사소리 'ㄴ, ㄷ, ㄱ, ㅅ, ㅈ'이 연달아 발음되기 어려워,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반드시 된소리로 바뀐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 '곧잘'은 받침 'ㄷ' 뒤에 오는 예사소리 'ㄴ'이 된소리로 바뀌어 [곧잘]로 발음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와 ㉣은 모두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오답 분석

- ① ㉠은 명사로, 단어 내부에서 음운 변동(비음화)이 일어나고, ㉡는 부사로, 단어 내부에서 음운 변동(된소리되기)이 일어난다. 따라서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이어지는 경우가 아니다.
- ② ㉠에서는 비음화가, ㉡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4문단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발음들은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라고 하였으므로, 원래 제 소리가 아닌 음운 변동이 일어난 대로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으로 인정됨을 알 수 있다.
- ④ ㉢의 '담기'는 비음 'ㄹ' 뒤에 오는 예사소리 'ㄱ'이 된소리로 바뀌어 [담:끼]로 발음된다. 이는 2문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용언의 어간이 비음으로 끝나고 뒤에 오

는 어미가 예사소리로 시작하면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㉔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다는 조건이 음운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㉔의 ‘놓고’는 받침 ‘ㅎ’이 예사소리 ‘ㄱ’과 만나서 거센소리로 축약되어 [노코]로 발음된다. 1문단에서 ‘국화[구과]’와 같이 명사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거센소리가 되는 음운 변동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다는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ㅎ’과 예사소리가 만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임을 알 수 있다.

- ⑤ ㉔의 ‘담기’는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의 첫소리가 예사소리 ‘ㄱ’에서 된소리 ‘ㄱ’으로 바뀐 것이 맞지만, ㉔의 ‘뜯기’는 어간 ‘뜯기-’ 내부에서 예사소리 ‘ㄱ’이 된소리 ‘ㄱ’으로 바뀐 경우이다. 참고로 ‘뜯기다’는 동사 ‘뜯-’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02

### 정답 분석

- ④ 2문단에서 된소리되기는 예사소리인 파열음 ‘ㅂ, ㄷ, ㄱ’ 뒤에 예사소리 ‘ㅂ, ㄷ, ㄱ, ㅅ, ㅈ’이 연달아 발음되기 어려워,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예외 없이 된소리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라고 하였다. ‘국수’는 받침 ‘ㄱ’ 뒤에 예사소리 ‘ㅅ’이 연달아 오므로, 예외 없이 된소리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또한 <보기>의 한글 맞춤법 제5항 2 ‘다만’에서도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국수’는 된소리를 밝혀 적지 않는다.

### 오답 분석

- ① ‘가꿈’은 두 모음 ‘ㅏ’와 ‘ㅓ’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므로, 한글 맞춤법 제5항 1에 해당한다. 따라서 표기에 된소리를 밝혀 적는다. 다만, 두 모음 사이에 예사소리가 오면 된소리가 되는 것은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 ② ‘몹시’는 파열음 ‘ㅂ’ 뒤에 오는 예사소리 ‘ㅅ’이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되기의 규칙적인 현상이므로, 예사소리로 적는다.
- ③ ‘딱딱’은 ‘딱딱’으로 적어도 예사소리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교체되어 [딱딱]으로 발음될 것이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제13항에 따라 ‘딱딱’으로 적는다.
- ⑤ ‘잔뜩’은 부사이므로 용언의 어간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 한편 ‘잔뜩’은 한글 맞춤법 제5항 2에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는 단어로 제시되어 있다.

## 03

### 정답 분석

- ③ ㉔ ‘뱀’은 자음으로 끝나므로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해야 한다. 이를 이어 적으면 ‘뱀아미’가 된다. ㉔ ‘불휘(뿌리)’는 모음 ‘ㄱ’(단모음 ㅏ + 반모음 ㅣ)로 끝나므로, 주격 조사는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대로 ‘불휘’로 표기한다. ㉔ ‘대장부’는 모음 ‘ㅏ’로 끝나므로,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해야 한다. 따라서 모음 ‘ㅏ’와 ‘이’가 결합한 ‘대장뱀’로 표기한다.

## 04

### 정답 분석

- ① ‘그녀는 그가 여행을 간 사실을 몰랐다.’에서 관형절 ‘그가 여행을 간’과 이 관형절이 안긴 ‘그녀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문장에는 서로 중복된 단어가 없다. 따라서 생략된 문장 성분 없이 관형절이 안은문장의 체언 ‘사실’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㉔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 분석

- ② 관형절인 ‘내가 사는’의 부사어 ‘마을에’가 관형절이 수식하는 체언 ‘마을’과 동일하여 생략되었다.
- ③ 관형절인 ‘책장에 있던’의 주어 ‘소설책이’가 관형절이 수식하는 ‘소설책’과 중복되어 생략되었다.
- ④ 관형절인 ‘동생이 먹음’의 목적어 ‘딸기’가 관형절이 수식하는 체언 ‘딸기’와 중복되어 생략되었다.
- ⑤ 관형절인 ‘골짜기에 흐르는’의 주어 ‘물이’가 관형절이 수식하는 체언 ‘물’과 중복되어 생략되었다.

## 05

### 정답 분석

- ① [확인 사항]에서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라고 하였고, [문제 해결 과정]의 순서도에서 ㉔ ‘살아가다’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렸다고 하였으므로, 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하나의 단어는 그 형태소 내부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므로 ‘살아가다’로 붙여 써야 한다. ㉔ ‘받아가다’는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확인 사항]에 따라 ‘본용언+본용언’의 구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받아 가다’로 띄어 써야 한다. ㉔ ‘뺏아가다’는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본용언+보조 용언’의 구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씀도 허용한다.’라는 [확인 사항]에 따라 ‘뺏아 가다’로 띄어 쓰거나 ‘뺏아가다’로 붙여 쓸 수도 있다.

01 ③

02 ①

03 ③

04 ④

05 ⑤

## 01

### 정답 분석

③ <보기>에서 지금의 ‘돼지’를 의미하는 말이 예전에는 ‘돌’이었고, 여기에 ‘-아지’가 붙어 ‘돌의 새끼’를 의미하는 말이 ‘도야지’라 하였다. 따라서 지금의 ‘돼지’는 돼지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고, 예전의 ‘도야지’는 돼지의 새끼만 나타내는 말이므로 서로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다. 굳이 두 말의 관계를 비교하면, 지금의 ‘돼지’가 예전 ‘도야지(돼지의 새끼)’의 상의어이다.

### 오답 분석

- ① 예전의 ‘도야지’에 해당하는 개념은 ‘아기 돼지, 돼지 새끼’와 같은 말에도 남아 있다.
- ② 예전의 ‘돌(돼지)’은 ‘도야지(돼지 새끼)’의 하의어가 아니라 상의어이다.
- ④ 지금의 ‘어린 돼지’에 해당하는 예전의 어휘로 ‘도야지’가 있었으므로, 어휘적 빈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 ⑤ 예전의 ‘도야지’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은 하나의 고유어 단어가 아니라 ‘아기 돼지’ 혹은 ‘새끼 돼지’처럼 구를 사용한다고 2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다.

## 02

### 정답 분석

① 제시문에서 어휘적 빈자리는 ‘구’, ‘한자어나 외래어’, ‘상의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채워진다고 하였다. <보기>의 ㄱ에서 ‘만사위’, ‘막넛사위’처럼 첫 번째, 마지막 사위를 가리키는 말이 있는 반면 두 번째, 세 번째 사위를 구별하여 가리키는 단어가 없어 ‘둘째 사위’, ‘셋째 사위’라고 입력하는 것은 단어가 아닌 구를 사용하여 어휘적 빈자리를 채우는 첫 번째 방식의 사례로 적절하다.

### 오답 분석

- ㄴ. 꿩의 새끼를 나타내는 어휘가 원래 존재하고 있으나 학생 2가 이를 몰라서 사전에 있는 어휘를 찾아본 것이므로, 어휘적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금성’의 고유어로 ‘셋별’과 ‘개밥바라기’가 존재하고 있으나 생소하지 않은 단어를 택했다는 것이므로, 어휘적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 03

### 정답 분석

③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ㅍ, ㅊ’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구개음 ‘ㅈ’, ‘ㅊ’이 되는 현상이다. ㉠의 ‘굳히다’는 ‘ㄷ’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ㅌ’이 된 후, 다시 ‘ㅣ’ 모음의 영향으로 구개음 ‘ㅊ’이 되어 [구치다]로 소리 난다. ‘달히다’ 역시 ‘ㄷ’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ㅌ’이 된 후, ‘ㅣ’ 모음의 영향으로 구개음 ‘ㅊ’이 되어 [다치다]로 소리 난다. 따라서 ‘ㄷ’ 뒤에서 ‘ㅎ’이 탈락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ㄷ’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ㅌ’이 된 후에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 오답 분석

- ① ㉠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말이’나 ‘같이’는 각각 끝소리가 ‘ㄷ’이나 ‘ㅌ’이고 뒷말이 ‘ㅣ’ 모음으로 시작한다.
- ② ㉡에서 ‘발이’는 받침 ‘ㅌ’이 ‘ㅣ’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자 구개음 ‘ㅊ’이 된다. 그러나 ‘발을’은 받침 ‘ㅌ’이 ‘ㅡ’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 ④ ㉢에서 ‘밀이’는 받침 ‘ㅌ’이 형식 형태소인 모음 ‘ㅣ’와 만나서 구개음화가 일어났지만, ‘끝인사’는 받침 ‘ㅌ’이 실질 형태소인 모음 ‘ㅣ’와 만나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 ⑤ ㉣에서 ‘해돋이’는 ‘해’와 ‘돋이’가 결합한 합성어이고, ‘돋이’는 다시 ‘돋- + -이’로 나눌 수 있다. 이때 받침 ‘ㄷ’이 ‘ㅣ’ 모음과 만나서 구개음화가 일어나 [해도지]로 소리 난다. 한편 ‘견디다’는 하나의 형태소인데, ‘ㄷ’이 ‘ㅣ’ 모음과 만나도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 04

### 정답 분석

④ <보기 2>의 ㉡에서 ‘뒹소고’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소-’을 통해 객체(목적어)인 ‘어마님’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특수 어휘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고로 현대어 해석을 통해 ‘뒹소고’는 현대 국어에 와서 특수 어휘인 ‘모시고’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분석

- ① ㉠의 [A] ‘니르샤티’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샤-’를 사용하여 주체를 높이고 있는데, 그 주체(세존의 안부를 여쭙고 말하는 사람)는 생략되었다.
- ② ㉠의 [A] ‘뭇소고’에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소-’를 사용하여 객체를 높이고 있다. 이때 세존의 ‘안부’를 높임으로써, ‘세존’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의 [B] ‘오시니잇고’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오신 주체)를 높이고 있다.
- ⑤ ㉠에서는 객체인 ‘어마님’을 높이기 위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을 사용하여 ‘뫼습고’로 표현하였다.

## 05

### 정답 분석

- ⑤ ㉠의 ‘어늘’과 대응하는 현대 국어가 ‘어느 것’이므로 ‘어늘’은 ‘어느+을’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에 사용된 ‘어느’는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대명사로, 현대 국어의 ‘어느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보기 2>의 ‘어느 02’에 해당한다.

### 오답 분석

- ① ㉠의 ‘어느’는 현대 국어의 ‘어느’에 대응하고, 체언 ‘나라’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사이다. 따라서 <보기 2>의 ‘어느 01’과 품사가 같다.
- ② ㉠의 ‘어니’는 현대 국어의 ‘어느 것이’에 대응하므로 ㉠은 ‘어느’에 주격 조사 ‘이’가 붙은 형태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에 사용된 ‘어느’는 주격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대명사로, 현대 국어의 ‘어느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보기 2>의 ‘어느 02’에 해당한다.
- ③ ㉠의 ‘어느’는 현대 국어의 ‘어찌’에 대응하므로 <보기 2>의 ‘어느 03’으로 쓰인 부사이다. 부사는 용언을 수식할 수 있다.
- ④ ㉠의 ‘어느’는 현대 국어의 ‘어찌’에 대응하고, 용언 ‘플리’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이다. <보기 2>의 ‘어느 01’은 관형사이므로, ㉠과 품사가 서로 다르다.

개념 마스터	<b>6</b> 회	본문 334~336쪽
01 ④	02 ①	03 ①
04 ①	05 ④	

## 01

### 정답 분석

- ④ ㉠ ‘야’와 ㉡ ‘아’는 손아랫사람을 부를 때 쓰는 호격 조사로, 그 의미가 서로 같다. ㉠은 모음 뒤에만 쓰이고, ㉡은 자음 뒤에만 쓰이므로 ㉠과 ㉡은 서로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음운론적 이형태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 ㉡이 형태론적 이형태의 관계라는 탐구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분석

- ① ㉠ ‘느’는 모음 뒤에만 나타나고 ㉢ ‘은’은 자음 뒤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 상보적 분포를 보이고 있는 음운론적 이형태의 관계이다. 따라서 서로가 나타나는 음운 환경이 겹치지 않는다.

- ② ㉠ ‘한테’와 ㉢ ‘에게’는 모두 앞말이 ‘민수’로 동일한데도 모두 쓰였으므로 상보적 분포를 보이지 않는다.
- ③ ㉠ ‘-어라’는 특정 형태소 ‘하-’와 어울릴 때에만 나타나므로,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수한 명령형 어미이다. 일반적인 명령형 어미 ㉠ ‘-아라’, ㉡ ‘-어라’와 비교했을 때, 특정 형태소와 어울려서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형태라고 볼 수 있다.
- ⑤ ㉠ ‘-아라’는 앞말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 나타나고, ㉡ ‘-어라’는 앞말 모음이 음성 모음일 때 나타나므로, 앞말 모음의 성질에 따라 형태가 결정된다.

## 02

### 정답 분석

- ① 2문단에서 부사격 조사 ‘에’에 관해 ‘중세 국어에서는 앞말 모음의 성질에 따라 이형태가 존재했다.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는 ‘애’가, 음성 모음일 때는 ‘에’가, 단모음 ‘이’ 또는 반모음 ‘이’일 때는 ‘예’가 사용되었다.’라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에는 앞말 ‘서리’의 모음이 ‘이’로 끝났으므로 ‘예’가, ㉡에는 앞말 ‘상두산’의 모음이 양성 모음 ‘ㅏ’로 끝났으므로 ‘애’가, ㉢에는 앞말 ‘구천’의 모음이 음성 모음 ‘ㅣ’로 끝났으므로 ‘에’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은 모두 부사격 조사로, 앞말 모음의 성질에 따라 상보적 분포를 보이므로 음운론적 이형태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03

### 정답 분석

- ① ㉠의 비표준 발음 [글린]은 ‘글는 → 글는(자음군 단순화) → 글른(유음화)’의 과정에 따른 것이고, ㉡의 표준 발음 [짤레]는 ‘짤네 → 짤네(자음군 단순화) → 짤레(유음화)’의 과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에는 ‘유음화’가 들어가야 한다.  
또한 ㉠의 표준 발음 [글는]은 ‘글는 → 글는(자음군 단순화) → 글는(비음화)’의 과정에 따른 것이고, ㉡의 비표준 발음 [짤네]는 ‘짤네 → 짤네(자음군 단순화) → 짤네(비음화)’의 과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에는 ‘비음화’가 들어가야 한다.  
한편 ㉢의 표준 발음 [끈키고]는 ‘끊기고 → [끈키고] (ㅎ+ㄱ → ㅋ)’로 소리 나는 것이고, ㉣의 표준 발음 [똥치]는 ‘똥지 → [똥치](ㅎ+ㅅ → ㅈ)’로 소리 나는 것이다. 따라서 ㉣에는 ‘거센소리되기’가 들어가야 한다.

## 04

### 정답 분석

① ㉠에는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과'가 쓰인 예문이 들어갈야 한다. 앞선 예문에서는 막내와 비교되는 대상인 '큰형'에 '과'를 붙였다. ㉠의 '그는 낯선 사람과 잘 사귀다.'에서 '낯선 사람'은 비교나 기준의 대상이 아니라라는 점에서 ㉠의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한편 '그는 낯선 사람과 잘 사귀다.'는 '그'가 상대로 하는 대상이 '낯선 사람'임을 드러내므로, ㉠-㉢에 해당한다.

### 오답 분석

- ② ㉡에는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격 조사 '과'가 쓰인 예문이 들어가야 한다. ㉡의 '그는 형님과 고향에 다녀왔다.'는 '그'가 고향에 다녀온 일을 함께 한 '형님'을 나타낼 때 격 조사 '과'를 붙였으므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③ ㉢의 용례 '그는 거대한 폭력 조직과 맞섰다.'에 사용된 '과'는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므로, ㉢에 '격 조사'를 넣는 것은 적절하다.
- ④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과'의 유의어로는 '하고', '이랑' 등이 있다.
- ⑤ '닭과 오리는 동물이다.'라는 용례에서 받침이 있는 체언 '닭'에는 조사 '과'를 붙여 씌울 수 있다. '닭' 대신 받침 없는 체언 '오리'를 넣으면 '과' 대신 '와'를 조사로 붙여 쓰게 되므로, ㉢에는 '와'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조사 '과'의 이형태가 '와'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05

### 정답 분석

④ 과거에 있었던 소풍날 날씨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나뻤어.'라고 대답한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소풍날 당시의 날씨 상태가 나뻤음을 알려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례는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의 것임'을 나타내는 ㉠의 사례로 적절하다.

### 오답 분석

- ① 오늘까지 이어지지 않고, '어제'라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② '아까'라는 시간 부사를 통해 '할머니 생신 선물을 사러 간 일'이 과거의 것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③ '아직도'라는 시간 부사를 통해 감기 걸린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잠을 못 잘 것이다.'라고 확실하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개념 마스터

7회

본문 337-339쪽

01 ③

02 ②

03 ③

04 ②

05 ③

## 01

### 정답 분석

③ [A]에서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연결 어미 없이 결합한 '오르내리다' 등은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없는 단어 배열법으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③의 '보살피다'는 '보다'의 어간 '보-'가 연결 어미 없이 용언 '살피다'에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오답 분석

- ① '어깨동무'는 명사 '어깨'와 명사 '동무'가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② '건널목'은 용언 '건너다'의 어간 '건너-'와 관형사형 어미 '-르'이 결합한 용언의 관형사형이 명사 '목'과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④ '여닫다'는 용언 '열다'의 어간 '열-'이 연결 어미 없이 용언 '닫다'와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⑤ '검버섯'은 용언 '검다'의 어간 '검-'이 관형사형 어미 '-(으)ㄴ' 없이 명사 '버섯'과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02

### 정답 분석

② (나)의 '즌훤'은 '즐다(현대 국어의 '질다')의 어간 '즐-'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즌'이 다시 명사 '훤(현대 국어의 '훤')과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현대 국어의 '즌훤' 역시 용언의 관형사형 '진'에 명사 '훤'이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 오답 분석

- ① (가)의 '눈물'은 명사 '눈'과 명사 '물(현대 국어의 '물')'

이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현대 국어의 ‘눈물’ 역시 명사 ‘눈’과 명사 ‘물’이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③ (다)의 ‘아라듣다’는 용언 ‘알다’의 어간 ‘알-’에 연결 어미 ‘-아’가 붙어(연음되어 ‘아라’로 표기) 용언 ‘듣다’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현대 국어의 ‘알아듣다’ 역시 용언의 어간 ‘알-’에 연결 어미 ‘-아’가 붙어 용언 ‘듣다’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④ (라)의 ‘숫나다’는 용언 ‘숫다’의 어간 ‘숫-’이 연결 어미 없이 용언 ‘나다’와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그러나 현대 국어의 ‘숫아나다’는 용언의 어간 ‘숫-’에 연결 어미 ‘-아’가 붙어 용언 ‘나다’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⑤ 현대 국어의 ‘숫아나다’에 해당하는 중세 국어는 비통사적 합성어인 (라)의 ‘숫나다’와 통사적 합성어인 (마)의 ‘소사나다’이다. (마)의 ‘소사나다’는 ‘숫-’에 연결 어미 ‘-아’가 붙어 용언 ‘나다’와 결합하였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따라서 현대 국어의 ‘숫아나다’는 중세 국어에서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의 형태로 모두 쓰였다고 볼 수 있다.

### 03

#### 정답 분석

- ③ ㉠은 나경의 가족을, ㉡는 수빈, 나경, 세은 모두를, ㉢는 수빈의 가족을, ㉣는 수빈을 제외한 세은과 나경을, ㉤는 수빈, 나경, 세은 모두를 가리킨다. 따라서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것은 ㉡와 ㉤이다.

### 04

#### 정답 분석

- ② ㉠에는 ‘그가 시장에서 산’이라는 관형절과 ‘값이 비싸다’라는 서술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서술절)이 있다. 그러나 ㉡에는 서술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없다. ㉢의 주어는 ‘피곤해하던 동생이’이고, ‘엄마가 모르게’는 부사어, ‘잔다’가 전체 문장의 서술어이다. 이때 ‘동생’을 수식하는 ‘피곤해하던’은 관형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관형절)이고, ‘엄마가 모르게’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부사절)이다.

#### 오답 분석

- ①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은 관형절을 의미한다. ㉠에는 ‘봄이 따뜻하다.’라는 홀문장에서 주어 ‘봄’이 생략된 관형절 ‘따뜻한’이 ‘봄(체언)’을 수식하고 있으며, ㉡에는 ‘내가 친구를 만났다.’라는 홀문장에서 목적어 ‘친구를’이 생략된 관형절 ‘내가 만난’이 ‘친구(체언)’를 수식하고 있다.

- ③ ㉠에는 명사절 ‘봄이 빨리 오기’ 속에 부사어 ‘빨리’가 포함되어 있고, ㉡에는 서술절 ‘마음이 정말 착하다’ 속에 부사어 ‘정말’이 포함되어 있다.
- ④ ㉠에는 주어 ‘봄이’가 생략된 관형절 ‘따뜻한’이 있고, ㉡에는 목적어 ‘배추를’이 생략된 관형절 ‘그가 시장에서 산’이 있다.
- ⑤ ㉢에는 ‘엄마가 모르게’라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부사절)이 있고, ㉤에는 ‘그가 시장에서 산’이라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관형절)이 있다.

### 05

#### 정답 분석

- ③ ㉠의 주동문에서 주어 ‘철수’는 사동문에서 ‘철수를’이라는 목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의 주동문에서 주어 ‘동생’은 사동문에서 ‘동생에게’라는 부사어로 바뀌었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분석

- ① ㉠에서는 주동문의 ‘먹다’에 사동 접미사를 붙여 ‘먹이다’로 바꾸어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에서는 주동문의 ‘가다’에 사동 접미사를 붙이지 못하고 ‘-게 하다’를 사용하여 사동문을 만들었다.
- ② ㉢의 사동문에서 사동 접미사 ‘-기-’ 대신 ‘-게 하다’를 활용해서 사동문을 만들면 ‘인부들이 이삿짐을 방으로 옮겨 하다.’와 같이 어색한 문장이 된다.
- ④ ㉠과 ㉡은 모두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되면서 각각 ‘내가’, ‘누나가’라는 새로운 주어가 생겼다.
- ⑤ ㉢에서 사동문에 대응하는 주동문은 비문이다. 왜냐하면 사물인 ‘이삿짐’이 스스로 움직여 자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 주동문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개념 마스터		8	회		본문 340-343쪽
01	②	02	①	03	①
04	⑤	05	④		

### 01

#### 정답 분석

- ② <자료>에서 15세기 중엽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도박’처럼 어간이 ‘-돌-’으로 나타났는데,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도박>도와’에서와 같이 ‘-’ 또는 ‘-’ 앞에서는 반모음 ‘-ㄹ-’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15세기 국어의 ‘도박’이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나는 것은 ‘ங’이 어간 끝에서 ‘ㅂ’으로 바뀐 결과가 아니라, ‘ㄷ’ 앞에서 반모음 ‘ㄹ[w]’로 바뀐 결과이다.

**오답 분석**

- ① <대화 1>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 국어에서 ‘뚫다’는 ‘좁다’와 달리 어간 ‘뚫-’에 어미 ‘-아’가 붙어 활용하면 ‘도와’로 형태가 바뀌고, ‘젓다’도 ‘벗다’와 달리 어간 ‘젓-’에 어미 ‘-어’가 붙어 활용하면 ‘저어’로 형태가 바뀌고 있으므로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③ <자료>에서 15세기 국어의 ‘젓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이 ‘젓-’으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대화 2>에서 ‘ㄷ’이 사라지면서 ‘저서’가 ‘저어’로 활용형이 바뀌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15세기 국어의 ‘저서’가 현대 국어에서 ‘저어’로 나타나는 것은 ‘ㄷ’의 소실로 어간의 끝 ‘ㄷ’이 없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④ <자료>에서 15세기 국어의 ‘뚫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뚫고’처럼 어간이 ‘뚫-’으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현대 국어에서도 ‘뚫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뚫고’처럼 어간이 ‘뚫-’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둘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⑤ <자료>에서 15세기 국어의 ‘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젓고’처럼 어간이 ‘젓-’으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현대 국어에서도 ‘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고’와 결합하면 ‘젓고’처럼 어간이 ‘젓-’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둘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02**

**정답 분석**

- ① <자료>에서 ‘뚫다’는 15세기 중엽에 자음 앞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바뀌지 않은 ‘뚫-’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도뚫’처럼 어간이 ‘뚫-’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좁다’ 또한 ‘뚫다’와 마찬가지로 불규칙 활용을 하는 형용사이므로 이를 15세기 중엽의 ‘뚫다’처럼 적용하면 자음 앞에서는 어간이 ‘좁-’, 모음 앞에서는 ‘좁-’이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게’와 결합하면 ‘좁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와 결합하면 연음하여 ‘고뚫’, ‘-은’과 결합하면 연음하여 ‘고뚫’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료>에서 유추하면 모음 앞에서 사용된 ‘좁-’의 ‘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며 ‘ㄷ’ 또는 ‘ㄴ’ 앞에서는 반모음 ‘ㄹ[w]’로 바뀌고, ‘-’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

여 ‘ㄴ’로 바뀌었을 것이다. 따라서 17세기 초엽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게’와 결합하면 ‘좁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와 결합하면 ‘고와’, ‘-은/은’과 결합하면 ‘고은’이 되었을 것이다.

**오답 분석**

- ② ‘긋다’는 어미 ‘-어’와 결합하면 ‘그어’로 ‘ㅅ’ 불규칙 활용을 하는 동사이다. 따라서 <자료>에서 제시한 ‘젓다’와 변화 양상이 동일할 것이다. 15세기 중엽 이전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긋-’,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긋-’으로 나타나 ‘긋게, 그서, 그슨’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17세기 초엽에는 ‘젓다’와 마찬가지로 음절 끝에서는 받침 ‘ㅅ’이 그대로 나타나 ‘긋게’가 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ㄷ’이 없는 ‘그-’에 어미가 붙어 ‘그어, 그은’이 되었을 것이다.
- ③ 현대 국어의 ‘눅다’도 ‘누워’로 활용하므로, ‘뚫다’와 동일한 ‘ㅂ’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15세기 중엽 이전에는 ‘눅게, 누벼, 누븐’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며 ‘ㄷ’ 앞에서 반모음 ‘ㄹ[w]’로, ‘-’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ㄷ’로 바뀌었으므로, 17세기 초엽에는 ‘눅게, 누워, 누운’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 ④ ‘벗다’는 ‘벗어’로 규칙 활용하기 때문에 ‘벗다’와 성격이 같다. 15세기 중엽에 ‘벗다’는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벗-’으로 나타났으므로, 15세기 중엽 이전의 ‘벗다’도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벗-’으로 활용하여 ‘벗게, 비서, 비슨’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이후의 변화 양상은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17세기 초엽에도 ‘벗게, 비서, 비슨’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 ⑤ ‘잡다’는 ‘잡아’로 규칙 활용하기 때문에 ‘좁다’와 성격이 같다. 15세기 중엽에 ‘좁-’은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잡다’의 15세기 중엽 이전 표기는 ‘ங’이 나타나지 않는 ‘잡게, 자바, 자븐’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후의 변화 양상은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17세기 초엽 역시 ‘잡게, 자바, 자븐’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03**

**정답 분석**

- ① <보기>에서 ㉠은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 ㉡은 추상화된 주변적 의미를 가리킨다. ①의 ㉠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에서 ‘낮다’는 ‘아래에서 위까지의 높이

가 기준이 되는 대상이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를 의미하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다. 그리고 ㉠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낮다.’에서 ‘낮다’는 ‘품위, 능력, 품질 따위가 바라는 기준보다 못하거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를 의미하는 추상화된 주변적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각각 ㉠과 ㉡의 사례로 적절하다.

#### 오답 분석

- ㉡ ‘크다’의 중심적 의미는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이다. 그런데 ㉠ ‘그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에서 ‘크다’는 ‘가능성 따위가 많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쓰였고, ㉡ ‘힘든 만큼 기쁨이 큰 법이다.’에서의 ‘크다’도 ‘일의 규모, 범위, 정도, 힘 따위가 대단하거나 강하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쓰였다.
- ㉢ ‘넓다’의 중심적 의미는 ‘면이나 바닥 따위의 면적이 크다.’이다. ㉠ ‘두 팔을 최대한 넓게 벌렸다.’와 ㉡ ‘도로 폭이 넓어서 좋다.’에서 ‘넓다’는 모두 ‘면이나 바닥 따위의 면적이 크다.’라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다.
- ㉣ ‘좁다’의 중심적 의미는 ‘면이나 바닥 따위의 면적이 작다.’이다. ㉠ ‘내 좁은 소견을 말씀드렸다.’와 ㉡ ‘마음이 좁아서는 곤란하다.’에서 ‘좁다’는 모두 ‘마음 쓰는 것이 너그럽지 못하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쓰였다.
- ㉤ ‘작다’의 중심적 의미는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하다.’이다. ㉠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에서 ‘작다’는 ‘일의 규모, 범위, 정도, 중요성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쓰였고, ㉡ ‘우리 학교는 운동장이 작다.’에서 ‘작다’는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하다.’라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다.

## 04

#### 정답 분석

- ㉤ 일반적으로 사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피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기>의 ‘보이다’는 사동사일 때 ‘시계를’과 같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피동사일 때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의 ‘안기다’는 ㉠에서 ‘꽃다발을’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므로 사동사, ㉡에서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피동사로 사용되었다. 형태적인 것으로만 구분하면 예외적인 표현이나 동음이의어와 같은 어휘로 쓰인 경우와 혼동할 수 있으므로, 문장의 의미를 바탕으로 사동사는 ‘-게 하다’로 해석되고, 피동사는 ‘-어지다’로 해석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은 ‘형이 친구에

게 꽃다발을 안게 했다.’, ㉡은 ‘아기 곰이 어미 품에 포근히 안기어졌다.’로도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각각 사동사, 피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분석

- ㉠ ㉠과 ㉡ 모두 피동사로 쓰였다.
- ㉢ ㉠은 피동사, ㉡은 사동사로 쓰였다.
- ㉣ ㉠은 사동사로 쓰였다. ㉡의 ‘말리다’는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을 못하게 방해하다.’의 뜻을 지닌 말로, ㉠의 ‘말리다’의 동음이의어이다. 따라서 피동사도 아니고, 사동사도 아니다.
- ㉤ ㉠과 ㉡ 모두 사동사로 쓰였다.

## 05

#### 정답 분석

- ㉣ ‘수’는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의미하는 의존 명사이다. 그리고 문맥상 ‘수밖에’의 ‘밖에’는 <보기 1>의 2의 의미로 쓰인 조사이므로, 체언인 ‘수’와 붙여 써야 한다.

#### 오답 분석

- ㉠ ㉠은 출입문을 ‘넘어선 쪽’을 의미한다.
- ㉡ ㉡은 ‘그것 말고는’을 의미하는 조사이므로, 체언인 ‘머칠’과 붙여 써야 한다.
- ㉢ ㉢은 부사 ‘뜻밖에’에 보조사 ‘도’가 붙은 형태로, ‘생각이나 기대 또는 예상과 달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기>에서 유의어로 제시된 ‘의외로’와 바꿔 쓸 수 있다.
- ㉤ ㉤의 ‘밖’은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보기 1>의 1「3」의 용례로 적절하다.





